

제434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제 3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4월15일(수)

장 소 재정경제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2)
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5)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5)
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4)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9) 철회동의의 건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7) 철회동의의 건
9.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신현송) 인사청문요청안
10.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신현송) 인사청문회

상정된 안건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2) 2
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5) 2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2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5) 2
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4) 2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9) 철회동의의 건
..... 3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7) 철회동의의 건
..... 3
9.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신현송) 인사청문요청안 4
10.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신현송) 인사청문회 4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임이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안을 의결한 후에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KBS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며 구윤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한 국외 출장으로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2)
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5)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5)
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4)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03분)

○위원장 임이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조세소위원회 박수영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조세소위원회 박수영 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각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1건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1건의 법률안은 수정안으로, 그리고 3건의 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박민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 중에 천재지변을 보다 구체화하고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비재산적 손실 발생을 연기신청 사유에 포함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수영 의원, 송언석 의원, 안도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과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추가하였습니다.

한편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도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과세 특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감면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입력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

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에 애써 주신 소위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의결에 앞서서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전들은 국회법 제58조제5항과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전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칩니다.

오늘 의결한 안전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및 관계자 여러분들은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9) 철회동의의 건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7) 철회동의의 건

(10시08분)

○위원장 임이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이상 2건의 법률안 철회동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4월 3일과 10일 국회의장으로부터 김정재 의원과 박수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었다는 통지와 함께 우리 위원회의 철회동의 여부를 알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국회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동 법안에 대해 철회동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신현송)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공직후보자의 마무리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동발 리스크 등 대외여건 악화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내수경기가 얼어붙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고유가·고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대내외적인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풀어 나가기 위해서 통화신용정책을 총괄하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한국은행총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송 후보자께서도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9.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신현송) 인사청문요청안

10.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신현송) 인사청문회

(10시10분)

○위원장 임이자 의사일정 제9항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신현송) 인사청문회요청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신현송) 인사청문회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6년 4월 15일

공직후보자 신현송

○위원장 임이자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송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국은행총재후보자로 지명받은 신현송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청문회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재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로서 소신을 밝히기에 앞서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여전하고 국제유가도 전쟁 이전에 비해 크게 높아져 있으며 글로벌 통상환경과 주요국의 통화·재정정책도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경제의 물가 상방압력과 경기 하방압력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3월까지의 오름폭이 제한적이었지만 높아진 유가와 환율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는 반도체 경기 호조와 추경이 하방압력을 일부 완화하겠지만 당초 전망보다는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물가와 성장 모두 전망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국내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금융·외환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금융 불균형 위험 그리고 취약 부문의 신용리스크를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과 실물 부문이 상호작용하며 리스크가 증폭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단기적 리스크 요인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와 불균형 심화, 높은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수준 등이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기술 발전과 AI 혁신 속에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야 하는 도전과제도 앞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같이 엄중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총재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총재로 임명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한국은행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은행 본연의 책무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겠습니다.

중동 상황 변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폭넓게 소통하면서 정책의 방향을 유연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와 금융안정 역할 강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정부 정책과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각 정책의 상호 영향과 우리 경제 전반의 안정을 고려하면서 조화롭게 운영하겠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하고 조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연구하고 필요한 정책 제언도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은 중앙은행의 전통적 책무인 거시경제 안정과 통화가치 제

고, 지급결제의 효율성 개선과도 밀접히 연결돼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개혁 과제들을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원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미래 통화의 생태계 구축 등과 같은 한국은행 본연의 역할 강화도 도모하겠습니다.

원화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환거래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할 예정입니다. 이는 원화 기반의 자본거래를 촉진하고 실물거래로도 연결되면서 원화의 국제적 수요 확대와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 화폐의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을 통해 중앙은행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CBDC와 예금토큰의 활용도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고라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와 국가 간 지급 플랫폼이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미래의 통화 생태계 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보완적·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각 부서와 개인의 전문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조직 전체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문화와 업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한은 임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국은행 총재로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에 대한 식견과 경륜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대한 통찰력과 균형 잡힌 판단력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면 제가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총재로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대학에서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전문지식과 연구성과 그리고 정부와 BIS에서 근무하면서 쌓아 온 정책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우리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주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천하람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임이자 천하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신현송 후보자의 장녀 같은 경우에는 1999년에 영국 국적 취득과 함께 한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신현송 후보자는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2023년 12월에 강남구 동현아파트에 딸을 내국인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당시 후보자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한 전입신고서 사본입니다. 이런 허위 전입신

고 같은 경우는 3년 이하 정역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신현송 후보는 우리 위원회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장녀는 5년 전에 결혼해서 해외에서 독립생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작 2023년 12월에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한 겁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인 것이 명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심지어 내국인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한 것이 한국 국적자 혜택을 노린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후보자 장녀의 건강보험, 한국 여권 사용 내역, 부동산 소유 및 청약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후보자의 장녀는 내국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서 국내 각종 행정망에 내국인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후보자 장녀의 건강보험, 출입국, 부동산 소유 및 청약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후보자 측에 오전 중에 후보자 장녀의 건강보험, 출입국, 부동산, 청약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신현송 후보자님, 천하람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시는 것 잘 들으셨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오전까지 제출 가능하신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딸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오전 중으로, 오후 회의 속개될 때 2시까지는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후보자님, 저는 후보자님의 고려대학교 편입학과 이중학적 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지금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후보자는 1978년 7월 옥스퍼드대학교에 합격 후에 입학유예하고 두 달 후인 9월에 고려대학교에 편입학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두 달 만에 대학 수학 이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려대에 편입학을 한 거지요. 국민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 편입학이 이루어졌습니다. 입학유예 신분을 유지하고 고려대 재학을 유지했다면 이는 명백히 이중학적입니다. 당시 두 대학 모두에서 이중학적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특례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명백히 법에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려대학교 편입학이 당시 학칙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관련 교육법 시행령에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코자 자료제출을 요청드렸습니다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후보자가 입학한 연도에 고려대학교와 옥스포드대학교 이중학적과 관련되는 허용 여부 그리고 학칙의 존재 여부 그리고 증빙자료 일체를 오후 질의 개시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실무진하고 협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여러 차례 자료제출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부분을 회피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통화주권을 지켜야 하는 한은 총재 입장에서 책임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소영 위원 46년 전 일인데 자료가……

○위원장 임이자 이소영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소영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임이자 손 들고 얘기하십시오.

○박성훈 위원 지금 방금 이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 보좌진이 국회도서관을 통해서 당시의 학칙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소영 위원님께서 40여 년 전 자료가 있을 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직접 후보자를 통해서 그 증빙자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후보자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위원장님, 78년이면 거의 한 50년 전의 일인데 지금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런데 옥스포드에 입학하고 고려대학교 1학년에 편입을 했다고 그런데 1학년 편입도 있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질의응답 시간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선 신상에 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임이자 예.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저는 78년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영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군대를 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나이가……

○위원장 임이자 마이크 좀 바짝 당겨서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전달이 잘 안 됩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당시 제가 나이가 어려서 영장이 아직 안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학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편입을 신청했는데 당시 학제의 차이점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영국은 고등학교가 4년제고 대학이 3년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마 제 추측으로는, 지금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영국의 학제에 맞게 그렇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박성훈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셨고 그런데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후보자님, 맞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받았던 고등학교 추천서는 있습니다. 그 내부 추천서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영국의 학제와 또 그 학제가 한국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지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지금 후보자께서 자료제출에 대한 그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박성훈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하시는, 문제 제기하시는 옥스퍼드대학교에 입학만 해 놓고 어떻게 고려대학교에 편입이 될 수 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1970년대경에 고려대학교 부정입학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와 관련해서 연관성이 혹시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이따 본인 질의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박성훈 위원** 위원장님, 이중 학적 허용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이중 학적 허용……

○**박성훈 위원** 예, 이중 학적 허용 여부에 대한……

○**정일영 위원** 질의를 하지요.

○**오기형 위원** 질의를 하시지요.

○**위원장 임이자** 잠깐만요.

후보자님, 지금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그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영진 위원** 그것은 고려대에 요청을 해야지요. 어떻게 후보자가 냅니까? 고려대에 요청……

○**위원장 임이자** 후보자가 내야지 맞지요.

○**김영진 위원** 고려대에 요청해요. 고려대학교의 학칙과 원칙이 있으니까……

○**위원장 임이자** 아니, 지금 후보자는 거기에 대해서 응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료 제출 요구기 때문에……

○**김영진 위원** 고려대에 요청을 하세요, 위원장님이.

○**위원장 임이자**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너무 그렇게 억지 쓰시면 안 되고요.

○**김영진 위원** 억지가 아니라 고려대에 요청을 해야지……

○**위원장 임이자** 아니, 박성훈 위원님이 지금 본인에게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응할 의무가 후보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위원장님, 대학에 확인해 보고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확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훈 위원님께 별도로 또 의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소영 위원님, 됐지요?

그러면 주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정일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일영입니다.

우선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한은 총재가 워낙 막중한 자리라서…… 알고 계시지요? 요즘 경제가 특히 중동 전쟁 때문에 아주 어렵고, 그렇지요? 마이크 가까이 해서 대답을 잘하셔야 됩니다.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것도 당연히 알고 계시고, 중앙은행의 의미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은행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맞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정일영 위원 마이크 가까이 해서, 중계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결국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이 두 축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통화정책을 책임지고 계신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전문성 그런 측면 또 하나는 개인 신상도 조금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지요.

한국은행이 국민의 은행이니까 우리 국민감정 정서에도 부합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정일영 위원 그렇지만 옛날 40년, 50년 전의 총재의 직무에 큰 관련이 없는 것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끌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국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의혹들은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후보자님은 국제적인 전문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국내 경제에 대한 전문성, 그러니까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지만 거시경제의 지표로만 대한민국을 볼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민생경제, 지역경제, 서민, 취약계층, 청년들의 그런 취업의 어려움 이런 것 좀 알고 계십니까? 간단히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현장에서 부족한 점을 채우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저는 한국은행총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우려 내지는 걱정, 국내의 이런 문제를 잘 알 수 있을까라는 게 세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하나를 후보자님이 지난 20년 동안 국내에 거주한 게 11개월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리고 가족, 배우자, 두 자녀 모두 외국 국적이고, 그것도 맞고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정일영 위원 그리고 어쨌든 금융자산 중의 92.3%가 외화표시자산이고 집도 세 채인이 갖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물론 해명을 정확히 해 주시고 집도 매각으로 내놓고 계시고 외화자산 문제도 해명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국민들이, 한국은행총재라는 자리가 국민의 은행의 총재라는 자리니까 해명을 정확히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정책적인 질의를 하면 첫째가 환율인데요.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환율이……

제가 그동안 서면답변과 언론보도를 보면 후보자님이 환율에 대해서 큰 걱정을 안 하

신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시장 안정화 장치가 충분하다, 현 상황에 대해서 큰 우려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위원님, 제 발언 내용은 우선 먼저 과도한 환율 상승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지금의 환율 천사백몇십 원, 1480원, 1470원 이 환율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적정 환율보다도 환율이 쓸림이 있는가 또……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환율이 높아요. 시원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환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정일영 위원** 높아요. 높으니까 어떻게, 무슨 문제예요? 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특히 중소기업, 서민이 어렵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환율을 방어할 책임이 한국은행총재에게 있잖아요. 지난 3년간 환율을 보면 계속 환율이 높아요. 제 생각에는 한 1300원대로 내려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 정확한 수준 자체는 제가 언급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데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환율이……

○**정일영 위원** 총재로 취임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좀 이해가 가는데 아직은 후보자의 입장이니까 환율에 대한 소신을 좀 밝히셔야 되겠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알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리고 환율, 외환보유고…… 다음 화면 보면 알겠지만 외환보유고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다, 걱정 없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외환보유고도 요즘같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상태에서는 절대 액수보다도 전체적으로, 우리 세계 12등으로 떨어졌던데 액수 면에서도 좀 더 줄었고 외환보유액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든지 걱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환보유고의 목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걱정…… 지금 외환보유고가 환율 등등 감안할 때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문제가 없다기보다도 환율, 보유고를 평가할 때 경제에 충격이 왔을 때 얼마나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정일영 위원** 아니, 답변이 좀 클리어하지 않으신데요. 다른 것도 하나 물어볼게요.

한국은행의 역할 중에 물가안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중동 전쟁 때문에 물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상승 압박, 인상, 상승이 너무나 큰데 물가를 잡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후보자님의 여러 가지 보면 성장보다 물가안정, 그러니까 성장을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 아니면 굉장히 약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성장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매우 중요합니다.

○**정일영 위원**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결코 성장을 가볍게 보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정일영 위원 물가안정도 중요하지만 성장에 굉장히 중점을 뒀야 됩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대한민국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런데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의 토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목적이 물가안정을 통해서……

○정일영 위원 그러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많은데 후보자님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없다고 답변을 한번 언론에 하셨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오는 그런 현상인데……

○정일영 위원 물론이지요. 경기가 지금 안 좋고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성장은 물론 둔화되고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성장이라는 어떤……

○정일영 위원 스태그플레이션은 우리나라에 가능성이 없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가능성은 비교적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정일영 위원 적은 편이다.

그러면 경제성장률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굉장히 어렵겠지요? 당초 목표치 한국은행이 2%로 봤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당초 목표가 2%였는데 중동 사태로 인해서 경기는 지금 하방압력을 계속 겪고 있고……

○정일영 위원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까 20년에 11개월 거주, 배우자·자녀 국적 문제, 외화 금융자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소신껏 국민들한테 시원하게 한번 좀 해 주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계속 제 신상 문제로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에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행정 처리를 못 한 제 불찰이었고요. 다만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고의적인 그런 행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모든 문제를 신속히 처리를 하고 그리고 한국경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일영 위원 금융자산하고 집은 내놓으셨지요? 일부 매각한 게 있고.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지금 상당히 처리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질의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 진성준 위원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평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제적인 금융전문가다, 이런 분이 한국은행총재로 지명되었다 해서 기대가 크고 저 역시 기대합니다.

앞서 모두발언으로 인사하신 말씀을 죽 들어 보아도 매우 겸손한 자세로 국민께 당신의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또 앞으로 어떤 각오와 자세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혀 주셔서 저는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언론에서 후보를 가리켜서 ‘실용적 매파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런 진단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매파냐 비둘기파냐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성준 위원 그런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인상은 과잉 대응을 하는 것이 소극 대응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또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금리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소신을 가지고 언론에서는 매파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저는 한국은행의 제일의 임무가 물가안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매파적 소신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저는 적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구태여 부인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혹시 한국은행법 읽어 보셨어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읽었습니다.

○진성준 위원 제1조에 ‘통화신용정책을 통해서 물가안정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또 6조인가에는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제일차 목표는 물가안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겠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장, 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진성준 위원 그런데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것을 경제정책의 제일 목표와 과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재정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또 그러자면 금리를 좀 낮게 유지해 갈 현실적 이유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그렇게 하게 되면 최근의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문제도 있지만 물가 인상 압력이 상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 반해서 한국은행총재는 물가안정을 제일 목표로 한 만큼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소신을 갖고 있는 분을 총재로 모시는 것이 경제정책의 어떤 균형을 이루는 데에도 필요하다라고 대통령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후보자를 지명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이 모든 문제가 타당하다고 저

는 보고요. 그리고 언론 인터뷰에 대한 배경은 그 당시가 2022년 러-우 전쟁이 발발하고 주요국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습시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물론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반드시 같은 도구로, 항상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경제나 금융 상황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모두발언에서도 드렸지만 지금 통화정책에 어떤 시험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사태가 조기에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물가 압력은 계속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일시적인 충격이어서 금방 가신다고 하면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지만 오래 지속돼 가지고 기대인플레이션에 반영이 되고 또 근원물가에 반영이 되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반드시 통화정책의 역할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게까지 기다리면 안 될 것 같고 좀 선제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이를테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가 2%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진성준 위원 그런데 이미 3월 달에도 물가안정 목표를 상회했고 기대인플레이션은 2.7%에 이르고요. 또 OECD도 우리나라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7%, 그러니까 1.8~2.7%까지 상향했어요. 그러니까 물가 인상은 예견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후보자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일단 공급 충격이 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그 문제는 일시적으로 올라간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충격으로 완화해서 다시 목표치까지 가는 것인가 그런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충격이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후자가 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이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지요. 중동 사태가 지금은 조기에 종료되지 않고 장기화될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전망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설령 지금 당장 중동 전쟁 사태가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원유가 정상적으로 공급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 다 이렇게 관측되고 있는 것이니까 고유가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물가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후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래서 제대로 역할을 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국민의 기대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환율이 너무 높은 것도 좀 걱정 아닙니까?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근 언론 인터뷰에 보면 ‘그렇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몇 개월 동안 환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면도 있고 또 단기적으로 시장의 위험 선호도나 그런 변동도 작용을 하는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구조적이고 국제 포트폴리오 자산 호

름, 자본 흐름 그런 데서 많이 기인되는 것도 있지만 이번 3월에 있었던 환율 상승이라든가 또 금융제도 자체가 충격을 맞아 가지고 큰 변화가 있을 때는 그것 이상으로, 특히 자본 흐름에 잡히지 않는 그런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작동되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선물환 시장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자산을 사는 그런 흐름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이렇게 오른 것을 보면 위험회피 또 다른 금융 채널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번뿐만 아니라 작년 4월 달에 미국의 상호관세 문제…… 상호관세 문제는 오히려 달리가 큰 폭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전에는 엔 캐리 청산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24년 8월 달. 그런 경우에는 보면 특히 기존의 장부상의 자본유출보다는 장외, 그러니까 장부 외, 부 외의 파생상품을 통한 그런 거래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도 한국에서의 NDF 거래가 상당히 큰 몫을 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현상도 가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원화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러한 금융제도 전반에 미치는 환율에서 특히 원화의 위상이라든가 환율을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그리고 금융 리스크와 여러 사용자의 목적과 편의를 동시에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진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영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권영세 위원입니다.

우선 신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박수영 간사, 임이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됐는데 이창용 현 총재도 신 후보자에 대해서 칭찬을 아주 많이 하던데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물론 한국 생활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신변 정리는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잘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비슷한 맥락에서 글로벌한 인맥은 굉장히 탁월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학맥이라든지 그다음에 일하면서 맺은 인연들이 굉장히 좋아서 한국은행이 국제적으로 협력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점을 가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 경제팀 이랑 당장 일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듭니다. 지금 우리 경제팀들, 부총리부터 시작해서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직접 일해 본 적은 없습니다.

○권영세 위원 평소에 교류하는 사이도 아니시지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권영세 위원 F4라고 아시지요. 들어 보셨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권영세 위원** 최근에 활용도가 좀 낮은데, 물론 F4 과정에서 정부의 목소리가 한은 쪽에 지나치게 많이 들어와서 독립성 우려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위원님, 한국은행은 역시 통화정책을 맡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통화정책을 펴다 보면 거시경제 또 거시건전성 제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권영세 위원** 그 취지는 협력을 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인식 공유를, 인식을 같이하고 또……

○**권영세 위원** 됐습니다. 제 질문 시간이 좀 부족해서 나중에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제를 취하다 보니까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우리 같은 경우는 청와대지요—거기하고의 관계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도 여러 연준 의장이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아서 번스 같은 경우는 닉슨하고 지나치게 가까웠던 것 게다가 정책 판단의 실패로 인해서 인플레이를 잡지 못한 것으로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아까 F4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F4보다도 청와대의 정책실장이 지나치게 큰 그림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청와대와 한은과 한은총재와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위원님,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명시된 바 그대로 통화정책을 통해서 물가안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세 위원** 그렇지요. 물가안정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하는 게…… 그러나 정부 전체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재정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경제구조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리고 한국은행의 독립은 그 책무를 이루는 데 아주……

○**권영세 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겠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제도 기반입니다.

○**권영세 위원** 가벼운 것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한은 전임 총재들을 직접 평가하는 건 좀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 의장들 중에서 여러분이 계셨는데 가장 롤모델이 된다 그럴까, 가장 잘했다고 평가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이렇게 특정 한 분을 지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연준도 상황에 따라서 난관이 많은 그런 의장도 있었습니다만……

○**권영세 위원** 그렇다면 사람이라기보다 어떤 장면에서 그 사람은 어떤 부분을 특별히 잘했다고 보여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특별히 못 해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부분으로 짚을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서 번스하고 또 폴 볼커의 아주 대조적인 그런 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니까 독립성 부분 이런 것을 주로 얘기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권영세 위원** 후보자께서는 금융에서 AI 역할을 강조하셨어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런데 일반은행에서는, 금융에서는 AI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중앙은행의 인공지능 활용은 어떤 식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위원님, 중앙은행도 AI 사용자의 하나로 AI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중앙은행의 고유업무인 통화정책을 위한 경제전망이라든가 또 통계라든가 하는 그런 업무에 아주 특화된 업무도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지금 보면 그런 업무로,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것이 현재 한국은행이 수준에 잘 맞춰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좀 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지금 한국은행에서 AI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데이터보안의 제약하에서 내부에서 한국은행의 AI 모델을 개발해서 지금 다른 중앙은행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후보자께서 취임을 하시게 되면 특히 AI에 관심이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으니까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며칠 전에 이창용 현 총재가 마지막 통방 기자간담회 하는 것 보셨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봤습니다.

○권영세 위원 내용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에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유지결정 자체하고 배경설명과 관련해서 생각이 다르시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짚어 둘 만한 부분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아닙니다. 다른 생각은 없고 그 당시에는 중동 사태가 아직도 초기여서 워낙 불확실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권영세 위원 4월 10일이면 그렇게 초기도 아니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래도 아직 통화정책으로……

○권영세 위원 그때는 이미 한 번 휴전이 돼 있을 때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지만 공급충격이 기대인플레이션이나 또 근원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전제가 아직도 성립이 안 된 단계여서 좀 두고 지켜보는 방향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세 위원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상 위원 후보자님, 한국은행이 1년 예산 1조 넘게 쓰는 것 알고 계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최기상 위원 국회보다 예산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최기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늘 질문드릴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국은행법에 의하면 통화신용정책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저는 핵심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시스템이 노동소득이 자본소

득의 증가 속도를 못 따라간다. 자산가에게 더 유리한 구조를 강화한다. 아시겠지만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때 나온 것처럼 금융의 영향력은 막대한데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와 책임이 숨겨져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돈이 성실한 노동을, 성실성, 우리 미래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평가에 매우 유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는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한가. 두 번째로는 이런 경제적·구조적 불평등과 기회의 격차를 바로잡아서 공평을 동반한 성장, 그래서 국민 대다수의 삶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한국은행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어느 동창회에서 A, B, C 세 친구가 10년 동안 성실하게 다녔습니다.

화면 보세요.

A 친구는 성실하게 일해서 그냥 저축만 했는데 10년 동안 2억 모았답니다. B 친구는 비슷한데 부모가 전세자금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집을 샀어요. 10년 후에 아파트가 5억이 올랐답니다. 잠만 잤는데 5억이 늘었어요. C라는 친구는 중간에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해서 도전을 했는데 성공을 못 했나 봐요. 다시 돌아왔더니 저축은 5000만 원, 빚이 조금 남았다.

다음 보지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상속계급사회다, 세습자본주의가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고 영국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상속계급사회 들어 보셨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들어 봤습니다.

○최기상 위원 다음 보지요.

토마 피케티의 유명한 이론이지 않습니까,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다. 금리생활자들 중심, 노동밖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지배당하는, 일을 성실하게 했는데 왜 나는 가난해지는가에 대한 설명을 통화신용정책으로 한국은행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사실은 다 엄한 소리다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많이 할 거예요, 잘 모르는 얘기를 자기들끼리 한다.

다음 보지요.

착각이라는 거지요. 부의 불평등을 줄이고 조화로운 안정을 달성시키는 것은 착각이다 이런 착각을 유포하지 마라, 특히 정부가.

다음 보겠습니다.

자본에는 한계가 없지요. 자본은 24시간 일하잖아요. 노동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쉬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통화신용정책으로 교정할 것인가…… 대한민국 부동산, 큰 문제고요.

보겠습니다.

피케티의 결론이에요, r 이 g 보다 큰 건 자연법칙이 아니다. 대체로 그랬는데 그렇지 않았던 극히 예외적인 연대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바뀌어야 되고, 그건 정책의 영역이고 저는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평가합니다.

다음 보지요.

2025년 대통령선거 때 우리 공약이 경청투어였습니다, 경청.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겠다, 국민들이 뭘 원하시는지 듣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지방선거 때도 ‘착불 공약단’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음 보지요.

영어에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라틴어의 ‘귀를 기울인다’에서 나왔습니다. 정부나 권력은 국민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정부가 그리고 후보자가 내가 평생 금융인으로서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대한민국에서 실현해 보겠다? 저는 공직후보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지요.

잘 아시는 영어 단어에 ‘책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구조를 보면 응답과 할 수 있음으로 돼 있어요. 공직자의 책임은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응답하려면 먼저 들어야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통화신용정책에 대해서. 그걸 듣지 않으시고 일한다는 것은 공화국의, 공직자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의 시작은 국민이 뭘 말하고 있는지 들으셔야 돼요. 듣지 않으려고 할 때 그리고 듣지 못할 때는 책임이 없는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많은 공직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필생의 내가 수십 년간 공부한 걸 드디어 실현할 때가 왔다. 누가 그 실현의 권한을 주고 자격을 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려요.

다음 보지요.

우리 헌법에 한국은행 안 나옵니다. 알고 계신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최기상 위원 금융이라는 단어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가 해석을 했어요. 대한민국 사회적 시장경제, 정의, 공정, 민주화 이게 우리 지향의 한 축이라는 말씀을 헌법재판소에서 했다는 얘기 말씀드리고요.

다음 보지요.

마지막 질문, 다시 여쭙습니다.

지금 이런 대한민국 상황에서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한국은행이 쓰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국민들께 시원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얘기.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위원님 아주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중앙은행으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요. 말씀하신 자본과 노동과의 관계 또 수익률,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큰 맥락 안에서 중앙은행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해석을 한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그리고 금융안정 이렇게 두 가지 큰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융안정이 저해돼서 또 자산 가격에 큰 버블이 생겨서 그게 붕괴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 그런 것을 막아 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사전에 복원력을 키우고 또 경제의 제도를 미리 정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국은행은 아무래도 통화제도하고 금융제도하고 직결돼 있습니다. 그 중앙에

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쉽지는 않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금융안정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 후보님, 먼저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 무대에서 쌓으신 그 역량과 경륜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해서 소중한 자산을 지불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마 총재가 되시면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 중동 전쟁발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복합 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경제 하방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거지요. 물가가 오르고 있고 성장은 둔화될 것이라고 여러 경제 예측기관들이 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OECD가 우리 물가상승률이 0.9%p 오를 것이다, 반면에 성장은 0.4%p 떨어질 거다 지금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선제 대응이 좀 중요할 거고 통합 금융의 수장으로서 이 문제를 극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가를 잡을 거냐 아니면 성장을 촉진시킬 거냐 이 두 가지가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상충되는 정책 목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위원님, 상충이 되면 항상 한쪽은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가, 특히 한국처럼 유가에 민감하고 또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제에서는 이런 유가 충격에 상당히 취약하고……

○안도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시겠다는 거지요. 그게 한국은행의 본연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성장을 어떻게 시킬 거냐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가 잠재성장률 밑으로 추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역할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재정이 해야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재정은 성장에 촉진적인 도움이 되는 전략적 지출 분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확장적 기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적으로 그리고 정부의 재정 정책은 성장을 회복시키는 확장적 기조로 가야 된다 이러한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위원님,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재정 정책은 물론 통화 정책을 수행하는 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이 어떤 규모로 어떻게 설계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안도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지요. 중앙은행의 성장에 대해서 지금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이 그 부분을 담당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26조의 추경이 굉장히 저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뒷받침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 통화 생태계를 조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CBDC하고 스테이블코인을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다시피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압도적인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거래시간, 비용, 접근성에서 기존의 법정 통화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 도래할 AI에이전트 시대잖아요. 이거는 인공지능이 인터넷 상에서 자연지능을 대신해서 여러 경제행위를 하고 결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결제에 가장 부합하는 시스템이 바로 스테이블코인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디지털 통화 시대의 주력 통화가 스테이블코인이 된다는 건 누구나 지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통용이 되기 시작하지요. 테더·서클,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현재 98% 정도 시장을 이미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효용성을 느끼고 있는 각국 정부가 지금 앞다퉈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이미 지니어스법을 제정을 했고 아마 11월 말 정도면 시행이 될 겁니다. 가장 신중하다고 하는 일본이 23년도에 이미 법제화를 했지요.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첫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굉장히 뒤져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뒤져 있는 이유가 상당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칫하면 우리가 이걸 놓쳐 버리면 금리 혁신도 놓치게 되는 거고 우리 통화주권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디지털 통화 시대에 기축통화 역할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골든타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춤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한국은행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저는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은행의 통화발행량을 조금 제약할 수 있다 또 은행의 예금기능을 대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코인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금융안정 질서를 위협하는 이러한 행위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가장 크게 규제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기술적·제도적 장치로 다 보완할 수 있다, 우리가 사실 다 예측 가능한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제도와 기술적 장치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위원님, 우선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생태계 내에서 역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통화 신뢰를 위해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앙은행의 주축이 되는 통화제도가 주를 이루고 또 모든 신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안도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CBDC에 대한 효용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CBDC는 나름대로 또 한계가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든 거래를 중앙은행이 통제를 하게 된다면 개인의 모든 금융정보가 다 노출이 되는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 또 은행 중심으로 한다면 기존 결제 시스템을 대체하는 새로운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조금 주저도 하겠지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1차 프로젝트, 한강 프로젝트를 했어요. 했는데, 그때 예금토권을 보니까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거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미 행정부가 CBDC 있잖아요, 폐지라는 행정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빠진 상태에서 CBDC가 추동력을 갖기는 어려운 거지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판단을 하시고.

결국에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각각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살리는 방향으로, 그러한 조화로운 도입 방안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 중심으로 하자라는 안이 지금 있고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해서는 혁신이 없어진다고 해서 핀테크 등 혁신기업 중심으로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이 가지고 있는 안전망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하면서 또 혁신기업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금융혁신에 대한 것 있지 않습니까? 성장기회를 창출하는 이런 측면들이 다 같이 조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행 주체의 지분구조를, 지금 50+1 또 34% 나오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각각 사용 용도에 따라서 스테이블코인과 또 CBDC를 기반으로 하는 예금토권의 역할이 각각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용도를 최적화해 가지고 그 용도에 따라서 맞추는 게 맞고.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외환거래법이 있어서, 그 외환 규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행이 반드시 이렇게 주도권을 갖고 뭘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고객확인 업무의 역량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현재로서는 은행이 그 업무는 가장 잘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런 제안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혁신을 저해한다는 것도 핀테크기업이 컨소시엄 안에서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도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한국은행의 주요 핵심 정책이 물가 관련한 부분과 경제성장의 축들을 통화정책으로 어떻게 잘 이어 가는가 그런 생각인데요.

우리 경제가 지난 2025년 작년에 1% 성장, 올해 예측이 1.7% 성장 그리고 2023, 2024, 2025 3년 평균이 2%가 안 되는 저성장의 입구에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경제의 현재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지금 몇몇 분야는 잘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은 AI 붐에 힘입어서 계속 선방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시다시피 양극화가 부문 간, 계층 간, 지역 간 상당히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으로서는 어떻게 균형 있게 경제를 이끌어 나갈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도 물론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써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부의 재정정책이라든가 다른 산업정책 이런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임이자 위원장, 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진 위원** 국제결제은행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23, 24, 25, 3년간 경제 흐름과 작년을 보면서 이러다가 우리가 일본의 30년 저성장의 터널처럼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장률 또 코로나 시기의 고물가 이 문제가 어떻게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인데, 현재 그러면 후보자는 우리 경제가 일본의 90년대 초반의 30년 저성장의 터널 입구다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니네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김영진 위원** 핵심적인 근거가 뭐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 근거는 일본의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80년대에 여러 가지 붐을 통해 가지고 자산가격이 많이 커서 그것이 꺼지는 상황에서 금융제도에 대한 여러 부담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 기간도 상당히 길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역동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 이런 부문 간 또 지역 간의 양극화는 물론 있습니다.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지만 핵심적으로는 한국의 기술력이 상당히 탁월하고요. 그리고 잠재성장률도 앞으로 있을 AI 대전환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하면 장기적으로 상당히 유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물가 관련해서 연이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물가지수를 보면 코로나 시기에 4.2%에서 경영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통해서 2026년 3월 현재 2.2%로 물가가 안정세인데 OECD 기준으로 보면 OECD가 작년 전망에서 우리 경제성장률을 2.1%에서 올해 1.7%로 0.4%로 하향 전망을 했고 그에 비해서 물가상승률은 2.7%로 수정을 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중동전쟁이 단기적으로 종료가 된다면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3고에서 벗어나서 안정적인 추세로 갈 것인데 만약에 중동전쟁이 조기 종료가 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물가에 대한 추이와 그에 따른 금리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판단은 어떻게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이게 통화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핵심은 물가안정을 위해서 통화정책을 쓰는 건데 만약에 중동 리스크가 계속 진행이 돼서 근원물가나 인플레이션 기대로 전이가 되면 2차 파급효과가 있으면 상당히 그때는 통화정책을 써야 될 그런 단계가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또 하나 더 문제가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세 가지 문제 중의 가장 중

요한 문제 하나가 가계부채였습니다. 현재 이창용 총재도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안정화시키고 싶다고 하는 노력과 정책적인 의지를 통해서 현재 부분적으로 조정이 됐는데.

그래프를 보면 실제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2021년 대략 100%에서 현재가 한 89% 정도, 상당히 소비·성장 제약의 임계치를 지금 그래도 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또한 부동산에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주택가격도 대단히 큰 문제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의 수도권, 특히 서울의 주택가격 버블이 과연 대한민국 실물경제에 기반하고 성장에 기반한 정도의 부동산가격인지 아니면 버블로서의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들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시고, 현재 소비·성장 제약 임계치를 상회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한은에서 조정할 해 나갈 것인지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가계부채는 한국이 타개해야 할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는 단순히 금융안정 문제뿐만 아니라 성장과도 직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가계부채가 많으면 소비의 역동력이 떨어지고 또 전체적인 경제 흐름도 많이 압력을 받습니다.

그 임계치 자체는 측정하는 데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지만 대체로 GDP 대비 80% 내지 85% 정도 차이로 많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80%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가계부채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지 않고 만약에 80%나 85% 이상으로 계속 머무르면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단계인데, 물론 이건 통화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바로 앞서 말씀드린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든가 특히 여러 구조적인 정책을 통해서, 공급정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구조적인 정책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후보자 먼저 축하부터 드리고요.

제가 지금 후보자의 경력을, 이력서를 보니까 참 정말 화려합니다. 국제적인 경제석학이라 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칭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칭송받기에 결코 모자람이 없는 경력이다 그런 점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경력으로 했을 때는, 지명받았을 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문회 앞두고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병역면탈, 이해충돌 문제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다시 걱정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대목이다, 이런 부분을 잘 새겨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소명도 다 하고 해명도 다 해야 될 거고.

경력을 보니까 중학교 졸업한 이후에 52년간…… 한국에 체류한 지는 딱 5년이에요. 그렇지요? 31개월 군복무를 하시고.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16년간 한국에 아예 살지를 않으셨네요. 그렇지요? 혹시 잠시 다녀오는 것 아니면.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박대출 위원 그러면 한국을 과연 잘 안다고 할 수 있겠나, 한국 경제를 안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은 당연히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가족 모두 외국인이고, 외국 국적 갖고 있고 본인도 외국에 거의 다 살고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 중앙은행 총재,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서 ‘검머외 총재’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검머외’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잘 모르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말입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아, 검은 머리 외국인.

○박대출 위원 검머외 총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한국 경제 경험이 그만큼 있으실 거냐 그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를 잘 아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경제를 잘할까라는 데는 지금 물음표가 붙는다, 제가 그런 말씀부터 드리고요.

먼저 신상 몇 개 여쭙보고 또 그다음에 정책질의 좀 드릴게요.

장녀 국적 상실로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공문서에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허위 전입신고가 되지요. 앞서서 천하람 위원이 질의도 했었지만 주민등록법을 보니까 제37조(벌칙)에 그대로 해당이 돼요. 주민등록법 37조 1항의 3을 보면—3의2입니다—‘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등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 이에 해당된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언론보도가 나와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아직은 안 했습니다.

○박대출 위원 아직 안 했어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박대출 위원 언론보도를 안 보셨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런 보도는 봤습니다.

○박대출 위원 보도는 봤는데 안 했습니까, 아직?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박대출 위원 법률 검토를 해 봐야 될 거고요. 지금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안 했다면 이것 단순히 무지의 문제가 될지 책임 회피의 문제가 될지 이런 것도 검토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책임 문제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모친이 살고 계시던 아파트 얘기 좀 물어볼게요. 이것도 참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가족 간에, 모자 간에 충분히 사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는데 이게 공적 영역으로 가면 엄격히 법적인 문제가 따르고 그에 대한 책임 문제가 따르거든요. 모친 아파트를 사서 모친에게는 그 전세를 주고 11년간 전세보증금은 한 푼도 안 올리고 그리고 작년부터는 모친께서 공짜로 살고 계시고 좀 뭔가 비상식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보니까 후보자 측이 그런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향후 국내 세무대리인을 선임해서 전세계약 종료 후에 무상 거주증여성 여부나 납세 절차 등을 알아보겠다. 이걸 세금 내야 될 문제인지 한번 알아보겠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말이지요 혹시 매매대금을 주고받았거나 이것 관련해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갖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거는 다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다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박대출 위원 그러면 그거를 미리, 오전 중에 내 주시고요.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한국 경제에서는 그 실상을 다 알아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금융자산을 지금 46억 원 정도로 신고하신 걸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박대출 위원 그중의 93%가 외화자산이에요. 그렇지요, 93%?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박대출 위원 지금 만일에 한은총재로 일을 하게 되신다면 환율 방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잖아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물가·환율은 가장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지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박대출 위원 환율 방어라는 거는, 지금 1500원 대를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는 지금의 환율 위기상황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고환율 시대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환율을 방어하는 것이 바로 한은총재가 수행해야 될 주요 국익입니다, 수호해야 할.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지점이 되면 외화자산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국익과 사익이 충돌을 해요. 환율이 오르면 본인의 자산이 이득을, 이익을 보는 구조지요.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현실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박대출 위원 이런 충돌되는 지점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러니까, 혹시?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위원님, 우선 먼저 말씀하신 해외에서 오래 살았던 경험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비록 해외에서 오래 살았지만 언젠가는 한국 경제를 위해서 헌신을……

○박대출 위원 그 답변은, 지금 제가 40초밖에 안 남아서요.

혹시 1분 더 주시는 건가요, 그냥 가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박수영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면 답변 잠깐 짧게 하시고 제가……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래서 이번 지명이 저로서는 한국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헌신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귀국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대출 위원 마음가짐을 묻는 게 아니라 이런 난제들을 해결할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듣는 거고요. 조금 이따가 하실까요, 그러면?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박대출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답변시간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면답변을 봤는데 하나하나 앞으로 추가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답변도 듣고.

그런데 여러 가지 기존에 하시던 것과 다른 정책적인 부분이나 충돌되는 지점들이 좀 많이 있어요, 본인도 그렇고 아니면 지금 이재명 정부와도 그렇고.

먼저 대통령이 부동산정책 라인에는 이제는 서류 복사 직원도 관련해서 배제하라고, 빼라고 그랬어요. 다주택자는 안 된다, 복사하는 직원도. 한은총재는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직책이지요? 그렇지요?

부동산정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이지만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후보가 대통령, 이 정부도 마찬가지로 후보도 꺾어야 될 여러 가지 내로남불들이 있잖아요, 언행이 불일치하는 대목. 이를테면 내로남불이지요. 지금 이 정부도 변조사 출신의 공직자들을 이해충돌되는 그런 지점에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거 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이중잣대들이, 후보도 지금 진행되는 그런 여러 가지 발언들과 다른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걸 하나하나 소명하셔야 될 거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아까 답변하시던 것, 그것 좀 더 해 보시겠어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위원님, 제 신상에 관해서는 국민의 시선이 그렇게 달갑지 않은 것은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단 국적 문제나 이런 행정 처리 문제는 제가 해외에 오래 있으면서 미처 행정 처리를 못 한 제 불찰이었습니다. 불찰이었고, 그리고 단 제 개인적인 아니면 제 가족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득을 추구한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앞으로 제기하신 여러 문제를 이해상충 없이, 하나의 어떤 의혹도 없이 다 정리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공직자답게 처신을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런 마음 자세가 미리 저희들에게 제출된 서면답변서에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이는 대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의지가 과연 진정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잘못됐으면 오늘이라도 솔직하게 그것은 진의가 아니었다든지 제대로 답변이 있어야 될 거다, 그 중요한 자리에 가시려는 분이 그냥 하루 청문회로 얼렁뚱땅하시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구요. 이따 추가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박대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환 위원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역량 있는 후보자님이 오셔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입장들을 확인하고 싶은 게 이번 청문회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러한 입장

에서 한국은행총재후보자께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가 우연히 책을 읽다가, 혹시 폴 블루스타인이라는 기자 출신 저자를 아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잘 압니다.

○김영환 위원 인터뷰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데 거기에서 저는 후보자님께서 CBDC 주의자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한국은행 서면답변서를 제가 꼭 보는데 이제까지 BIS에 계실 때부터 시작해서 CBDC 실험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정말 강조하는 게 화폐의 단일성뿐만이 아니고 기존의 스테이블코인 디페깅 문제 그다음에 코인런, 사실은 이게 그때 미국의 은행 건전성 관련해서도 많이 얘기가 됐던 거고, 그다음에 예금자 보호 관련된 부분 그리고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스테이블코인 쪽에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김영환 위원 그런 위험성 그다음에 여러 번 후보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자본 우회, 규제 회피 이런 가능성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들과 함께 통화정책의 약화 가능성 이런 것 많이 언급하셨고 은행의 소매자금 이탈 그러면서 자금중개 기능이 좀 약화된다는 이런 걱정도 많이 하셨어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랬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런데 서면답변서 보니까 좀 달라졌어요.

후보자님 입장이 뭐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화 생태계를 운영해 나가는 것은 중앙은행의 가장 큰 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과거에는 스테이블코인이나 가상자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 이론의 틀도 어느 정도 정립을 했고 그렇지만 중앙은행을 이끄는 그런 자리에서는 자기의 의견보다도 여러 주체들의 의견을 이렇게 다 모아서 상호보완적으로 어떻게 생태계를 이끌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가 고민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입장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김영환 위원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셨는데, 그래서?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화 생태계, 화폐 생태계 스테이블코인은……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보완적 경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보완적 경쟁적으로 역할이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이 말씀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있고, 각각의 그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김영환 위원 그런데 BIS에 계실 때 거기는 공적 기능이 아니었던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거기도 공적 기능이었지만 중앙은행을 대표하는 그런 자리였고……

○김영환 위원 그러면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여러 군데서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했다라는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어디가 있지요,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지금 미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99%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 달러 스테이블코인 이외에 좀 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유로화도 약간 있지만 1%가 채 안 되고요. 또 그 외에는 1bp, 100분의 1%도 채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김영환 위원** 저는 대단히 중앙은행 총재로서 민간의 스테이블코인 과잉화에 대해서 이게 또 수요가 뒷받침될지도 좀 걱정이기도 하고 또 항상 문제되는 건 디패킹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위험성들이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리스크를 올리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통화 당국자로서의 입장이 어떤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변동성과 위험성을 같이 동시에 가지고 가는 것을 중앙은행이 과연 이걸 챙길 수 있냐 이게 이후의 과제일 텐데 어차피 지금 시작된 문제이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보다는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코인 유통이 더 지배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나중에 이 부분은 또 얘기하시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동 사태 부분부터 시작해서 물가 관련된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코어 인플레이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유가 변동성이 우리나라는 크기는 하지만 한국은행이 늘 이렇게 주목하는 게 코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이게 전이되는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거고 그리고 유가 관련된 부분의 어떤 인플레이션 자극 문제는 통화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조세 지출 관련된 문제도 있고 외교 문제도 있고 또 미국의 산유량 문제도 있고 사실은 다양한 측면에서 좀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저는 고용안정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재 경제성장을 진단을 하셨어요, 아까. 그리고 우리가 잠재성장률 밑으로 지금 한 4년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신 후보자님께서 연준 의장이라면 다른 변수들 다 제낀다면, 다른 변수들 다 제낀다면 필립스 커브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물가와 고용의 트레이드오프 관계에서 지금 유가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떤 입장으로 좀 결정을 내리실 것 같습니까?

(박수영 간사, 임이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지금 미국 경제의 특성상 한국하고 이렇게 직접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의 구조가 한국과는 많이 다른 그런 시장이고요. 지금 연준에서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중동 상황을 지켜보면서 계속 유가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로 소비자물가로 전이되는가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연준은 이중 책무가 있습니다. 물가안정도 물론 있지만 또 고용안정에 대한 책무도 있는데 한국은행은 우선 물가안정이 급선무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물가안정을 달성을 하면 고용안정은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또 역시 달성이 된다 하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영환 위원** 거꾸로 된 이론도 있잖아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런데 단지 중앙은행으로서, 그러니까 도구는 하나인데 책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으면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래서 한국은행법을 수정한다면, 고용안정이라는 목적을 넣는다면 후보자 입장은 어떠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과는 달리 고용안정이 상당히 잘 지켜지는 그런 제도고요. 그리고 미국과는 달리 실업률이라든가 그런 지표가 비교적 변동성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도구를 갖고 여러 가지 책무를, 두 토끼를 쫓으면 거기에 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최근에 고용시장에 대해서, 노동시장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통계들을 후보자께서 계속 보셨는지 저는 걱정이고요. 특히 20·30대 청년 쉬었음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되게 큰 이슈가 저는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 구조적 성장 불균형의 문제, 특정 부분의 성장, 지역 불균형 문제, 양극화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거시적으로 전체를 볼 때 저는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좀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물론 경기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특히 계층 간의 양극화 또 지역 간의 양극화 이런 게 지금 산재해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나……

○**김영환 위원** 한계가 있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물론 중앙은행이 책임이 있는 것은 책임 있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후보자님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발견했어요, 후보자를 소개하는 기사였는데.

콜롬비아대학의 애덤 투즈 교수라는 분 잘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잘 압니다.

○**김태년 위원** 개인적으로 잘 아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개인적으로도 압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신가요. 이분이 세계적인 국제관계 잡지 포린 폴리시가 선정한 글로벌 사상가 이런 데도 선정되고 그러셨던 분이냐 봐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주 극찬을 해 놓으셨는데 보셨어요, 이것 혹시?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못 봤습니다.

○**김태년 위원** 우리 후보자를 매크로 파이낸스(Macro finance)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그러니까 거시금융원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사상가다, 그러면서 2022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벤 버냉키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이분한테 줄 것이 아니고 신현송 후보와 그 동료들한테 줘야 된다, 노벨경제학상은.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해 놔더라고요.

그러니까 버냉키 연구가 학문적으로는 아주 훌륭해도 지금 우리의 문제를 즉 현대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실질적으로 해명한 건 신현송과 그의 동료들이다, 아마 이런 평가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평가하면서 극찬을 한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큼니다.

그런데 중앙은행 총재는 단순히 이론가가 아니잖아요. 정답이나 또는 딱 정확한 그림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현실과 또는 시장과 소통하면서 정책도 조율하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압박도 이겨 내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정무적 판단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금융구조 또 고금리 상황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잘해낼 자신은 있으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위원님, 우선 애덤 투즈의 칭찬은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BIS에 있을 때 경제 전체 그것도 금융제도 전체를 봐야 한다는 그런 주장에 상당히 동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금융시스템의 작동을 봤을 때 앞서 이렇게 환율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환율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접할 때도 이런 금융시스템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작동 방식 그런 것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정책도 거기에 맞게 펴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이론적인 틀이 중앙은행 총재로서 여러 가지 의무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태년 위원** 한국은행총재가 되실 거니까 한국은행의 역할 재정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 볼게요.

지금 고금리, 환율, 자본 이동, 금융시장 불안 이런 게 동시에 작동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리 중심 통화정책만으로는 이런 복합 위기 또는 복합적인 상황 대응에 한계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우리 한국은행의 생각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분석이기도 하고 또는 국제적인 경제기구들의 분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이 점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래서 주요국들의 중앙은행들은 금리정책뿐만 아니라 금융감독, 거시건전성 정책 또 유동성 공급 수단까지 결합하거나 또는 연계하는 방식으로 정책 체계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연준도 그렇고 유럽은행도 그렇고 영국 중앙은행도 그렇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역할이 요구되고는 있는데 이 분야에 있어서는 감독 권한과 시장안정 수단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정책수단과 해야 될 역할 간에 괴리

가 발생하는 구조가 있다, 지금 이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래서 금융시장 불안과 자산시장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어렵고 또 정책효과 역시 분산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수단의 한계 때문에?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맞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과 시장안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과 제도적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내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가 있고요. 또 다른 나라 중앙은행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고.

물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재정부의 역할이 있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역할도 있는데, 그래서 한국은행과의 정책적 조율을 통해서 아까 금융안정이나 시장안정 이런 정책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기는 한데 또 그런 정책들을 펼치기는 한데 어쨌든 한국은행의 역할이 지금과 같은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런 진단과 관련해서 정책수단 확충, 제도 개선, 기관과 정책 연계 강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과 방향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 모두가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은행은 말씀하셨다시피 금융안정에 대한 책무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도구는 없습니다. 그것을 한 번에 다 개선할 수는 없지만 관계기관과 논의를 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금융제도 자체가 아주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는 주로 은행 부문의, 특히 모기지 자산을 통해서 자산의 등락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채권시장이라든가 또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비중을 감안했을 때 그 분야에 대한, 그 부문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협조에 관한 그런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총재로 임명이 되면 이쪽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진전을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후보자님, 저는 먼저 후보자님의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여쭙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대학 편입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중학적 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께서 78년 7월에 옥스퍼드대에 합격을 하고 입학유예를 합니다. 그리고 두 달 후에 고려대학교에 편입학을 하게 되는 거지요. 고등학교 졸업 후 두 달 만에 편입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요 첫 번째로 편입이라고 하는 제도가 기존 대학의 일정 학점을,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아서 타 대학의 중간 학년, 보통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입학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후보자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대학 이수 학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시다. 그것도 1학년에 입학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게 편입시험 같은 경우에 1학년으로 입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본 78년도 고려대 학칙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후보자가 편입학한 78년 고려대학교 학칙 제12조를 보면 ‘각 대학 제2학년 또는 제3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학의 각기 전급학년 수료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3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1학년에 편입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고대 학칙상 후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후보자님, 어떤 과정의 어떤 절차로 편입을 하시게 된 겁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위원님, 그게 거의 50년 전의 일이어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최초에 말씀드린 대로 영국의 학제하고 한국의 학제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의 고등학교는 4년제고 또 대학은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런 영국의 4년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느 정도 대학을 수료한 것을 인정하는, 인정을 받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받은 추천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이 배경을 조금 더 이렇게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훈 위원** 후보자님, 저는 후보자님의 지금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PPT 자료 한번만 보여 주시겠습니까.

제가 찾아본 78년도 고려대 학칙과 그리고 지금 띄워져 있는 화면입니다, 77년 교육법 시행령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외국에서 14년 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는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초급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님, 외국에서 대학 입학하시기 전에 총 몇 년을 사셨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초등학교의 3년 반을 영국에서 다니고요,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영국으로 다시 가서 졸업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총 6년 6개월간 학교를 다닌 거지요. 지금 1977년 당시의 교육법 시행령에 보더라도 학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백히 정부의 학력 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대학교에 편입한 그 사유, 이유를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지금 너무 오래된 일이어서 소상하게 말씀드릴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성훈 위원** 후보자님, 그러고 나서 고려대학교에 편입학을 하게 되면 학적이 옮겨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옥스퍼드대학교에는 이 사실이 통지가 됐습니까? 제가 이중학제에 대한 부분을 여쭙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옥스퍼드대학에서는 4년 입학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그 영장을 받을 동안 학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고려대학교를 다닌다는 그런 내용은 제가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오전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분명하게 자료로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임명 이후에 제가 댓글을 한번 봤습니다.

PPT 자료 한 번만 띄워 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친 국적 관련 미신고 의혹이 있고요. 또 가족 전반의 외국 국적 보유 또 상당한 규모의 해외자산 편중까지, 결국 투명성·책임성, 이해충돌과 관련되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고자 하는데 저기 한번 확대를 시켜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환율이 오를수록 더 많은 이득이 생기는 사람이 환율 급등 시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내야 하는 한은총재를 한다? 생선 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꼴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이 있고요.

‘금융자산 중 93%가 외화자산, 다주택자, 가족은 다국적 가족(부인은 미국 국적, 장남은 영국 국적).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총재로……’.

‘부인은 미국인, 아들은 영국인, 본인은? 다국적 가족이네. 이들이 과연 한국에 대한 애정이라는 것이 있을까? 그 많은 해외생활 와중에도 한국 부동산에 대한 투기는 잊지 않았다’.

‘한국은행총재라는 자리는 국가경제와 그에 따르는 기밀을 다루는 자리인데 외국 국적자가 가족이라면 국가 기밀을 보호하기 어려울 수 있다’.

‘부인과 자녀 모두 외국 국적이다. 아들도 한국 국적 포기하고 군대 면제받았다고 한다. 그럼 이 사람도 사실상 외국인인 셈인데 외국인을 한은총재로 스카우트해야 하나?’.

‘한은총재후보자는 후보자 가족 모두가 미국·영국 국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족이다. 환율이 오를수록 자산이 늘어나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시중의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위원님, 외화표시자산에 관해서는 이미 상당 부분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을 하고 원화로 반입을 이미 한 상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줄여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관련은 저희 어머니하고의 거래를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투기성이나 갭투자 목적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시에는 어머니가 집을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했던 그런 시기여서 제가 어머니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 집을 사서 생활비를 드린 그런 식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살고 계신데 지금 거주하시는 그런 형태가 증여성이라고 만약에 간주가 된다 그러면 선임된 세무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그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필요한 세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철 위원**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지요? 지금 중동 상황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물가는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서민들 삶은 계속 폭폭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물가가 상승하면 서민들 주머니가 적어지면서 서민들 삶은 더 힘들어지고, 특히나 지금 환율 인상이 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산은 줄고 있는 외화표시, 이런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요새 유행하고 있는 건데 거지뱀이라는 웹사이트 들어 보셨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조인철 위원** 지금 물가가 얼마나 심각하면 1만 원 이하짜리 밥을 찾아서, 식당을 찾아서 그런 뱀이, 웹사이트가 2주 만에 60만 회가 조회가 됐다 할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최우선 목표는 법에도 현재 있지만 통화가치 안정 아니겠습니까? 그 통화 가치 안정을 위해서 통화신용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조인철 위원** 그런데 이창용 총재 시절에 보면, 지난 4월에도 이미 2.5%로 동결했습니 다마는 일곱 번 연속, 계속 동결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후보자님께서는 이게 바람직한 현상인가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감내해 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상황을 보면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더 낮춰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 연속 계속해서 금리를 동결했다, 이게 바람직한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위원님, 금리를 움직이지 않았다고 그게 어떤 수동적인 행위라고는 간주할 수 없고요. 한편으로는 물가 압력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 그래서 오히려 그게 전략적 인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전략적 인내, 제가 보면 그냥 아무 대책이 없다 그래서 나는 할 게 없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더 이상 한국은행에서, 실제로 통화가치 안정이 1번일 텐데 통화가치 안정을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금리인상도 필요한 시점일 수도 있고 경제상황을 보면 낮춰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전략적 인내를 했다고 하는데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이번 기준금리 결정은 지금 현재 상황에 상당히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인철 위원** 2.5%가 적정하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중동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또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에 좌우되는 그런 통화정책 결정이 지금으로서는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는 약간 이른 면이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또 지금 물가는 그렇습니다마는 환율 측면에서도 보면 뭔가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할 정도의 지금 통화신용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내외적으로 전부 통화가치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국내적으로 보면 통화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대외적으로 환율적으로 봐도 지금 통화가치가 엄청 떨어지고 있다, 우리 원화 가치가. 이런 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 환율을 보면, 최근에 환율이 1500원이 넘어갔잖아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넘어갔습니다.

○**조인철 위원** 넘어가면서 물가가 굉장히 크게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유가 충격이 상당히 컸습니다.

○**조인철 위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볼 때, 실제로 후보자께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제경제보좌관을 역임하셨었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당시에 그것이 건전성 3종 세트인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걸 발표하셨고 실제로 실행을 하셨었고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환율의 안정을 위해서 그 정도의 어떤 특단의 대책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위원님, 환율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율의 등락의 이유 중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또 일시적인 위험 회피 그런 현상도 있고 또 어떤 제도 자체를 다시 봐야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원화의 국제화를 통해서 유동성을 계속 키우고 거시건전성 틀 안에 그런 제도를 정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혁신 자체가 중앙은행과 직결되는 그런 구조로 가게끔 이렇게 3단계 삼각형이 필요합니다, 혁신·국제화·거시건전성. 그래서 그 작업을 제가 아주 중요한 작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그게 4년 만에 다 해결될 수 있는 과제들인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4년 만에 해결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지요.

○**조인철 위원** 원화의 국제화가 4년 만에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 같고?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국제화가 다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첫걸음이 중요한 만큼 첫걸음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조인철 위원** 구체적으로 대안이 있으시다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워낙 국제화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오기 전부터 꾸준히 한국은행하고 정부에서 이 작업을 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MSCI 지수의 편입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편, 특히 역외 원화결제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큰 노력을 쏟아부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은 제가 BIS에서 있으면서 시작한 아고라 프로젝트 그러니까 국내에 토큰화된 예금과 국경 간의 거래, 그런 플랫폼을 제가 구상을 했는데 한국도 7개국 중에 아주 중요한 중앙은행 멤버입니다. 그래서 혁신을 통해서 국경 간 지급결제 시스템이 국

내 결제 시스템하고 연계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한편으로는 원화의 국제화를 통해서, 지금으로는 모니터링이 힘든 역외선물환—이것 NDF라고 그러니까—NDF 시장을 보다 양성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금융안정의 틀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시건전성 정책도 기본적인 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느 한 사업으로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다 같이 동시에 서로 보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인철 위원 1분만……

○위원장 임이자 1분 없습니다, 오늘.

○조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후보자님, 오후에 첫 질의가 천하람 위원입니다. 천하람 위원님의 첫 질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천하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점심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이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님하고 유상범 위원님하고 바꾸셨지요?

○유상범 위원 예.

○위원장 임이자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감사합니다.

○유상범 위원 후보자가 되시고 나서 지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SNS 글을 올린 것을 제가 한번 쭉 봤어요. 클래식 음악 애호가라서 굉장히 평가받으시고, 아주 고급 영어가 기억이 난다는 평도 있습니다.

27년 전 세계지식포럼에서 폴 크루그먼과 니얼 퍼거슨 토론을 주재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진행을 잘했다는 호평도 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에, 2010년 때……

○위원장 임이자 유상범 위원님 마이크 좀 바짝 대고 하십시오.

○**유상범 위원**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기안을 하셔서 가지고 금융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도 있고요. 나중에 보면, 여기 특히 신현송 가설이라고 세계가 인정한 이론이 글로벌 유동성과 금융위기 메커니즘을 규명한 거장이다.

업무 역량으로서 굉장히 높이 평가받으시고 고급 취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총재로서는, 여기 이 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세계은행총재가 아닌 한국은행총재’ 이렇게 하면서 그 역량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신현송 후보님,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공직을 맡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항상 강대국에 있고 우리가 수출로 먹고사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들이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기를 요구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심정입니다. 이것이 과거 조선시대 청백리가 우리 국민들의 존중을 받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런데 지금 후보께서 특히 고교 졸업 후 옥스퍼드 합격하고 나서 입학 유예를 하고 고대에 다시 편입을 합니다. 스무 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스무 살짜리 대학 들어가서 옥스퍼드 들어갔을 때 주변에서 환호를 했겠지요.

그러면 스무 살짜리 학생이 편입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못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편입이 됐는가를 보면 그다음 군대 입대해서 통역병으로 입대하는 사연이 나옵니다. 통역장교로 들어가셨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장교는 아니었습니다.

○**유상범 위원** 장교는 아니라 통역병으로 들어갔어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타자병이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그게 왜 필요하나? 적어도 우리나라 대학에 재학 중인 증명서가 필요했던 시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시절이면. 그렇지요? 박정희 정권 시절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누가 했을까요? 부모님이 했을 겁니다. 뭘 알겠습니까, 스무 살짜리 학생이. 그러면 이 자리에서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기는 어렵지요. 그러면 적어도 국민의 눈에 그와 같은 모습은 부적절한 것으로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라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마치 50년 전의 일이니까 내가 잘 말하기 어렵고 하면서 빙빙 돌려 가지고 변명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 신현송 후보에 대한 역량에 대한 기대가 도덕성에 대한 평가로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위원님.

○**유상범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마치 50년 전의 일이니까 잘못이 없는 것인 양 애매하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위원님.

그 당시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학제의 차이점과 또 고려대학교의 학칙이 문제돼서 그걸 정확하게 아직 저희가 파악을 한 게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범 위원** 신현송 후보, 신현송 후보에게 고려대학교 편입이라는 생각이 있었겠어

요, 그당시에? 그러면 그 의견을 누가 줬겠습니까? 그것은 주변에서 한 거예요. 어른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게. 아니, 스무 살짜리 학생이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학제까지 고민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라고 제가 주의를 주는 겁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유상범 위원 신현송 후보가 하지 않더라도 국민이 보기에 부적절한 부분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지요. 그것조차도 애매하게 변명으로 일관하시면 신현송 후보가 이후에 자기의 철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현송 후보의 그 말을 누가 믿어 주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의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그 후보가 신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에 따라서 신뢰도가 형성되는 것이지 말이 유려하고 화려하고 고급스럽다고 신뢰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PPT 한번 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현송 후보,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약 93%가 보니까 해외 자산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상당 부분 외화 표시 자산입니다.

○유상범 위원 그렇지요? 외화 표시 자산이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유상범 위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잘 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한 번 뵈 적은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 당시 이분이 경제부총리로 임명될 당시에 미국 국채를 단돈 2억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야당을 하시던 민주당에서 외화정책 책임자로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2억 원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대한민국 경제 망해라에 배팅했다. 최상목이 투자한 미국 국채는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다’, 진성…… 여기 계셔서 이걸 생략하겠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은 ‘국채 2억 원 매입한 것은 환율의 인상, 한국 경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자신의 수익을 얻겠다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제가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최상목 부총리를 비판한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 신현송 후보를 비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위원님.

제가 외화 표시 자산은 상당 부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영국 국채 관련은 단순히 포트폴리오 구성 하나의 결정이었고요. 상당 부분 벌써 처분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처분해 나가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얼마나 처분했습니까, 지금까지?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지금까지 한 반 이상은 처분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상범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진영 논리로 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신현송 후보 입장에서는 이 비판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비판이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조금이라도 이해상충의 의혹이 없게끔 처신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나가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답변 준비는 잘하셨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진성준 위원 해외에서 활동한 분이잖아요.

○유상범 위원 그만하세요.

○진성준 위원 최상목 부총리는 국내 현직에 있으면서 미국 국채를 샀는데……

○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유상범 위원 그런 차이가 어디 있어요?

2억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여기 46억인데……

○진성준 위원 그게 현직에 있는 사람하고 같습니까?

○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유상범 위원 그만하세요. 이 정도 되면 넘어가 줘요. 내가 이름 안 불렀잖아요.

○진성준 위원 같은 얘기 아니요?

○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자중하시고요.

○진성준 위원 이름을 부르고 안 부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유상범 위원 어디서 반말이야?

○박수영 위원 질의하실 때 하시면 되지 왜 그러세요?

○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 자중하시고요.

○진성준 위원 진영 논리에 의한 비판이 아니었던 말이에요.

○위원장 임이자 청문회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찬물 끼얹지 마시고요.

후보자님, 오전에 천하람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그 부분은 서로 다 잘 애기가 됐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일정 부분은 제출되었습니다. 건강보험에 관한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천하람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 다 받으신 것 만족하시나요?

○천하람 위원 저희 한 여섯 종류 요청했는데 한 가지만 받았습니다.

질의하면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박성훈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박성훈 위원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아직 못 받았습니까?

그러면 후보자님, 박성훈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가능합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오늘 자료제출은 제출하신다는 거네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오늘 제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고등학교 때 받은 추천서하고 학과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긴 추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성실히 제출하심에 따라서 인사청문회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위원장 임이자 다음은 천하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후보자님, 장녀의 국적이 어디입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국적은 영국입니다.

○천하람 위원 장녀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99년도입니다.

○천하람 위원 장녀가 대한민국의 국적 상실 신고는 돼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속히 취급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우리 국적법상 국적 상실하게 되면 바로 직후에 의무적으로 상실 신고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이 청문 과정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천하람 위원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송구스럽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 말씀이 사실과 다른 게요 후보자님 배우자와 아들 국적 상실 신고 언제 하셨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201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아드님은 2012년에 했고 배우자는 2011년에 하셨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천하람 위원 그러면 아드님, 배우자 다 국적 상실 신고를 해 보신 적이 있는데 왜 유독 따님만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없었다, 청문회 하면서 알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 부분은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충분히 신경을 못 쓰고 못 챙긴 데에 대한 제 잘못입니다.

○천하람 위원 아니, 그런데 방금도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잖아요. 2011년, 12년에 겪으면서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알고 계셨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때……

예, 그렇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장녀 같은 경우에 국적 상실하신 지 26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신고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장기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를 속

인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것보다도 제 불찰로 행정 처리가 제대로 끝나지 않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러면 행정 처리를 시작은 하셨어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행정 처리는 바로 즉시 끝내겠습니다. 시작을 아직 못 했습니다.

○천하람 위원 아니, 그때 행정 처리를 시작하셨는데 뭐가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 돼서 안 됐다 그러면 방금 말씀이 맞지만 26년간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을 알고도 안 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장기간 대한민국 정부에 해야 되는 의무를 안 하신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러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다음에 심지어는 국적을 상실하고 24년여가 지나서 2023년 12월에 따님이 내국인 자격으로 강남구 동현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맞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같이……

○천하람 위원 PPT 한번 보여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후보자께서 본인이 논현2동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하신 것 맞으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맞습니다.

○천하람 위원 이때 2023년 12월에 실제로 따님이 후보자와 같이 동현아파트에 동거했습니다. 맞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그때는 같이 있었습니다.

○천하람 위원 얼마 기간 동안 같이 있었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때 한 2주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천하람 위원 2주 정도 같이 있었다고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천하람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원래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아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확실치 않습니다.

○천하람 위원 국적상실신고가 정상적으로 됐으면 외국인으로 거소신고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이 서류 보십시오. 내국인으로 내국인 주민등록을 이용해서 전입신고를 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후보자님?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천하람 위원 저희가 행정안전부 주민과에 문의를 했는데요, 외국 국적이고 주로 외국에 거주하는데도 국내에 거주한다고 해서 내국인으로 주민등록을 했다, 이 경우도 위장 전입의 한 사례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불 여지가 충분하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후보자님, 반박하실 내용 있으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이 부분은 제가 주민등록을 확인하니까 거주불명자라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거주불명자라는 딱지를 해소하고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같이 갔었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데 후보자님, 그때 2023년 당시에, 이미 2011년·12년에 아드님 그리고 배우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신 적 있었잖아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천하람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한다면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외국인으로 거소신고를 했었어야지요. 이걸 그냥 거소불명이라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내국인 지위로 그대로 신청하면 됩니까? 잘하신 일입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후회가 됩니다. 그거는 잘못했습니다.

○**천하람 위원** 위장전입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보자님, 위장전입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인사청문회에서 인사검증 과정에서 대표적인 결격 사유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알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후보자님도 위장전입하셨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위장전입,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그 절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딸을 등록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시인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리고 이게 단순한 위장전입이 아닌 게 저희가 알아보니깐 5년 이상 거주불명, 거소불명으로 돼 있으면 국적상실과 연결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국적을 지키시려고 2023년에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까지 제가 드는데,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전입신고서에 날짜가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입’, ‘출’, ‘입’, ‘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보니까 출입국 기록 같은데 후보자님 기록은 아니더라고요. 따님 출입국 기록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이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이게 저희가 아까 오전에 출입국 기록, 한국 여권 사용 기록 달라고 그렸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돼 있거든요. 이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천하람 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영국 여권을 썼으면 한국 전산망에 이 입출입 기록이 안 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국 여권 썼다는 얘기거든요. 국적상실을 하고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 여권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체리피커도 아니고 어떨 때는 영국인이고 어떨 때는, 한국에 출입국하기 편할 때는 한국 여권 써서 출입국했다, 이것 대한민국 정부를 기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26년 동안 후보자께서 이런 거를 오히려 바로잡지 않고 위장전입까지 했었다, 이 정도 도덕성을 가진 후보자를 우리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 한국은행총재로 할 만한 도덕성의 기준에 맞습니까, 후보자님?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위원님, 저 출입국 기록에 대해서는 제가 딸과 연락을 해가지고 기록을 구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예, 제 다음 보충질의 전까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볼게요.

따님이 99년 이후에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신 적 있어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90일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천하람 위원** 이것 보충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천하람 위원님.

보충질의 때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위원님.

안 계시네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후보자님, 오늘 아까 인사말 하실 때 가계부채 이야기를 하셔서 정책적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국 가계부채 상황 좀 아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금융안정 문제뿐만 아니라 성장의 발목을 잡는 수준이 아직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앞서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에도 답변하셨지만 GDP 대비 80% 넘느냐 안 넘느냐가 실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느냐 아니냐, 내수에 영향을 주느냐 이런 이슈가 있는 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오기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실제 우리나라 3대 리스크에서 가계부채 상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DSR이든?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금리 변동이 고정금리 중심이냐 아니면 변동금리 중심이냐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하듯이 우리도 인상하면 다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들이 금융기관에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계속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가격 변동하는 경우에 그 주택가격 변동할 때 대출해 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별문제가 없는데 실제 그 대출을 받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처럼 비소구 대출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리스크도 있고…… 전체적으로 금융기관에서의 가계부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부의 동기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제대로 관리를 못 했던 것 아니냐, 대한민국에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를 못 했던 것에 대한 어떤 식의 대안과 고민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알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대한민국의 가계부채의 이런 확장 내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위원님, 그 문제는 금융시스템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부동산에 너무 치중된 금융시스템이 바로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국내외 실제 상황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 건데요.

실제 미국에서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나 일반적인데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에서는 순수 고정금리 데이터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한국은행은 데이터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보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아마 데이터가……

○오기형 위원 제가 질문했습니다. 별도로 했는데 없답니다. 한국은행 답변입니다. 금융위는 있는데 없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러면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래서 이렇게 파악하는 게 적절하느냐, 이런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고 지금 하는 거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알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다음에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22년 기준으로 순수 고정금리 비중이 24.7%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독일은 약 90%, 프랑스가 약 100%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제대로 고정금리 관리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 거지요. 데이터도 제대로 있느냐 또는 어떤 기준을 갖고 관리하느냐 이런 문제고요.

(책을 들어 보이며)

후보자께서 이런 책을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제 책입니다.

○오기형 위원 그렇지요. 이 책에서 덴마크 사례를 들면서 덴마크가 ‘가계부채 관리에서 일정 정도 시스템 회복력이 장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오기형 위원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덴마크 같은 경우도 실제 가계부채 관리가 제대로 됐는가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총량이 실제 이 책 쓸 때부터 해서 쯤 131%까지 됐다가 이제 겨우 84% 이 정도 되고 있는데 총량 관리 실패한 것 아닌가, 덴마크 사례 자체가. 금리 변동에 대한 리스크도 소비자에게 다 전가해 버리고.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덴마크의 경우에는 그 모기지 자산 자체가 일단 채무자가 자기 모기지를 구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기형 위원 구조 자체가 독특한 게 있고.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래서 안정성을 부여한다는 그런 취지로 썼습니다.

○오기형 위원 우리나라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도 이것 우리나라하고 함께 했는데 이것 데이터 다 아실 겁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전과 이후로 해서 한국과 일본이 달라집니다. 한국이 76%, 75%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우리도 한 백칠팔 %까지 갔다가 이제 지금 89% 가까이 됐는데 미국은 그 당시에 96%, 97%였다가 딜레버리징을 세계 해서 이제 칠십몇 %까지, 지금 68%까지 되고 있는데……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오기형 위원 미국은 했는데 우리나라는 왜 못 했을까요? 딜레버리징을 못하고 오히려 가계부채가 계속 더 확대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점에 대한 고민은 좀…… 혹시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흔히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를 아주 심하게 겪은 나라들이 딜레버리징에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스페인. 한국은 그런 큰 위기를 그 당시에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완만한 수준으로 계속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오기형 위원 변동금리 비중도 되게 높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건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명박 정부 때 실제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오기형 위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LTV 완화 이것에 대해서 DTI 규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보면 LTV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다가 서서히 완화하고 DTI도 좀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DSR 제도도 있는데 이게 금융위원회에서나 금융 당국자들이 계속 DSR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만 해 놓고 실제 집행을 안 해요. 그러다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고승범 위원장이 금융위원회에 오시면서부터 그때 비로소 짧은 기간이지만 압축적으로 좀 하였고 그 기초를 다시 또 몇 년 동안 좀 약간 후퇴하나, 우왕좌왕했었던 것 같고 다시 이것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이 있는데 이런 DSR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통화정책 가지고는 가계부채를 제어를 못 합니다,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무차별하게 경제 전체에 다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가계부채나 또 어떤 특정 부문에 관해서는 거시건전성정책을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DSR이 거시건전성정책의 일환으로서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기형 위원** DSR 정책이 가계부채 총량과 관련된 유력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한국은행에서 거시건전성정책 수단 부여하면서 즉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DSR이 적용되는 가계대출 비중이 47~48%였다가 지금 오히려 최근 데이터, 한국은행 데이터입니다, 떨어졌어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아직도 DSR 정책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여러 정책을 다 같이 종합적으로 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오기형 위원** 지금 한국은행에서 DSR을 관리하지 않는데 저희가 지난 국감 때도 얘기했지만 금융위에서 이것 DSR 관리하는 권한을 한국은행에다 부여한다면 한국은행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DSR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감독권하고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는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을 미시적인 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기형 위원** 이창용 총재와 입장이 좀 다르네요? 이창용 총재, 그 전의 전임 총재는 어떤 입장이신지 모르시는..... 검토 안 해 보셨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어떤 거시적인 척도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물론 중앙은행으로서 역시 하나의 인풋으로 현재 계속 활용할 수 있지만.....

○**오기형 위원** 그러면 하나만,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서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됩니까? 이게 직접 권한이다, 권한이 아니다 내지는 적어도 F4든 금융당국이랑 한국은행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고민과 아이디어가 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직접적인 그런 정책 수단은 없습니다. 통화정책으로는 너

무 무던 정책이고 또 개별 기관의 감독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관리하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오기형 위원 그러면 금융위원회에서 DSR 정책을 제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신가요, 의견이?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러니까 전반적인 금융정책이, 여러 관련 기관들이 다 각자 맡은 바를 하겠지만 그런 전반적인 금융규제 틀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기형 위원 이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신현송 후보자님, 외국 생활 오래하셔서 우리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긴장을 좀 하셨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위원님들 질의시간 제한이 딱 걸려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들을 굉장히 빠르게 하시는데 혹시 언어적인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없습니다.

○이소영 위원 저는 몇 가지 정책질의 준비해 왔는데 그 전에 후보자 신상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억울해 보이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조금 더 분명히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려대 편입학, 1978년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8년 전.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제시하신 일자 표인데요. 후보자는 78년에 옥스퍼드대학 합격한 이후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입학을 유예하고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맞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사실 해외에는 징병제도가 없다 보니까 대학 입학하고 즉 스트레이트로 학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자도 옥스퍼드 입학하고 즉 스트레이트로 공부해서 6년 만에 학사, 석사, 박사 다 마친 케이스인데 해외 대학은 한 번 입학하면 중간에 흐름을 잘 끊지 않는 편이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이소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군복무가 33개월이었는데 입학하고 중간에 학업을 끊지 않기 위해서 본격적인 학업을 시작하기 전에 군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래서 당시 입대 가능 시점을 기다리면서 1년 정도 시간이 비는 상황 이었고 그 시간에 놀지 않고 공부를 하려고 일시적으로 고려대에 입학해서 수업을 듣고 공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맞습니다.

○이소영 위원 당시 후보자가 19세였는데 그 시간 동안 만화책 보고 놀 수도 있었겠지

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시간을 공부에 활용했던 걸로 보이고요. 실제로 고려대 졸업장이 필요해서 입학한 것도 아니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보니까 군대 제대하고 옥스퍼드에 입학하면서 자연스럽게 고대는 제적 처리가 됐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인가. 고려대의 학력이 필요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옥스퍼드대학에 합격한 대한민국 수재가 국방의 의무 이행하겠다고 학교 입학도 미루고 국내에 들어와서 놀지 않고 학업을 이어 가기 위해서 수업 들은 건데 이걸 50년이 지나서 학칙이 어떻고 절차가 어떻고 설명하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한 일인 것 같고요.

후보자가 이 기간에 놀지 않고 공부했다는 것 말고는 이 편입학으로 이익을 본 게 없어 보이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걸 문제 삼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후보자, 그렇지 않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저도 동의합니다.

○이소영 위원 둘째, 후보자의 아내와 자녀분들이 외국 국적이다, 저는 이걸 문제 삼는 것도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외국 중앙은행 수장들 중에서는 가족이 아니라 본인이 그 나라 국적을 안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지 않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런 사례가 있는 건 중앙은행 수장이라는 직무가 고도의 전문성과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는 직책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후보자님 처음 봤고 칭송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 전혀 없지만 신현송 후보자가 어쨌든 커리어와 학문적 성과 측면에서 세계적인 평가를 갖고 있는, 말하자면 국위선양을 해 오신 분인데 본인 국적도 아니고 가족들 국적까지 문제 삼는 건 별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관점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국적, 후보자의 외화자산 이런 걸 가지고 애국심이 어떻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본인의 애국심에 대해서 스스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 귀국할 때 군 복무를 위해서 귀국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계속 연기를 하면서 면제까지 갈 수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도리로 귀국을 해서 군 복무를 마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데 저는 이것이 한국 경제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한국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저는 그 좋은 프린스턴대의 교수직이라거나 안락한 BIS 고위직 지위를 버리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두 번 공직에 나선 그 마음 자체가 굉장히 나라를 생각하는 또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대해서 애정을 가진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따님 주민등록 문제 관련해서도 위장전입이다, 도덕성 문제 이런 주장이 방금 나오기

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과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인 미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을 하였고 사실 내국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나, 외국인으로 거소신고를 하나, 국내 법규에 아주 익숙하신 분이 아니면 착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후보자님이 따님 전입신고를 해서 얻은 이익이 있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전혀 없습니다.

○이소영 위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이 문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자녀를 유리한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허위로 주소를 옮겼거나 아니면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해서 실제 같이 살지도 않는 가족들을 영끌해서 막 부양가족으로 올리거나 이런 부당한 목적이 있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후보자는 지금 따님 전입신고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 얻은 게 하나도 없고 방금 한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내국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건강보험 청구를 한 것 아니냐, 이것도 전혀 내역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없습니다.

○이소영 위원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게 없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정황 없이 확대·과장해서 도덕성까지 운운하는 건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질의에 준비해 온 정책질의는 보충질의 때 말씀을 드릴 거고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의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그린스완에 대해서 보충질의 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리고 앞서서 본인 신상에 관련해서 나왔던 얘기 중에 설명을 좀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아니, 괜찮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다음은 국민의힘 운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 신현송 후보자님, 우선 축하드리고요. 본인은 한국 국적은 맞지요? 이중국적은 아니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아닙니다.

○윤영석 위원 이중국적 아닌 것은 확실하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윤영석 위원 그리고 가족들은 보니까 모두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의 정체성은 한국인 확실하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확실합니다.

○윤영석 위원 그런데 많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본인이 한국보다는 영국인이거나 미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을.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단니까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은……

○윤영석 위원 왜냐하면 주변이 워낙 그렇다 보니까, 가족들의 국적 관계가 그렇고 또 본인의 자산관리를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총재는 대한민국의 통화주권을 지키는 막중한 직책입니다. 국가적인 이익에 철저히 해야 되고 외국과의 어떤 선에서 확실한 선을 견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겁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런……

○윤영석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볼 때 방금도 국가에 헌신할 길을 찾기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기다려 왔다, 본인의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이번에 참 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직에 헌신할 준비를 해 오신 분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려면 정말 철저한 자기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첫째는 본인이 금융전문가로서 아마 금융 분야의 국가적인 헌신을 생각해 왔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자산관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저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준비된 분이 아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워낙 약점이 많은 분이다 보니까 말 잘 듣는, 자기 말을 잘 듣는 한국은행총재를 지금 임명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행정부와는 독립적인 기관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적격 후보인데, 여러 가지 관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부적격 후보이다.

제가 후보자가 지명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 쭉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하신 말씀들을 보고. 소신이 없어요, 소신이. 첫째, 전문성이 있다면 학자라면 소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환율에 대해서도 1530원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러다가 또 다 그게 바뀌어요. 소신이 없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위원님, 그 환율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말씀해 보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분명히 과도한 환율 상승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때문에……

○윤영석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윤영석 위원 그게 소신이라면 좋습니다. 그런데 또 금방 입장을 변경했던 말입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고 제가 발언한 적은 없고요. 당시에……

○윤영석 위원 언론에 다 그렇게 났는데 그것을 본인이 지금 자꾸 부정하면서 또 변명을 하는 그런 자세도 옳지 않아요. 옳지 않고, 그리고 한국은행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공간 열쇠를 쥔 사람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윤영석 위원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여러 가지 어떤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데 도덕성적인 측면에서도 과연 공직자로서 헌신할 기회를 준비하신 분으로 저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전혀.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전문성이 있고 아무리 그런 신념이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애국심입니다. 애국심이 있어야 돼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것은 제가 충분히 동의하고……

○윤영석 위원 지금 본인의 가족들을 한번 보세요. 물론 그게 개인적인 일이지 그렇지

만 사인이면 그런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총재라고 하는 공직자, 막중한 책임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문제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충분히……

○윤영석 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그것을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말라는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아닙니다. 그것은 처리를 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본인의 아들도 병역 회피를 위해서 만 18세 이전에 국적이탈 한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윤영석 위원 뭘 아니예요, 다 있는데.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아이들은 해외에서 낳았고 계속 해외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선택에 대해서는……

○윤영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볼 때 가족들의…… 제가 그런 것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과연 애국심이 있는 사람인가, 과연. 더구나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의 엄청난 국제금융에 대한 그런 충격에 굉장히 약한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과연 이분이 철저한 국익을 견지할 수 있는 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 그것을 해소해야 된다. 그중에 하나가 외화표시자산 관리예요, 그 부분이. 지금 금융자산 대부분이 다 외화자산 아닙니까? 일부분 절반 처분했다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처분할 거예요, 전액 전체를 언제까지 처분할 거냐고?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것은 단시간에 다 처분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본인이 한국은행총재에 만약에 취임을 했다고 칩시다. 그 자산을, 수십억 외화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결정을 해도 국민들은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블라인드 트러스트라든지 어떤 제삼의 기관에 당장 맡기고 본인은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사실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것도 다 고려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고려가 아니고 딱 확답을 하세요, 빨리. 취임을 한다면……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추호의 의혹도 없이, 의혹이 전혀 없이……

○윤영석 위원 왜냐하면 이게 개인적인 차원이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요. 하지만 본인이 금리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환율에 다 영향을 미치고 본인이 그런 것을 통해서 만약에 이익을 봤다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과연 국가에 헌신하고 제가 한국은행총재로서의 막중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무를 사심 없이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약속을 하란 말입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다 처분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취임 전에 100% 처분하고 처분이 안 되는 부분은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맡겨서 본인이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실 겁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일정 타임라인은 제가 지금 이렇게 약속드릴 수 없지만 전혀 의혹이 없게 다 처리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지금 본인과 본인 직계가족 이외에 부모님이라든지 또는 처가 쪽에는 다른 외화자산이 없습니까? 물론 공개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그 또한 한국은행총재로 취임을 하기 때문에 국민 앞에는 얘기를 해야 돼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 말 자체가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는 거예요. 본인이 모를 리가 없지요, 당연히. 그 말 자체가 지금 불신을 키우는 거라니까.

그래서 본인의 어떤 결정이 본인과 직계가족, 방계가족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국민적인 의혹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내놔야 돼요, 본인이.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위원님, 중앙은행으로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금리고요.

○**윤영석 위원** 그런 얘기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 지금 하자는 게 아니에요. 금리가 결국 환율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시지요.

후보자님, 윤영석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외화자산을 100% 처분하겠느냐 해서 100% 처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다만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기간 내에 처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단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아니, 제삼의 기관에 위탁하고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 그것도 약속……

○**위원장 임이자** 또 하나, 지금 이소영 위원님께서 고려대학교 편입학에 대해서 좀 알 아듣기 쉽게 잘 설명을 했는데 박성훈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맥락을 보면 좀 다른 맥락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더 시간이 가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혹, 이렇게 충분히 의혹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은 제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의혹이 없게끔 잘 처신하겠습니다. 잘 처신을 하고.

그리고 애국심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로지 한국과 한국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아니, 고려대 편입학 문제 관련해서 아까 이소영 위원님께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알 아듣기 쉽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런 맥락이신 건지 아니면 박성훈 위원님께서 오전 질의에서…… 맥락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소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하다면 정확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더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실 게 있으면 해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오기형 위원 아까 20초 정도 쓰는데 할 얘기 없다고 해서 끝났는데……

○위원장 임이자 할 얘기 없다고, 더 이상 할 얘기 없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이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대로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 후보자님, 먼저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중동 전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3월 16일에 국제결제은행 브리핑에서 전쟁으로 인한 공급 충격이 일시적이라면 통화정책으로 대응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교과서적이라고 하셨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랬습니다.

○차규근 위원 이번 서면답변에서 똑같은 답변 하셨더라고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차규근 위원 또 이창용 총재께서도 지난 10일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하셨더군요.

그런데 현재 상황이 과연 교과서적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일시적 충격인지는 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보자 본인께서도 서면답변에서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통화정책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단서를 다셨는데 이제 중요한 게 종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고유가 상황이 곧바로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대외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조기 종전이 되더라도 전쟁 전 대비 43% 올라간 그런 높은 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시나리오에서 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는 회귀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이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차규근 위원 그래서 어떻게습니까? 현재 상황을 갖다가 일시적 충격으로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구조적·장기적 충격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계시는 것 맞지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이런 질문 드리는 것은 후보자님께 물가 전망을 확인하고 싶어서라기보다 저는 다른 우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유가 충격이 구조적으로 장기화되면 결국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데 통화긴축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긴축이 모든 계층에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KDI가 2023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기준금리가 1%p 인상이 되면 부채를 보유한 저신용 청년층에게 그 피해가 집중됩니다. 60대는 3만 6000원 정도의 소비 감소가 발생하지만 부채를 보유한 상위 50% 청년 중에 저신용층은 53만 9000원이 감소합니다. 저연령에 소득이 낮고 부채가 많을수록 긴축의 타격이 비대칭적으로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 동의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동의합니다.

○차규근 위원 그렇지 않아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물가 대응을 위한 긴축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통화긴축이 그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는 것인데 후보자께서는 이런 딜레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감사합니다.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경제 전반에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효과를 내기 때문에 부문 간의 격차라든가 또 어떤 계층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은 재정정책이 마땅히 말아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규근 위원 그런 재정정책이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구체적인 어떤 정책보다도 원칙적으로는 재정정책이 이런 경우에 한시적이지만 표적화되고 또 맞춤형으로 이른바 3T원칙을 따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봅니다. 3T라는 것은 한시적이고 표적화되고 맞춤형의 영문의 앞 자리를 따가지고 한 건데 그러니까……

○차규근 위원 그러면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추경의 선별적 지원방식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가 될 수……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것도 대체로 거기에 부합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차규근 위원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이 추경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재정의 역할을 두고 일각에서는 돈 풀기라고 폄하한 적이 있습니다만 후보자는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르신 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이번 추경의 규모나 설계를 봤을 때 26조면 명목GDP 2600조 원의 한 1% 정도고요. 그리고 물가 지원이 가장 중요한데 한시적으로 물가 지원을 실행한다 그러면 장기간 어떤……

○차규근 위원 시의적절한 조치였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한편 불평등이 심화되면 통화정책의 효과도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차규근 위원 후보자가 재직하셨던 BIS 2021년도 연차보고서에도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더라고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다뤘습니다.

○차규근 위원 소득불평등이 더 클수록 예상치 못한 통화 완화에 대해 소비가 덜 반응

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한하고 더 나아가 중앙은행이 불평등을 확대하는 것으로 대중이 인식할 경우 중앙은행의 정책 선택을 제약한다는 내용 잘 알고 계시고 분석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다만 통화정책은 무차별하게 경제 전체에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이나 계층 간의 문제는 재정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규근 위원**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차규근 위원** 이창용 총재도 금리 결정이 경기 부양보다 자산가격 상승 쪽으로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한다는 언급을 한 바도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한국은행이 정부에 적극적으로 어떤 정책 조합을 요구했는지는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보고서를 통해서 그러한 필요성을 강조하기는 했는데 오랜 기간 한국은행은 이 문제에 대해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세대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세대출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보편적인 주거대책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 결과 전세대출이 주거안정보다는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고 금융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거든요.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그러한 방식의 전세대출이 위험하다라는 목소리를 전혀 낸 적이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이것 약간 좀 아쉽네요.

최근 이창용 총재도 가계부채가 20년 넘게 한 번도 안 줄어든 것은 거시건전성 정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이 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물론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가 한은에 모두 있다고 볼 수 없겠지만 이런 전세대출이 금융 불균형을 초래하고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재로 임명이 되면 더 살피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후보자님, 이 부분은…… 물론 임명되시면 앞으로 더 살피셔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도 바로 좀 해 주시기를 저는 기대했는데 이따 보충질의 할 테니까 그때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규 위원** 신현송 후보자님, 먼저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명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말씀 드리면서 아까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랜 외국 기관 근무로 인해서, 한국은행에서 중요한 직책으로 일할 때 하루빨리 국내 정책 관계자들과의 소통과 원활한 협력 그리고 오해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요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아시는 것처럼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학계에서 직접 보셨고 그 당시의 많은 연구와 영향을 평가받고 계시는데 최근 우리나라 국내 금융시장이 성장하고 국민들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은행총재 발언 하나에 관심을 갖는 사람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알고 있습니다.

○박민규 위원 그런데 한국은행 산하의 경제연구원 분석에 보니까—2008년부터 2023년까지 한 16년 동안 데이터 분석을 한 거예요—뭐냐 하면 기준금리 결정 발표뿐만 아니라 그 직후에 진행되는 기자회견담회도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특히 채권시장의 변동성 같은 경우 기자회견담회 직후에 평시 대비 7~15배 이상 확대된 경우처럼 금통위의 결정 및 한국은행총재의 발언 한마디에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후보자님, 3월 31일 날 첫 출근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지금같은 고환율을 어떻게 생각하나 했을 때 아마 환율 레벨 자체는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해서 이슈가 됐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알고 있습니다.

○박민규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서면답변에 보니까 이런 의미였다고 하더라고요. 급격한 환율 상승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과 환율만 가지고 과거 위기상황을 연결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점을 말하려고 했었는데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곡해하는 경우들이 발생했던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빨리 적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서면답변에서 솔직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후보자님 본인의 단점이 무엇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해외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국내 정책집행 경험이 적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박민규 위원 그래서 학자로서의 뛰어난 논리와 이론을 금융시장에 또 국민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일단 다짐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박민규 위원 다짐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열심히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을 다 채우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책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전임 총재님께서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은 찬성하셨지만 매우 보수적으로 보자고 지속된 입장을 밝히셨고 후보자도 언론 인터뷰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오늘 오전 질의에서 답변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후보자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스테이블코인에 부정적 입장이었으나 이제는 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보

완적·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고 각자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조금 오픈되신 겁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박민규 위원 물론 김영환 위원께서 디페깅(depegging)이라든지 금융시장 불안정성 등 스테이블코인의 리스크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또 안도걸 위원께서도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기술적·제도적 장치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아쉬운 것은 그동안 전문가들 풀을 갖고 회의를 하는데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전문가회의는 저희가 확인한 결과 한 번밖에 없더라고요. 아마 일을 하게 되시면 국제금융시장에서 금융권 수장으로서, 그 과정에서는 대한민국도 못지않게 발전했지만 외국은 제가 알기로는 훨씬 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것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박민규 위원 스테이블코인이든 디지털자산이든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론이 있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셔서 그것이 금융통화정책 및 한국은행 의견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오픈되고 조금 더 반복되고 자주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은행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이 혁신이 필요하고 그중의 하나가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의 여러 가지 연결되는 지급 수단의 혁신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핀테크가 떠올랐던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남아 있는 기업은 한두 개밖에 안 남아 있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역량과 혁신, 에너지에 비해서 금융기관은 안정성과 보수성 때문에 멈춰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국은행이 당연히 보수적 입장을 제시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다양한 의견 경청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그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이명박 정부 국제금융보좌관 하신 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국제경제보좌관이었습니다.

○박민규 위원 보니까 2010년도 10월인가 11월에 G20, 큰 행사가 있었고 그 당시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가 2008~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어떻게 G20 국가들이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기 때문에 아마도 국제금융전문가로서 신 후보자가 그 당시 청와대에서도, 이명박 정부에서 일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처음으로 국내 정책결정 과정을 보시긴 했을 텐데 그때 소회를 가지고……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변화의 파고를 넘길 수 있는 것 중의 하나인 신산업, 제조업 그다음에 디지털산업이 잘되려면 금융시장이 훨씬 더 글로벌, 연결되어야지만 대한민국의 작은 시장을 극복하고 글로벌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스타트업, 창업기업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행총재님의 역할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공직을 맡게 될 분 중에서 어쩌면 가장 글로벌 금융 경험과 네트워크가 있는 분으로서 대한민국의 한류 못지않게 금융산업이 향후 5년, 10년간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중요한 전장, 분야라고 생각

하는데……

총재후보자님, 대한민국 금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특히 글로벌 금융으로—어떤 부분에 좀 더 집중할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은행 총재로서 어떻게 연구를 하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아침에도 말씀드린 대로 원화의 국제적 위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원화의 역외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시스템 자체를 금융혁신과 어떻게 접목을 시키는가 그리고 거시건전성 테두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런 작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박민규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감사합니다.

○박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천하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제출 요청 중에서 출입국 기록 관련해서 장녀의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그 부분을, 우리가 개인정보기 때문에 반드시 장녀분의 동의가 있어야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뒤에 인사팀 같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위원장 임이자 인사청문회팀이 같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지시하셔서 그 출입국 기록을 바로 지금 장녀의 동의를 받아서 볼 수 있게끔 해 주면 괜한 오해가 불식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바로 지시해 주시는 거지요? 지시하시는 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지금 거기는 한밤중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지금 뒤의 인사청문회팀 들으셨으니까 그것 바로 조치해 주시면 괜한 오해는 불식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위원장 임이자 다음은 국민의힘 이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 위원 후보님, 우선 지명받은 것 축하드리고요.

지명받으시고 아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가족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가족들……

○이인선 위원 반대하셨겠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좀 설득이 필요했습니다.

○이인선 위원 가족들은 반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문회라는 게 정책보다는 그동안 살아온 신상에 대한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오늘 질문을 주 받으시는 걸 가족들이 지켜보면서 그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올 것도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전에 보니까 박성훈 위원이 질의를 하시던데 모친이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후보께서는 집을 갖다가 증여, 집을 사고 팔면서 결국은 매매하는 가운데 11억 중에서 6억 8000만 원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는데요. 실은 역대 연봉을 받는 아들이 생활비를 250만 원 줘도 그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구태여 어머니의 생활비 때문에 그랬다는 게 조금 궁해 보이고요. 아무튼 그때 당시 모친의 재산내역을 공개를

해 주면 좋은데 재산 고지 거부가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 고지 거부된 내역을 보면 아마 아드님께서 도와주고 싶어서 그랬다는 게 증명이 될 텐데 모친께서 재산 고지 거부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독립된 생계가 가능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인선 위원** 독립된 생계가 가능한데 또 이렇게 6억 8000만 원 통장에 넣어 주고 또 3억 3000을 다시 전세를 끼고 이런 것들이 그 해명이 명쾌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제일 간단한 건, 하여튼 모친의 재산내역을 제출하면 가장 간단하다고 생각하고 솔직하게 그런 사유를 밝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에 아마 많은 질문을 하셨을 것 같은데 본인은 한국 국적인데 가족의 국적이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배우자는 미국 국적이고……

○**이인선 위원** 자녀들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딸은 영국 국적이고 아들은 영국·미국 복수국적자입니다.

○**이인선 위원** 복수국적을 갖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이인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외국 생활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되어 있는 거기는 하지만 국민들은 공직자에 대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이인선 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를 보면 사진에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지요, 왼쪽에? 이재용 회장의 아들입니다. 군에 가는 그림이고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이인선 위원**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누구지요? 엘리자베스 2세가 공주 때 2차 대전 참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 국민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보내는데 지금 이 청문회 준비하는 내용을 보면 저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쨌든 오늘 계속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주민등록을, 국적을 포기하면 전체적인 혜택도 포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컷오프가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의혹이 가는 게 건강보험 내역을 보자 그다음에 출입국 내역을 보자, 투표 현황을 보자 이렇게 권리를 다한게 아닌가 하는 지금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건강보험도 실제로는 2030년이면 고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 건강보험료를 외국인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내라 했더니만 후보자께서는 10년 치를 냈더라고요. 그렇지요, 건강보험 내역?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건강보험 내역은 10년 이상, 아마 최초부터 내역일 것 같

습니다.

○이인선 위원 건강보험 내역은요 10년 정도 냈는데 뒤에 인사팀 확인해 보시고요.

국적에 대해서 1999년부터 국적 포기를 했는데 그 중간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는지만 받았는지에 대한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받은 서류는 10년간 서류로 지금 알고 있는데 혹시나 그거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전체적인 걸 보여 주시면 좋겠고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이인선 위원 조금 전에 여권 발급 내역이나 출입국 기록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됐습니다. 됐고, 투표했던 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는데 그건 제출할 수가 없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투표권도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것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항상 청문회를 하면 왜 이렇게, 자료제출을 처음에 거부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나중에 결국은 제출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외국생활 하셨으니까 아예 보여 줄 거 다 보여 주고 변명할 거 변명하고 죄송할 거 죄송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저는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후보자 가족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후보자의 가족들은 자랑스러운 자부심이라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그걸 버리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역의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게 되고 또 법적인 신고도 하지 않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국민들이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나 한은총재라는 자리는 사실은 여러 가지 중립적으로 나라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래서 꼭 불리할 때는 그냥 탈출하고 유리할 때는 그런 프리패스를 쓰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국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런 의구심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 사실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인선 위원 아무튼 후보자의 자리라는 건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 금융 안정이라는 두 가지의 균형을 잡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율을 잡게 되면 본인의 재산이 낮아지고 이게 또 좋아지면 본인의 재산이 좋아지게 되고 이런 아주 이해충돌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면밀히 보시고, 조금 전에 100% 다 처분한 다 했는데 그게 결국은 달러로 처분해 가지고 있는지 원화로 가지고 있는지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 신현송 후보자님, 어려운 시기에 한은총재라고 하는 중책을 맡도록 지명되신 데 대해서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감사합니다.

○박수영 위원 훌륭한 경제학자로 알고 있고 이론 무장이 잘돼 있는 분이신데 BIS에서

도 12년간이나 근무하셨기 때문에 실무 경험까지 아울러 갖춘 분이라 기대가 크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감사합니다.

○박수영 위원 한편으로는 지난 50여 년간 한국에서 별로 생활을 안 하셨기 때문에 한국 상황을 과연 잘 알 것인가 하는 국민적인 의구심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74년 4월에—기록을 보니까 74년 4월입니다—영국의 이매뉴얼 하이스쿨 입학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난달, 2026년 3월에 BIS를 퇴직하실 때까지 52년 중에 5년 조금 못 미치는 정도만 한국에서 군복무 포함해서 계셨고요. 대부분의 기간을 외국에서 계셨던 것 맞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맞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래서 국민적 의구심을 제가 한번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법 제1조는 역시 물가안정이 최고의 목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면 우리 물가를 잘 아셔야 할 텐데, 우리나라 버스요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버스요금은 1500원……

○박수영 위원 지하철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지하철은 1500……

○박수영 위원 짜장면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지하철은 1550원이고요. 짜장면은 요새 1만 원까지 간다는, 그러니까 1만 원 이하로 점심을 먹기 힘들다는 것……

○박수영 위원 답변 준비를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네요.

버스요금은 맞고 지하철요금은 1650원이니까 조금 틀렸고요. 그래도 그 정도면 잘 아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트에서 장 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물가가 어땠던가요, 미국 물가와 비교하든지 아니면 과거에 한국에 계실 때 물가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높다고 느꼈습니다.

○박수영 위원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생활물가 이게 진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제가 국고채 3년물 금리하고 기준금리 간의 괴리에 관해서 서면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지금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의, 그러니까 미래의 기준금리를 일부는 반영하지만 또 괴리도 조금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박수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서면답변에서는 ‘중동 상황, 전쟁 때문에, 글로벌 위험성 때문에 국고채 금리가 크게 올라가고 있다. 앞으로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11개월째 기준금리 2.50%로 그냥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박수영 위원 가고 있는데 당시에 국고채 3년물은 2.34%였거든요. 저 기준금리보다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62까지 올라가서 112bp가 차이 날 정도로 격차가 많아졌고요. 그런데 전쟁은 3월 1일 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5년 10월 23일 이후에 기준금리를 추월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중동 상황 때문에 올라간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3월 1일 이후는 반영하지만 그 이전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이전에는 왜 이렇게 우리 국고채 3년물의 금리가 급하게 올라갔다고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작년 상당 기간 동안 금리가 계속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연준을 비롯해서 주요 중앙은행들이 방향을 틀면서 점진적으로 다시 재평가되는 그런 추세였고요. 한국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박수영 위원 국제적인 추세 때문에 그렇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우리 정부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써서 유동성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건 상관이 없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물론 원론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원론적으로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재정정책이 너무 확장적일 경우에는 재정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채권시장 가격에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오전 질의 하실 때도 제가 느낀 건데 후보자님께서 상당히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지금부터 금리·물가·환율 한국은행 3대 미션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 좀 두루뭉술하게 하시지 말고.

제가 나갔더니 기자들 답변이, 기자들의 얘기가 그거예요. 두루뭉술해서 도대체 A라고 이야기하는지 B로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박수영 위원 이렇게 국고채 3년물이 지속적으로 올라간 부분은 우리 기준금리를 한은에서 올리지 않으니 시장에서 미리 선반영해서 정상적인 금리는 이 정도 돼야 된다고, 두세 번 인상해야 될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서 반영된 게 나타났다 이런 주장이 일부 언론에서 있었는데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것은 100% 정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금리라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여러 가지 기대라든가 또 참여자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 가지 요인이라고 잡을 수가 없고요. 만약에 이런 도표를 미국과 영국과 유럽중앙은행 다 같이 보면 아마 같이 움직이는 추세를 보실 겁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면 우리 기준금리와 국고채 3년물 시중금리가 이렇게 차이가 지속

적으로 계속 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예상되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앞으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시장의 통화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거기에 반영이 됐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장의 어떤 위험 선호도 자체가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도 감안할 수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답변하시는 걸 보니 역시 학문적 연찬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추상화의 정도가 높다, 그래서 기자분들이 알아듣기 어렵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차이가 나면 소비자물가(CPI)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CPI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유동성 증가, 금리 괴리,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 이 물가에 대해서는 한은 총재가 되시면 어떤 대책을 내놓을 작정이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물가안정이야말로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 도구는 통화정책이고 통화정책을 통해서 물가 관리, 그러니까 물가 관리보다도 인플레이션 관리에 전념을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답변이 시원하지는 않지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 신현송 후보자님 축하드리고요.

저도 주변에 정부 정책에 관여하셨던 분들이나 또 전문가들을 만나서 평을 들어 보면 거의 100% 리스펙트를 보여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총재로서 참 잘 선택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러면서도 염려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오랫동안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정책 결정,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 그리고 또 시장과의 관계에서 소통 문제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적들은 아까 존경하는 국민의힘 권영세 위원님도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꼭 유념해서서 적극적인……

물론 한국은행은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정책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과 또 정부와 시장과의 소통을 활발하게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정태호 위원** 많은 정책적인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기후 리스크와 관련된 중앙은행의 역할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후 리스크가 물가상승률과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실증적인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보고는 많이 받아 보셨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봤습니다. 그리고 BIS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정태호 위원** 한국은행 자체적으로도 2021년에 연구한 걸 보니까 물가상승률 연평균 0.02에서 0.09%의 상승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금융시스템에도, 국내 은행 BIS 비율 연평균 0.09에서 0.19%p 하락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이 기후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게 중요한 화두로 계속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기후 리스크를 금융시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전제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중앙은행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금융안정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후변화 자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한국은행도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응 전략들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다 파악을 해 보셨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지금 파악 중입니다.

○**정태호 위원** 빨리 좀 파악을 해 보시고요. 전담조직도 만들어 놓은 게 있고 ESG 관련한 외화자산을 운용해 오는 것도 있고 또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도 실시하고 또 다양한 조사·연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해요. 중앙은행의 기후대응에 대한 평가를 하는 국제민간기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포지티브 머니라는 데 혹시 들어 보셨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얼핏 잘 이름이 익숙지 않습니다.

○**정태호 위원** 포지티브 머니라는 데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중앙은행에 녹색채권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다음에 한국은행과 정부 간에 적극적인 협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알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이 지적이, 한국은행의 그런 적극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 평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라는 게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정태호 위원** 여기서 보면 지난 5년간 녹색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이 금융중개지원대출 중에서 거의 0% 수준입니다. 그리고 외화자산 ESG 투자도 최근 한 2~3년 동안에 확대되는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국은행의 이런 기후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국제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도 최근 들어와서 이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거지요.

어차피 새로 후보자가 되셨고 총재로 취임하시면…… 이것은 중앙은행의 새로운 역할로서 다른 선진국들은 되게 강화되고 있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중앙은행,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도 상당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중앙은행의 역할들을 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기존의 우리 한국은행의 기후 리스크 대응 역할도 한번 제대로 평가해서 가지고 그 방향을 제대로 정립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안을 드리니까 의견을 한번 말씀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알겠습니다. 살피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리고 아까 금융안정과 관련된 거시건전성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정태호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정부의 정책, 이게 2011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은행법이 바뀌어서 그때 뭐랄까, 그냥 한국은행의 명분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금융안정이라는 역할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제로 금융안정에 대한 정책 수단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있더라도 역할을 하는 게 부족하고요.

그러면 실제로 금융안정과 관련된 한국은행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가 뭐냐 그것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이 뭔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에 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목표로 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상황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더 챙길 게 과연 책무와 수단이 보다, 서로 목표를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정부기관과도 먼저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저도 잠깐 짧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위원장 임이자 후보자님의 해외 자산 보유가 공직자 이해상충 여지가 다분하다라고 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후보자님께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처분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위원장 임이자 그리고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공직자윤리법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위원장 임이자 그래서 매년 심사하고 또 공개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이에 더해서 한국은행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그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위원장 임이자 보신 적 있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구체적으로 살피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래서 임직원의 금융투자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직자윤리법과 또 한국은행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이 해외주식 투자가 보편화되어 있는 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은 해외재산도 등록 재산으로 검사를 받게 강제하고는 있지만 국내주식과 비교해서는 규제가 아주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한국은행의 운영규정에도 보면 우리 해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규제가 아예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주식 역시 국내주식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련 규정이 보완되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누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현송 후보자께서 총재에 취임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강화하겠다는 약속 하실 수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제가 취임하면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살피는 정도가 아니고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질의시간 5분입니다.

○**정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아침에 처음에 했고요. 제가 쪽 들어 본 걸로는 후보자님이 진정성 있게 사과할 건 사과하시고 해명할 건 해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클리어하게 소신 있게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게 주변에 지금 이렇게 중계 보고 계신 기자들, 국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기대에 맞게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상과 관련된 것 등등 외국 생활 이야기를 드리고 또 재산 규모가 상위 0.1% 안에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과연 우리 취약계층, 청년들의 어려운, 또 경제의 그런 절박한 어려운 심정,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나, 하시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시면 대학생 때 또 대학원 때 학자금대출을 받고 너무 어려워서 그걸 취직하고 나서 갚지 못해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고 미상환 비율이 2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것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이 구체적인 수치는 못 봤습니다만 대출은 알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어려운 우리 대한민국의 그분들이 계십니다, 청년들도 물론이고. 그거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이창용 총재 청문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그분도 미국에 많이 계셨기 때문에—그런데 이창용 총재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물론 물가가 우리 중동 이란 전쟁도 있고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태그플레이션, 후보자님이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 아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더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IMF에서도 유가 100불이 넘으면 세계 성장률이 약 3.1%에서 2%로 추락하고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은 아닌데 경기가 침체기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인플레이션은 되는데 오히려 경기는 같이 안 좋아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거나 2%가 안 되면 사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거고 그때, 후보자님이 너무

물가만 강조하시니까, 물론 물가는 잡아야 되지요. 그런데 금리를 더 인상하거나 그러면 죽어나는 게 중소기업, 자영업,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을 염두에 많이 두셔야 되는 데 계속 물가안정에 너무 큰 중점을 두시고 성장은 얘기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성장을 좀 같이, 물론 물가든 성장이든 한 군데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정부랑 다 같이 하는 건데……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같이 봐야 됩니다.

○정일영 위원 같이 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성장을 좀 같이 추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같이 보는 것이……

○정일영 위원 그리고 미세한, 정교한 그런 금리 방침, 정책 추진하셔야지요.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성장도 인플레이션을 가늠하는 데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정일영 위원 그렇지요. 중소기업, 특히 어려운 분들, 청년들 학자금 이런 것도 좀 계속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환율 문제인데 이게 계속 다소 실망스러운, 좀 클리어하지 않은 답변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한 것 아닙니까? 환율이 지금 높지요? 높은 것 아니에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높은 수준입니다.

○정일영 위원 높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환율이 좀 내려가야 인플레이션도 물가도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중소기업도 사는 것 아닙니까?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맞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래서 고환율에 문제없다는 식으로 후보자님의 말씀과 답변, 보도에 그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걸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지요. 환율이 문제가 있어요. 있는 건 인정을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 같은 데서도 환헤지를 10%에서 15%로 올려서 최대 30조 환 방어막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재정위에서도 외국에서 주식 팔았을 때 가져오면 세금을 좀 감면해 주는 법도 통과시켰고 그런 여러 가지 정부와 협조를 해서 가지고 환율을 내려뜨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클리어하게 얘기해야 돼요. 현재 환율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환율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도 더욱더 안정화시키는 데 후보자님이 총재가 되시면 최선을 다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1300원, 1200원이 걱정하다는 말씀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환율에 대해서는 확실한 소신과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일영 위원 어떻게, 최선을 다하시겠어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환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지금 환율이 높다, 낮아지도록……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좀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도 있고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린 면이 있지만 일단 제도 자체 그리고 또 경제와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다 챙기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외환보유고에 대해서도 신경쓰시고요, 충분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겠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 저는 오늘 인사청문회가 아주 수준 높은 정책 청문회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예상했었는데 신상에 관한 문제가 나왔고 특히 또 제가 과거에 했던 발언까지 인용되어서 이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보자의 외화자산 보유 문제를 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서 최상목 전 부총리의 사례를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바람직한 비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을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100% 다 처분하겠다, 그리고 원화자산으로 보유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피력하셨어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는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재임하던 당시에 미국 국채를 두 번이나 사서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경제부총리로서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되자 그걸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경제부총리로 재임하는 와중에 또다시 미국 국채를 사서 들고 있었어요.

미국 국채라고 하는 것이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수익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 지위에 있으면서 미국 국채를 보유했던 말이에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느냐라고 지적되어서 본인이 매각했는데 다시 경제부총리가 되어 가지고 미국 국채를 또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평생을 해외에서 활동하고 해외에서 다 외화로 봉급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영국에서는 파운드화로 받으셨어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진성준 위원 BIS에서는 뭘로 받으셨어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스위스프랑으로 받았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진성준 위원 다 외화자산으로 보유하고 또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될 줄 모르고 해외에서 다 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외화자산들을 보유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한국은행 총재가 되어서 이거를 매각하고 있는데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애국주의적 발로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로서 자산 갖지 말아라, 외화자산 갖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해충돌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러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진성준 위원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부동산도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도 그런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부동산 기안 서류 복사하는 분도 다주택자는 시키지 말아라라고 하는 지시까지 하실 정도라고요. 이거는 그만큼 공직자들이 엄격한 윤리·도덕적 기준 속에서 공무를 수행해라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 때문입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그런 국민적 요구를 잘 수용하고 지금 잘 처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소신을 잃지 말고 이어 가기를 당부합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감사합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우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 정책을 하면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진성준 위원 이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우리가 주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물가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금리차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과문해서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융통화위원회는 그런 성장률이나 물가뿐만 아니라 고용지표까지, 고용상황까지 살펴가면서 기준금리를 정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정할 때에는 우리도 기준금리를 정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로 성장률이나 물가인상률 또 미국과의 금리 차이에 더해서 우리의 고용지표, 고용상황도 중대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위원님, 고용안정은 한국은행의 명시적인 책무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통화정책을 운영을 할 때는 반드시 고용도 고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의 어떤 방향이나 척도를 이렇게 제대로 파악을 못 하지요.

○진성준 위원 꼭 그 문제도 중대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알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권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위원 앞에 이어서 이창용 총재 4월 10일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대외 여건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성장세가 약화될 거고 인플레도 확대될 거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정도는 중동전쟁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글로벌 에너지 수급 및 가격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부분 동의하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달러화도 전체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강세가 유지가 되겠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앞으로 중동 사태가 진정이 되면 다시 달러 강세는 조금 약간 수그러들 것 같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것도 전쟁의 영향이 있겠지요. 혹시 전쟁 여파로서, 즉 지금 영국하고 EU 국가들이 참전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과는 조금 마찰이 계속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과 유럽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새로운 통상 갈등이 새롭게, 새로운 바운드가 생길 우려 같은 건 없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아직 그거는, 국제 지정학적인 이런 큰 변화는 지금 계속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아니, 이걸 지정학적인 게 아니라 지정이라면 모를까 지금 예를 들어서 관세 문제라든지 트럼프가 새롭게 제기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 이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그 문제는.

○권영세 위원 오케이.

대내 여건과 관련해서 현 이창용 총재는 마찬가지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이 되고 공급의 차질 등으로 인해서 성장의 하방 압력이 증대될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장을 2%를 맞추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대체로 동의하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2% 약간 못 미칠 것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런데 물가와 관련해서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3월 물가가 이미 조금 올라갔고, 0.2%p가 올라갔고 또 기대인플레이율도 좀 올라간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을 암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체로 동의하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평소에 우리 신 후보자께서는 선제적인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될 때라고 보지 않나요, 금리인상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제가 선제적인 조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2022년 그때 러우전쟁이 터져서 주요국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로 올라갈 그 무렵이었습니다.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을, 항상 지금의 지표보다도 앞으로의 지표를 예상하고 정책을 편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항상 선제적이어야 됩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선제 조치를 할 때가 아직 아니라고 보는 것 같은데 아까 유크레인 전쟁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사실 이란 전쟁 같은 경우는 아시아가 더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쟁이 시작한 지 이미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끝날 모습은 잘 안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금리인상을 하려면 여기에 더해서 뭐가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것은 과연 2차 효과에 대한 징후가 나타나는가 또 원물가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가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그리고 경제 전망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그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세 위원** 앞으로 포워드 가이드런스(Forward Guidance)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 서면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때 지금 현재 가장 큰 리스크는 물가의 상방 리스크 혹은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아니라 이 2개가 동시에 존재해서 서로 상충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어느 쪽을 희생을 해야 됩니까? 아까 다른 분들도 그러니까 경기에 더 중점을 뒀야 된다, 물가에 더 중점을 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상충이 생기면 상충의 정도 또 목표치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가 그것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권영세 위원** 여태까지 얘기하신 것 보면 물가에 조금 더 방점을 두는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런 면에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런데 최근에 제롬 파월이 얘기한 것을 보면 시장 환경이 우리하고 미국하고 다를 수가 있어서 조금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일시적인 오버슈팅(Overshooting)이다 이럴 때에는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물가는 좀 희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이 우리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미국은 고용과 인플레이션 두 가지 책무가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2개가 다…… 맨데이트(mandate)가 2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맨데이트가 2개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인플레이션만 보는 그런 정책을 펴기보다는 고용에 보다 조금 더 큰 방점을 두는 그런 방향을 택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거기는 2개인데, 그중에서 고용을 더 본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사실 물가하고 금융시장 안정이 그냥 명시적인 맨데이트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물가를 더 보겠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권영세 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지금 성장 부분, 경기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후보자는 평소에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던 분이고 또 아까도 나왔지만 지금 3T 그러니까 적기에 해야 되고 목표를 딱 정해서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추경이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하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재정건전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권영세 위원** 결국 이번 추경에서 보면 아까 타겟팅 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여기는 국민의 70%한테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타겟팅 된 그런 재정이라고 볼 수 있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것은 재정정책의 규모와 또 설계,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원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3T의 원칙에 대해서는……

○**권영세 위원** 그 3T의 원칙이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 100% 들어맞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대체로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상 위원** (지폐를 들어 보이며)

총재님, 이게 1만 원짜리입니다, ‘한국은행총재’.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최기상 위원** 이것 은행에 가면 금으로 바꿔 줘니까, 안 바꿔 줘니까? 안 바꿔 주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최기상 위원**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펴잖아요. 이런 돈 시중에 얼마나 풀려 있습니까? 1000조, 2000조? 얼마나 됩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한국은행에서 통화 공급을 늘린다 그러면 돈 찍어 냅니까, 아니면 전산으로 반영이 됩니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 돈의 가치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금리에 관해서 결정할 때마다 평가합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러면 국민들이 뭘 믿고, 금통위의 결정과 한국은행의 결정을 믿고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얼마인지 믿고 맡기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물가안정을 통해서 구매력을 계속 유지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화폐의 가치를 지키는 그런 책무입니다.

○**최기상 위원** 그러면 나중에 알려 주세요, 이런 돈이 시중에 몇 조나 풀려 있고 국민들이 돈 달라고 그러면 몇 조나 다 은행에서 줄 수 있는지.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이 몇 조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알고서 금리를 결정하는지.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은행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25조에 금통위가 불법행위를 했을 때 한국은행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1950년 한국은행법 만들 때부터 있었어요.

금통위원 중에 이런 책임 진 사람 있었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70년 넘게 한국은행에 있는 금통위원들이 다 잘했을 리는 없는데 책임을 안 물었다고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제대로 조치를 안 한 겁니다. 제정법에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다음 보지요.

한국은행총재가 국무회의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동안에 언제 마지막으로 발언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아직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법에 있는데 왜 안 하지요? 법에 있는데 왜 안 합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것은 법에 있어도 관행상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기상 위원 관행이 법에 앞서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아닙니다. 법이……

○최기상 위원 우리 주권자가 법에 정해 놓은 것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곤란하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알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다음 보지요.

거시경제금융회의의 관련한 훈령이 있습니다. 회의 구성에 보면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가 있어요.

이것 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이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최기상 위원 합니까, 안 합니까? 이 훈령에 근거한 이 회의체 합니까, 안 합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금융회의체……

○최기상 위원 했다는 얘기 들어 보셨어요, 최근에?

다음 보지요.

그런데 또 이런 것 있어요. F4 회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또 법적 근거가 없더라고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비공식 모임입니다.

○최기상 위원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모이고 의사결정을 하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의사결정은 아니고……

○최기상 위원 여튼 법에 있는 규정대로는 안 하고……

다음을 보지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을 보지요.

우리 후보자께서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관한 문제 제기도 예전에 했었고 기업이나 가계의 자금조달체계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기면 한국은행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한국은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들과 긴밀한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계속 내고 있잖아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러면 법에 규정이 있는 대로 하면 돼요.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독립성이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법에 근거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알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리고 저는 미국의 금리를 손보면 대한민국의 수출입기업과 물가에 이런저런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는 책에서는 이해가 돼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어느 기간 동안에 작동했는지 한국은행에서 평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학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기상 위원 국민들 일상에 그게 바로바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일상에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기상 위원 근거 없이 일을 하면 곤란합니다. 2조 넘는 예산을 쓰고 있고요. 금통위원들이 1년에 받는 돈이 3억이 넘어요. 국회의원이나 20년 판사보다 더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분들 재산이 수십억이더라고 다, 부동산에 금융에.

말은 믿지 않습니다. 과거의 무슨 경력도 믿지 않습니다. 의심을 오히려 하고 있어요. 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정확히 소상히 설명을 하시는 한국은행총재가 앞으로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려요.

의견 주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금통위원 자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금통위원은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토대로 하는 그런 직책이고요. 그리고 경제 전반을 두루 볼 수 있고 또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최기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 후보자님께 환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고 우리 경제의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요? 그리고 상당히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부분도 말씀 주셨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환율이 어느 정도까지가 걱정할 거냐라는 것은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지표로 우리가 조금 체감을 해 볼 수 있겠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느냐는 건데, 우리 기업들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국내 1000대 기업을 해 봤더니, 영업이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감내할 수 있는 환율 수준이 얼마냐라고 했더니 한 1400원 정도 이렇게 하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1362원 이 정도가 적정합니다, 이 이

상 넘어가면 힘들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한 1400원 수준이 아닌가, 달러 환율로 해 가지고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동 리스크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지금 1480원대에서 약간은 고착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1400원, 1480원 이렇게 갭이 있을까라는 건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수급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 달러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번 표를 보시면, 우리가 외환시장의 수급 상황을 보면 달러가 전혀 부족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경상거래인데 한 해에 우리 국민들이 벌어들이는 달러가 작년에 1230억 불이었지요. 그리고 금년에 1700억 불, 굉장히 역대급으로 많은 돈입니다.

그리고 자본거래를 보더라도 내국인들의 해외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또 외국인들이 국내에 투자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크게 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외화순공급을 보니까 2024년에 543억 불 그리고 작년에 약 353억 불, 공급은 충분하다 이거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봤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름의 생각이 있으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위원님, 이 문제는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린 장부상 거래와 또 부외거래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외환 수요가 국내 외환시장에 너무 집중이 돼 있다 이거지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국민들이 해외투자를 하면 그 달러를 전부 다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외환시장의 가장 큰손이 누구입니까? 국민연금이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안도걸 위원** 국민연금이 현재 해외투자 재원을 국내 외환시장에서 조달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903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적립금이 계속 누적되면서, 우리가 해외투자를 60%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에 약 68조, 달러로 하면 약 470억 불, 이 정도의 달러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 달러를 국내에서 조달한다라고 하면 안 되지요. 굉장히 국내에서 사는 사람은 압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주 협소한 저수지의 고래 한 마리가 물을 다 들어 삼키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구조적으로 수요압력을 해소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달러 투자 수요를 일부 국내시장에서 격리시켜서 해외에서 조달토록 해야 된다는 게 필요합니다. 고래를 바다로 저수지에서 바다로 보내야 된다 이거지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국민연금의 외화채권 그리고 글로벌 기관 간 스와프, 단기 외화차입 등 이런 외화차입, 조달을 다변화해야 된다고 하고 제가 관련된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방법론에 대해서?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 방법론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안도걸 위원** 그래서 조금 외화조달을 다변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환 관리 역량도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외환이 다소 부족할 때는 외화차입을 늘려 주는 이러한 규제완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외환시장 자유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장벽을 좀 낮춰 주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내 역외 결제시스템 있잖아요, 이것도 개방을 좀 하시겠다 그리고 국내 외환시장에 대한 외국인 이용 시간도 24시간 풀로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중요한 건 저거인 것 같아요, 국내 외환시장 있잖아요, 외환 현물시장을 역외에 두는 게 저는 근본적인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의 외환 관리 역량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외환보유고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있잖아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자유화와 거시건전성의 안정성,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게 다입니까?

○안도걸 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1분 더 넣어 드려요.

○안도걸 위원 예, 1분만.

그래서 저희가 외환자유화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여건들이 성숙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하게 나가자. 외환시장 국제화, 그렇잖아요. 우리 원화의 국제화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재정부에서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외환시장 있지 않습니까, 역외 현물시장 개설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금융 분야의 전문가이신 총재님은 어떤 요건이 충족됐을 때, 그때가 언제쯤 될 것이고 그런 시점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오픈할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 견해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우선 내국인과 외국인과의 거래는 물론이고 또 외국인 사이에서도 원외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외 결제시장이 충분히 자리를 잡으면 그때는 점진적으로 원화의 위상이 훨씬 더 향상이 되고 또 개방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도걸 위원 하여튼 그런 여건 조성에 최대한 총재님께서 힘써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지난 1월 21일인가요? 대통령께서도 고환율 관련해서 1400원대 전후로 좀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금 중동발 전쟁이 있어서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안도걸 위원님께서 오히려 신현송 총재님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고래를 바다로 보내자’ 이게 아주, 잘 새겨듣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위원장 임이자 오히려 더 정책이, 질의에 대해서 안도걸 위원님 아주 훌륭하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4시 반 속개하기 전에 총재후보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이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직전에 휴식 시간을 갖기 전에 환율 관련한 질의가 이어져서 이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원화가치가 작년 10월에 1400원대로 올라오면서 실제로 1500원을 돌파하고 지금 한 1460에서 1480 사이를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실제로 원화가치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위원님,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도 물론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급격하게 환율이 변할 때는 흔히 금융 리스크 선호의 급변한 변화도 같이 있습니다.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채권과 주식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한 자본 유출이 많이 작용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난 3월이나 또 작년 4월에는 미국에서 오히려 반대로 달러화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현상이 있었고 이런 경우에는 장부상 거래보다는 부외거래가 상당히 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김영진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앞으로 현재 원화가치의 안정성과 변동성 측면에서 후보자께서 예측하시기에는 원화의 가치가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앞으로는 보다 좀 안정적인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일단 포트폴리오 조정도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으면 그것으로서 수급에 대한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단지 단기적인 이런 급격한 환율 변동은 여전히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김영진 위원 두 번째는 아까 F4회의에 관해서 몇 분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실제로 지난 한 3년 정도는 그래도 F4회의를 통해서 핵심적인 경제 정책을, 거시·미시를 다 담당하고 있는 4명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사실은 소통의 과정을 상당히 많이 가졌다. 단 그것이 법적 기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체 경제 흐름에 대한 이해와 방향에 대해서 서로 둔탁한 결정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단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그것으로 인해서 침해받지는 않았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면 후보자께서 아까 얘기했던 금융경제회의도 있고, 있는데 그것은 총재가 참여하는 회의가 아니어서 사실 무게감이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F4회의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할 주체들이 모여서 논의했던 과정이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소통에 관한 의견과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우선 한국은행의 주 책무가 물가안정이기 때문에 독립성을 토대로 물가안정에 전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법적으로나 관행적으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계속 지켜 나가야 할 그런 체계입니다.

그런데 물론 때에 따라서 통화 정책과 다른 거시건전성 정책 또 여러 가지 거시 정책이 서로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인식을 같이하는 그런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진 위원** 저는 충분하게 소통을 하는, 그러니까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정부 정책의 큰 방향에 맞게끔 통화·재정·금융 정책들이 잘 조정되는 게 지금 이 변동성이 큰 국제정세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저출생 문제와 청년의 고용과 청년에 대한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나 물가 이외에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를 가지고 문제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조사 역량들을 많이 투입했는데 특히 청년, 청년의 고용과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또한 우리 사회의 안정성, 세대적 안정성을 만들어 가는데 심각한 우려가 있다.

20대의 생각이, 지금 대졸자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부분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한 사회적인 불만과 격리가 보기보다 상당히 크게 문화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정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청년들의 일자리와 청년의 미래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국은행에서 저출산 문제와 함께 좀 연구·조사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한번 조사해서 제안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후보자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후보자님!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위원장 임이자** 김영진 위원님께서서는 재정과 통화 정책에 있어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오히려 엇박자 낼까 봐, 좀 소통이 부족할까 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잠시 휴식시간에 얘기를 들어 본 바에 의하면 오히려 지금 이 중동발 전쟁이 계속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또 확장적 재정이 불가피한 이 상황 속에서 통화 정책 관련돼 가지고는 그래도 신현송 총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용병술, 아니면 용인술을 잘 썼구나라고 했던 부분들이 그래도 견제와 균형을 맞춰 갈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재정 정책뿐만 아니고 통화 정책 관련해서 말씀들을 위원들이 하시면서 그래도 이런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화끈하게 답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소통이 너무 잘돼 가지고 이 부분이 잘 안 될까 봐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유념하셔서 답변을 좀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알겠습니다. 소신껏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다음은 국민의힘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후보자, 제가 오전 질의에서 검머외 총재라고 한 뜻은 말이지요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한국 경제를 잘 모르는 국제적인 경제석학이라는 그 의미만 담긴 게 아닙니다. 뒷부분에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국제적인 그것은 세계가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 그게 장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히딩크가 한국에 와서 성공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나름대로의 재능을 한국에 와서 잘 접목을 시켜서 충분히 가능성을 실현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핵심은 좀 빠진 것 같은데요.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말이지요 국내 축구계의 인맥에 휘둘리지 않은 소신이었습니다. 바로 그게 요인이 되어서 본인이 소신껏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 선수를 기용하고 전략을 펴 가지고 그게 성공의 요인이 된 거거든요. 바로 요구하고 있는 게 한국 경제를 구할 히딩크가 되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후보자에게 그런 것을 지금 요구를 하는데 아까 오전 답변에서 보니까 실용적 매파라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 매파·비둘기파 이분법에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이런 이분법 분류가 옳은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동안 후보를 놓고 실용적 매파로 분류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게 통용이 되고 본인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런 나름의 평가하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철학과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탕으로 하면 됩니다. 실용적 매파라고 불렀는데 갑자기 비둘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아도 안 되는 것이고 매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까치가 되는 것도 이것도 얘기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래서 한은총재, 중앙은행 총재로서의 소신과 철학을 본인이 지금까지 쌓아 온 풍부한 경제전문가로서의 지식을, 그런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대쪽 총재라는 말이 나와야지 갈대 총재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쪽 진행되는 답변을 보고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지금 언론의 평가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도 비슷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권영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T 정책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박대출 위원** 거기에 대해서 3T에 부합한다 이렇게 했어요, 현 정부의 거시 건전성 경제정책 기조가.

PPT 한번 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시지요.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비율 제한 이것은 은행의 비율 완화로 완화됐거

든요, 현 정부 들어와서. 외환 건전성 부담금 도입하자 그랬는데 이거 면세로 한시 폐지됐습니다.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시행은 이것도 외국인 채권투자 면세로 폐지돼 버렸어요. 거꾸로 했는데 어떻게 이게 3T에 부합한다고 답변을 하시지요? 답변해 보실까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전에 말씀드린 것은 3T의 원칙은 재정정책의 원칙입니다.

○**박대출 위원** 재정정책의 원칙인데 이게 구체적인 정책이 세 가지 들어 있는 걸 비교를 한 겁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지금 PPT에 올라온 것은 거시 건전성 정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여기의 내용을 잘 알고 제가 이 작업을 한때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필요한 정책이었고요. 그 당시에 주로 은행 부분을 통한 경기 순응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한 그런 정책이고……

○**박대출 위원** 그러면 그 3T가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다는 얘기인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지금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박대출 위원** 상황이 바뀌어서 3T가 바뀌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지금 금융 제도가 많이……

○**박대출 위원** 그러면 3T에 부합된다고 권영세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박대출 위원** 3T 기본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고 바뀐 상황을, 그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셔야지 3T에 부합된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앞뒤가 답변이 맞지가 않아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3T의 원칙은 재정정책에 관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재정정책을 이끌어 나갈 때 재정 건전성, 그러니까 재정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그런 정책이 참 중요하다고……

○**박대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전 국민 70%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3T 재정정책의 기초에 맞는 것입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전체 디자인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이고……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박대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또 여쭙볼게요.

확장재정과 건전재정은 동시에 충족이 가능합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재정 지속가능성이 담보가 되면, 물론 재정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 지속가능성이 불가능할 때 그때는 사전에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하고 역사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대출 위원**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려면 지속가능성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

지속가능성을 충족하는 그런 전제라는 것은 어떤 제한적인 의미지 확장적·무제한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런 소신을 앞으로 펴세요. 이 정부에 가장 필요한 소신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박대출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따님 문제 좀 질의하려고 했는데 못 했네요.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이자 보충질의 하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후보자님, 오전에 제가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김영환 위원 하여튼 이런 말씀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코인이 하는 것보다 CBDC가 더 많은 것을 더 잘할 수 있다. 기억 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지금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동의합니다.

물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룰렛으로 보면 사실은 저희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외부변수가 크게 생겼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의 걱정은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에 반영되고 이후에 공급 사이드, 소비 사이드로 이전되는 것을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래서 저도 나름 데이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근원물가가 이 정도면 외부 쇼크에 비해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책의, 한국은행의 금리라는 것은, 이게 진짜 소 잡는 칼이지 빈대 잡는 칼은 아니잖아요. 거시 전체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보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무차별적으로 작동합니다.

○김영환 위원 예, 그리고 큰 칼이잖아요. 이것을 여하튼 여타 다른 조그마한 것들, 그러니까 물론 거시적인 변수들이지만 다른 여파들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김영환 위원 그러면 외부 쇼크들이 왔을 때 재정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 또 금융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 통화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역할분담을 잘 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도, 사실은 아까 제가 조세지출이라고 표현했지만 석유 가격을 낮추기 위한 조세 정책들을 좀 시행했었고 또 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재정지출 정책도 했었고요.

사실 이쪽 사이드에서 좀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게 저는 통화 정책을 함에 있어서 유연성을 확보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잠재성장률 밑으로 와 있어요, 실질 경제성장률이.

우리가 무슨 경기 과열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래서 이게 수요 사이드에서 경기 과열을 일으킬 만한 소비가 대폭 늘었다 할지 아니면 국내 투자가 대폭 늘었다 할지 이런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 정책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정책이 있고 또 한국은행의 통화신용 정책으로 해결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수요 사이드에서 물가 상승의 압박요인은 좀 적을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저도 동의합니다.

○**김영환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환율도 한번 보면, 제가 2000년부터 쪽 레인지를 넓혀 봐 봤습니다. 안정적인 기간……. 톱 튀기는 기간은 있었지만 한 2010년, 한 10여 년 정도 사이에는 레인지가 1000원에서 1200원 딱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는 했습니다. 그 사이에 미중 위안화 위기도 있었고 분쟁도 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환율이 좀 튀기는 했었고.

아까 거시 건전성 얘기했던 그 당시가 금융 위기였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래서 그 당시 극복하기 위한 정말 즉각적인 조치, 강제적인 조치가 좀 필요가 했던 시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 이후에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그렇게 강제적인 조치를 오래 지속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 당시에 맞추었던 정책이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렇지요? 맞춤형 정책 아니었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김영환 위원** 그리고 이후에 미국 금리 인상 시기 때 계속 올라가서, 사실은 저는 좀 불만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금리 결정이라는 게 미국만을 위한 금리 결정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타 신흥국들 하면, 이창용 총재도 얘기했지만 스펀오버(Spillover)되고 다시 그 여파가 스펀백(Spillback)이 될 거다라고 이창용 총재도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아무래도 미 달러화의 국제위상이 워낙 높기 때문에 미국의 통화정책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김영환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원화가치를 올리기 위한 후보자님의 생각들이 원화 세계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WGBI, 이 원화 표시 국제채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순매수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원화가치를 올리기 위한 중요한 방편들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래서 원화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방편들이 있으면 여기서 좀 소개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WGBI, 그러니까 세계채권지수 편입에 관해서는 일단 편입을 함으로써 지수 추종하는 그런 여러 기관들이 한국 국채를 안정적으로 매입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안정적인 수급을 유지할 수 있고 또 헤징을 통해서 달러 유동성도 제공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오전에 한국은행이 금리 등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과 시장 안정까지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하는 방향의 제도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다른 나라들도 보면 중앙은행이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복합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 재정 또 거시건전성 정책이 서로 연계 또는 결합된 방식의 정책 조합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답변을 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중앙은행의 기능 확대를 위해서 매우 심도 있게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김영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더 하면 우리 원화가 국제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우리 경제 규모 대비 글로벌 외환거래나 결제에서 위상이 지금 매우 낮은 게 현실이잖아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글로벌 외환거래 때 우리 원화 비중은 한 1.8%, 12위 수준이고 결제통화 비율은 우리 원화가 상위 20위권 밖이어 가지고 잡히지도 않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우리 경제 규모는 훨씬 더 큰데요. 그러니까 경제 측면에서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는 하나 여전히 원화의 국제적 위상은 매우 부족하다, 약하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비주류로 평가받는 미스 매칭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상수지 흑

자가 역대 최고를 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지금 고환율을 유지하고 있는 이른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중동전쟁 이런 외부 변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주요한 원인은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둔화되어 있고 또 원화자산의 수요 부족이 구조적인 원인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개선을 해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원화가 잘 안 쓰인다, 원화가 필요가 없다 이 구조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들도 이른바 WMR, 글로벌 벤치마크 환율을 활용해서 자산을 평가하고 거래하는 이 기준에서 우리 원화가 비거래 통화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김태년 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언제든지 거래가 가능한 통화로 바꿔야 된다.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가능한 통화로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시장개입을 넘어서서 외환시장 구조와 원화자산 수요 기반을 함께 개선하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지금 계속 그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추진중인 정책이 방금 말씀하셨던 채권시장에서의 WGBI 편입, 이걸 지금 이제 단계적으로 올해 계속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11월까지 해서 한 500억~600억 달러 수준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한 3억 달러 이상의…… 3억 달러인가요? 이미 그 유입이 되어 있고…… 지금 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까먹었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한 200억~300억 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500억~600억 달러 정도의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화자산에 대한 구조적 수요 기반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채권시장의 안정적 수요 기반은 환율 변동성을 완화시키고 금융시장의 하방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이걸 좋은 거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MSCI 편입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금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 한국은행도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이건 우리 금년 7월에 하려고 하고 있지요—과 여기에 원화결제시스템 구축 이것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 27년도에 목표잖아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이런 조치들이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 원화를 상시 거래 가능한 통화로 인식 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이런 점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김태년 위원 시간 좀 더 주세요.

○위원장 임이자 1분만 주세요.

○김태년 위원 그래서 이 WMR 등 글로벌 기준에서 원화의 거래통화 지위 확보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걸 동의하시는 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시장을 지금 개방하는 조치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개방됐을 때, 시장 개방이 확대가 됐을 때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라는 리스크도 또 함께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리스크는 최소화하거나 제거하고, 막아 내고 그리고 우리가 순기능은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런 사전 조치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시장 개방과 자본 유출 리스크를 어떻게 균형 있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우리 한국은행이나 정책 당국의 숙제일 것 같아요. 이에 대한 후보자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아침에 ‘삼각형’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시장, 외환시장의 24시간 거래 또 결제시스템의 국제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원화의 신뢰가 상당히 향상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시다시피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시건전성 테두리 안에서 다 진행돼야 된다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태년 위원 그래서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를 물었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래서 일단 중앙은행의 결제시스템이 그 핵심이 되고, 그러니까 통화제도 자체가 국제통화제도 안에서 신뢰를 얻고 따라서 중앙은행의 여러 통화정책 운영, 여러 수단이 거기에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장, 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박성훈 위원 후보자님,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 드렸었는데 제가 원했던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자료는 추천서인데요. 그런데 이 추천서가 옥스퍼드대를 진학하기 위한 추천서인지 고대에 편입하기 위한 추천서인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78년도 당시의 고려대 학칙을 보게 되면 대학교 1학년에 편입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후보자님 발언을 죽 들어 보니까 학자로서의 자신감이나 소신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세계은행에서 근무를 하면서 후보자님의 논문을 읽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거시건전성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이 금융기관의 레버리지와 관련되는 논문을 제가 읽어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기존 DSGE 모형의 문제점을 보완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의 어떤 확신, 소신이 후보자로서 지명되고 나서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명 후에 환율이나 물가와 관련된 후보자님의 발언을 들여다보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후보자의 인식이 국민 대부분의 현실 사이와 괴리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후보자님이 하셨던 발언 몇 가지만 소개를 해 볼게요.

이재명 정부 이후에 고환율 고착 상황에서 현재 달러 유동성 부분이 양호한 만큼 예전처럼 환율과 금융 불안을 직결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환율이 통계를 계속 뽑고 있지요. 보게 되면 경상수지 흑자, 아마 역대 최대를 지난 2월 달에 기록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국제수지계정에서 증권투자와 직접투자 규모가 훨씬 더 크거든요. 이런 상황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고.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한 달 사이에 약 40억 달러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님께서 하실 발언이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정부를 생각해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발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발언은 전혀 없었습니다.

외환보유액 세계 순위를 보더라도요 2월 기준으로 볼 때 전월보다 2단계나 낮은 12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가 세계 10위권 밖으로 물러난 것은 제가 알기로는 26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경제구조가 비슷한 대만 같은 경우도 6000억 달러 이상, GDP 대비 약 80%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님께서 조금 더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 게다가 저희는 3500억 불 대미투자가 앞으로 외환시장의 계속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후보자님, 이번 정부가 확장재정을 취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면 후보자님의 평소 소신대로라면……

‘재정이 방만하고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을 통해 재정적자를 메꾼다면 통화정책과 한 덩어리로 묶이고 둘 간의 부정적 상호작용이 생겨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동으로 화폐가치를 지킬 수 없다’, 이것 후보자님의 발언이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면 추경도 역시 물가 영향에 크게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거기에 대해서는 규모와 그리고 설계에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박성훈 위원 후보자님, 전통적 화폐 이론, 통화 이론에 따르면 물가를 결정하는 것은

통화량이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박성훈 위원 그런데 FTPL, 재정적 물가이론에 의하면 재정건전성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냐면 주로 국가부채가 급증을 하거나 재정적자가 커지거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앙은행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때, 특히나 아프리카나 중남미 국가들에서 이 이론이 적용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후보자께서 BIS 국장 출신으로서 학자의 소신은 사라지고 오히려 정부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경향, 특히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자신감 있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제 과거 발언은 제 소신이고 그리고 원칙이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FTPL, 재정 물가이론 그것은 결국 지속가능하지 않은 재정에서 비롯된 어떤 결과를 보여 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재정은 지속가능한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근간이 있으면 통화정책도 같이 독립적으로 상호보완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박성훈 위원 지금 화폐·금융정책, 특히 중앙은행이 샌드위치에 위치해 있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 부채가 급증하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할 때 정부 국채, 그러니까 정부의 이자 부담을 고려해서 걱정하는 재정 우위 현상이 나타난다는 그런 지적이 있고요.

제가 더 말씀드리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정부의 부채를 줄이겠구나 하는 이런 인식이 시장참여자들 사이에서 퍼져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100% 동의합니다.

○박성훈 위원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후보자의 발언을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중앙은행은 신뢰의 구심점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후보자님, 기후위기 시계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귀국……

○차규근 위원 기후위기 시계.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아, 예.

○차규근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께서 기후위기 관련한 한국은행 역할에 대

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답변 내용을 제가 들어 보니까 걱정이 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회 본관 앞마당에도 기후위기 시계가 2024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오늘 현재 그 시간이 3년 94일로 찍혔습니다. 그 의미를 혹시 아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잘 모르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저는 약간 실망입니다. 그 시간은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지구의 평균기온이 1.5℃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입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알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저는 후보자님께서 국제적인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시길래 우리나라보다 외국의 중앙은행들이 기후위기 대응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조금 실망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 ECB(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2023년 3월에 기후·환경 리스크 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28개 은행에 구속력 있는 감독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그중에 스페인의 ABANCA가 65일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가지고 ECB가 미이행 일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총 18만 7000유로, 한화로 2억 70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 들어 보신 적 없으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들어 봤습니다.

○차규근 위원 한국은행의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도 들리고 있고 국내에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계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후보자님께서 모르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많은 우려가 들고요. 앞으로 취임하시면 기후위기 관리라든지 대응에 있어서 한국은행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많이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고민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다음으로 고용안정 관련해서 아까 전에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거에 2015년도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그때 그 법안이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발의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논의가 되다가 흐지부지됐고 또 그 이후에 기재부의 반대가 있어 가지고 진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기재부 반대 의견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국인 반면에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다르다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외국의 미국이나 유럽중앙은행 이런 데서 고용안정을 명시적으로 중앙은행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것은 노동시장의 구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는데 미국이 양대 책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CB나 다른 유럽의 중앙은행들은 대개 한국은행처럼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결코 고용을 안 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을 봐야지 인플레이션의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책무가 있는데 그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이나 이렇게 봤을 때 책무는 많은데 도구는 통화정책밖에 없다 하면 여러 가지 모순이 생기는 그런 이유 때문에 주로 인플레이션을 주 책무로 삼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어느 정도 한국,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도구가 많이 제한적이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법안이 좀 발의가 돼 있는데 그 내용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조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일단 거시건전성 정책의 접근을 위해서 우리가 최근의 SVB(Silicon Valley Bank) 사건이라든가 전반적인 금융제도의 변천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급결제 부분 관련해서 한은에 적극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법안도 국회에 발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입장만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지급결제는 중앙은행의 가장 핵심적인 통화의 가치를 보전하는 그런 역할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급결제제도가 원활히 움직이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규근 위원 그런 법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지……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알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차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후보자님, 오늘 아침 한국은행에서 3월 수출입 물가가 발표됐는데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 전월 대비해서 16.1%가 올라가서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무려 9개월 연속 상승으로 이재명 정부 내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IMF가 어제 우리나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2.5%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여러 전망치가, 지난 10월에 1.8%가 나왔습니다만 0.7%가 올라서 지금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래서 OECD나 글로벌 금융기관에서 줄줄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대폭 높여 왔는데 결국은 IMF가 썩기를 박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재명 정부의 재정정책에 물가는 후순위처럼 보입니다. 후보자께서 총재가 된다면 한은과 정부의 정책에 엮박자가 불가피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잘 지켜 주시겠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물가는 잘 지키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후보자가 되고 나서 한국은행 건물에 들어섰을 때 상징으로 보이는 ‘물가 안정’ 보셨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래서 물가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좀 더 정신 차리고 우리가 봐야 될 목표이고요.

한국은행법의 제1조 1항이 물가안정이고 2항이 금융안정, 두 가지가 큰 골(goal)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겨우 긴축재정을 지나서 고물가의 늪에서 조금 벗어나나 했는데 지금 무려 세 가지의 복병을 만났습니다.

그 세 가지 복병이라는 게 하나는 결국은 확장재정 정책이고요. 두 번째가 이재명 정부 내내 고환율입니다. 지금 1500선을 넘나들고 있는 고환율이고 또 하나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폭등하는 물가의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여기 여러 가지 복병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해외에 쫓 계셨는데 10년 전 2016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하고 지금 10년이 지난 지점인 2026년의 외식 물가, 체감했던 물가가 얼마 정도 올랐다고 생각합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거의 두 배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PPT에 보이는데. 아마 좀 전에 물으니까 잘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보면 사실은 10년 전에 비해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두 배 올랐고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올해 1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주식, 금값, 코인 할 것 없이 자산은 죄다 폭등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모르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덜 오른 게 근로자의 임금입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근로자 임금.

○이인선 위원 연봉이 1년에 많아야 2~3% 오르는데 결국은 우리 5000원에 먹던 국밥이 지금 1만 원이 되고 6억 8000만 원에 사셨던 강남 아파트가 순식간에 30억이 돼 버리고, 월급을 받고 예금·적금을 부으면서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돈의 가치가 반토막이 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산가들은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잘 활용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1년에 네 배가 오르게 되고 또 강남 아파트를 사서는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누리고 금과 비트코인을 산 사람은 더 더 더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인플레이션

의 본질이 아닐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님, CPI가 3%를 넘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말 괜찮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물가가 한국은행의 최우선 임무입니다. 그래서 물가만큼은 지키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물가만큼은 꼭 지켜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물가 정책 하는 회의가 있잖아요. 지금 7명이 하는데 조금 더 많은 인력이 집중적으로 해서 이것을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후보자께서는 그야말로 신현송표의 솔루션을 가지고 압박을 하면서 그림을 잡지 않으면 이게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세계적인 석학은 맞는데 우리 현실에 과연 맞을 건가에 대한 불안증과 동시에 잘 맞지 않았을 때……

또 청년들이 대화 나누는 창이 있습니다. 거기서 청년들은 말을 편하게 하니깐요, ‘총재님 먹튀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잘 지켜 주셔야 됩니다, 물가는. 하시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이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오기형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했던 것 중에.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관련된 것을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동 사태, 일시적 충격일 경우에는 바로 회복되니까 특별한 문제없을 거고. 그런데 구조적 충격이면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게 여러 가지로 장기적인 영향을 줄 거다 이러는데 실제 대외경제연구원이나 산업연구원 쪽에서 나오는 것 보면 이미 단기적인 시나리오, 중기적 시나리오, 장기적 시나리오, 세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했을 때 단기적 시나리오는 이미 폐기된 상태이고 그다음 중기 시나리오는 이제 한 두 달 내지 세 달 되는 충격이고. 그런데 이미 중기 시나리오도 거의 실효성이 없어지고 장기 시나리오 차원에서 국가적인 대응을 해야 될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조적 충격이나 아니냐의 판단 기준이 됩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게 얼마나 지속되는가……

○**오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그 ‘얼마나 지속’이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뭐 특정 기간을 얘기하기보다도 그 징후가 어떤 징후가 나타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파급효과가 나타나는가 또 근원 물가가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을 반영하는가 거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단어만 계속 열거하고 계셔서……

실제 이게 구조적 충격이라면, 그러면 배럴당 원유 가격이 한 150달러, 180달러 되면 구조적 충격이 되는 겁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한국은 워낙 제조업 비중이 높고 또 유가에 참 취약한 경제구조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도 에너지 가격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체계입니다.

○오기형 위원 그래서 그게 일정 정도 일정 기간, 그런데 그 기간을 지금 언급을 안 하고 계시는데 3개월이나 6개월이나 이런 데 대한 잠정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 충격이 나면 결국 수요억제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수요억제정책이라고 하는 게 개별적인 어떤 에너지에 대해서 가격 문제로 반영이 될 거고 그다음에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또 금리로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대응책이?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러면 그 점을 고려해서 금리 문제를 결정하겠다 이런 취지이신 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오기형 위원 올해 하여간 전체적으로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바뀌고 있는 것들 중에 대부분이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교란 그리고 물가의 변동, 전체적인 제조원가의 변화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가 실제 구조적 충격이나. 그러면 국민들과 온 경제주체들이 무엇을 가지고 서로, 이게 인식의 공감대 그리고 고통의 분담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따로 좀 고민하신 게 있으신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것은 경제전망을 할 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부문 간 차이는 많지만 계량적으로 어느 정도로 총량 효과가 나오는지 그것은 전망 때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하여간 나중에 데이터 보고 전망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오기형 위원 지금은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없고.

그러면 아까 오전에 질의하다가 만 거, 앞서서 질의하다가 만 것을 하겠습니다.

거시경제, 가계부채 DSR 관련된 것을 통해서 풀자, 그러니까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으로 전부 풀자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작년에 국정감사 때 그렇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창용 총재께. ‘이거 DSR 정책 등 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한국은행이 할 의지가 있냐. 그렇다면 거시경제 건전성 정책수단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DSR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 정책결정 과정에서 같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후보자는 ‘그것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관심이 없다는 것보다도 감독권이 있는 기관이 그런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거기서 충분히 참여를 하는 것은 저도 물론 적극 지지합니다.

○오기형 위원 그래요?

그러면 부동산 PF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PF 상황 좀 아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오기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잠깐 보시면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대부분 연체율이 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연체율이. 이게 상당히 독특하고, 특히 제2금융권일수록 많은데 이런 현상들

에 대해서는 어떤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부동산 PF야말로 전형적인 비은행 부문이 은행을 대체해서 자금중개를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리스크는 상당히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됐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기형 위원** 그러니까요. 그에 대해서 뭔가 이게 대책,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그냥 나름의 해법 내지 기조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오기형 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해법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해법은 기존의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유동성 다 점검해서 차츰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정석인 것 같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통합이라든가 다른 정책을 써서, 그렇지만 2022년 당시 상황보다는 지금 많이 호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제가 딱 이 질문 하나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22년, 23년, 24년 죽 논쟁하면서 제가 국정감사 때마다 몇 번 논쟁을 했던 거고 실제 한국은행총재하고 논쟁했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과적인 복용을 해야 되냐 외과적 수술을 해야 되는 거냐, 외과적 수술을 해야 되면 적시를 놓친 거 아니냐, 정책 당국인 한국은행이나 금융위나 이런 데서 이것을 제대로 대응을 못 했던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제가 국정감사 때마다 계속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총재가 알아야 될 주제고 또 이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대한 평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알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게 맞았느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명확한 답을 못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더 살펴보고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후보자님, 이미 물가·금리·환율 이런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으려고 하고요. 저는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트렌드는 중앙은행이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방향이었던 것 같고요.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이창용 총재 취임 이후에 한국판 포워드 가이드를 도입했고요. 올해 2월에는 K-점도표라는 것을 도입했는데 이게 미 연준의 FOMC 점도표 참고해서 변형해서 만든 것이라고 알려져 있고 금통위원들이 각자의 6개월 후 금리 전망을 익명으로 3개의 점씩 이렇게 찍어서 점으로 경향성이나 전망을 보여 주는 그런 걸로 알려져 있

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한 취지는 시장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금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주겠다 이런 취지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지금 시장에서 한국은행의 이런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조가 유지될 거냐, 아니면 신임 총재 이후에 이런 소통 스타일이 바뀔 거냐 이런 걸 많이 궁금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후보자의 논문이나 외신 인터뷰 같은 것들을 찾아보니까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중앙은행의 포워드 가이드선(Forward Guidance)가 조 건부 전망에 불과한데 시장에서는 이걸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이 결정이 달라지면 패닉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 커뮤니케이션이나 정보 제공이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나 위험도 크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맞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런 종류의 논문을 제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논문도 그렇고 작년 7월의 외신 인터뷰에서도 시장은 헤드라인에 고착 되기 때문에 이런 패닉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2017년에 유럽중앙은행 가서 연설하신 내용에도 보면 ‘중앙은행이 더 크게 말할수록 시장은 몸을 기울여서 듣게 되고 중앙은행은 자기가 말한 것의 메아리를 시장의 메시지, 보이스로 잘못 오인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또 후보자의 논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Social Value of Public Information’, 이 유명한 논문에서 ‘공공정보가 불확실한 노이즈를 양산 할 수 있고 또 중앙은행의 과도한 정보 공개가 시장 쓸림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일관된 입장들을 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아무래도 지금까지 최근에 한국은행이 취해 왔던 이런 적극 적 커뮤니케이션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예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단기로는 지금 있는 현 체제를 계속 이끌어 나갈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메아리 효과라든가 그런 것은, 시장과 중앙은행의 소통이라는 것은 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도 역시 시장가격을 보고 또 그것을 해석하면서 상호작용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더 정교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도가 도입되면 작동을 점검하고 그리고 평가하는 그런 기간이 항상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 작업도 앞으로 계속 금통위원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K-점도표나 이런 포워드 가이드선 제시 방식을 유지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중앙은행의 공공정보 제시가 왜곡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공정보 제공의 정도나 방향에 대해서는 변경을 검토하거나 고민하실 수 있겠네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평가를 통해서 결론을 얻어야 되겠지요.

○**이소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린 스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정태호 간사님 그리고 차규근 위원님께서도 중앙은행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후보자가 재직하신 BIS에서 발표한 아주 유명한 보고서의 제목이 그린 스완이지

요.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잠깐 보여 주시면,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때 2020년 당시에 담당 국장이셨던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이소영 위원 BIS가 얘기한 그런 스완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런 스완이라는 개념은 나심 탈레브라는 저자가 쓴 ‘블랙 스완’에 비유해서…… ‘블랙 스완’이라는 것은 전혀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온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책을 쓴 게 있는데……

○이소영 위원 후보자님, 제가 20초 후에 마이크가 꺼지는데 그 이후에 길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이 그런 스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그때 보고서의 주된 담당 국장이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고, 이것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그런 스완 보고서가 중앙은행에 주는 메시지, 부제에 센트럴 बैं킹이 들어가 있잖아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소영 위원 그래서 중앙은행에 주는 시사점이 뭔지도 의견을 같이 듣고 싶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런 스완의 주된 취지는 ‘기후변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여러 경로가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존의 모델이나 계량적인 측정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앙은행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소영 위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중앙은행의 수장이 되실 수 있는 상황이니, 이 그런 스완 보고서가 말했던 그 시사점을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금융안정이 책무인 만큼 기후변화가 어떻게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가, 하여튼 그 핵심 명제를 중간에 두고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으로서 어떤 도구가 있는가 또 감독 당국이 어떤 도구가 있는가 또 재정 당국이 어떤 도구가 있는가 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유상범 위원입니다.

후보님, 지난 24년 6월 30일 매경과 인터뷰를 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유상범 위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주제가 보면 포퓰리즘 재정이 부르는 인플레이션 악순환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후보님께서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 이것에 대해서 ‘자기 나라의 화폐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나는 그것이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한다, 맞아요.

여기서 지적하신 것이 결국 선거 전후를 위한 포퓰리즘적 확장재정정책이 재정건전성을 훼손한다, 그것이 거시경제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은 후보님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금융전문가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유상범 위원** 그래서 결국 확장재정정책을 하게 되면,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해서 이걸 떠받치게 되면 결국은 인플레이션과 물가상승의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신 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오늘 아마 이와 관련해서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일부 민주당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총부채가 사실은 6500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알지만 지금 정부부채, 가계부채도 크고 기업부채도 큼니다만 중요한 게 우리 정부부채의 증가율이 너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 이것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지금 지적하신 이 문제는 재정적자가 중앙은행을 통해서 화폐화되는 그런 현상을 지적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화폐화에 대한 현상이 아주 위험하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유상범 위원** 맞습니다. 이번 추경은 소위 부채발행을 통한 화폐화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적다고 평가하신 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 1년이 안 됐는데 추경만 72조 원을 했습니다. 이번 26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화폐화됐어요. 결국은 그만큼 정부의 부채증가로 인한 유동성의 증가가 심각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한번 보시면 한국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M1이지 않습니까? M1으로 보면 지금 50% 정도 된다고 하지만 M2로 보면 심각한 정도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IMF 기준으로 보면 M1이 아니라 M2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후보님?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유상범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확장재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확장재정을 하는 중에 보면 TBS 교통방송 지원, 짐캐리서비스 지원 300억 이런 식의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 앞으로 돌려 보세요, 이것 말고.

그래서 현재 후보님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중앙은행이 자국 화폐 가치의 수호를 위해서 결국은 확장재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금융정책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 그 어려움은 분명히 후보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재정확장이 되고 확장재정 기조가 이 정부의 기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께서도 금융 최고책임자로서 분명한 입장을 정해 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레드팀으로서의 역할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난 국제금융 전문가로서 후보께서 지속적으로 견지했던 부분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 부분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원칙을 잘 유지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볼까요? 넘겨 보세요.

달러 인덱스 부분을 한번 보면, 여기 구간을 한번 보시지요.

지금 현재는 달러가 1500원이다 1400원이다, 달러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은 달러 인덱스와 환율과의 관계를 봐야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지금 표를 보시면 과거에는 거의 연동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보시면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고 있는데 환율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원화 가치는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넘겨 보세요.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이 됐습니다만 GDP 대비 광의 통화라는 M2 비율을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 외려 줄었습니다. 이것은 공식 통계자료니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일부 줄었습니다만 지금 미국의 2배 이상으로 우리 통화량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융학자들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이 지나치게 과잉공급됐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 이진 맞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

○유상범 위원 그런데 이와 같은 차이가 유동성 부분에 원인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유동성이라는 그 개념이 금융제도의 차이에 따라서 많이 작용을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자본시장 위주의 금융제도로 한국은 은행 위주, 그래서 이 M2 수준 자체만으로 유동성이 많다, 적다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상범 위원 마지막으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부분은 소위 외화 수급이 문제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환헤지 얘기도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사실 위험한 부분이

기는 한데 더 질문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가 유동성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닌 상황에서 굉장히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일정 부분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래서 유동성 관리에 대한 입장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유동성뿐만 아니라 금리 차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답변 다 하신 겁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요, 좀 자세히 해 달라니까요. 뭐 이렇게 짧아요.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위원장님,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수영 예, 그래 주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M2로 측정하는 통화량은 주로 은행 부문의 부채, 특히 예금 또 몇몇 예금과 유사한 그런 상품들이 총량을 하나의 지표로 삼는데요 그것은 사실 내생변수라서 M2와 환율과의 관계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 유동성 총량보다는 금리 차가 어쩌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린 선물환시장이라든가, 특히 한국은 역외 선물환시장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3월 달처럼 아주 급격하게 환율이 움직일 때는 기존 자본유출입 총량보다는 선물환을 통한 부외거래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박수영 간사, 임이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물환거래라는 것은 결국은 금리 차에 큰 영향을 받고요, 어떻게 보면 좌우받는다고 까지 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제실정에 맞게 금리 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과는 금리 차가 상당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환율 변동은 오히려 유동성보다는 금리 차가 조금 더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다음은 천하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이어서 확인할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나서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출입국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안 됩니다.

○천하람 위원 안 되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천하람 위원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 주권을 존중하느냐 하는 기본적인 문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지요.

○천하람 위원 후보자님, 장녀가 99년도에 국적 상실한 이후에 대한민국 여권 사용 내역 아직까지 안 주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천하람 위원 저희가 이거 사실 이미 확인을 했거든요. 아직 개인정보 동의가 안 돼서 공식적인 자료는 못 주지만 저희가 국내 기관에 확인을 해 보니까 한국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한 내역이 있어요. 한국 여권으로 출입국을 했기 때문에 그 기관에 그 자료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영국 여권을 썼으면 저희가 알 방법이 없지요. 그러면 장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나서 한국 여권을 썼다는 겁니다, 이 자료를 공식적으로 주는 걸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런 기본적인 출입국 질서도 지키지 않는 가족이 예를 들면 후보자님께서 국제적인 외환 거래 질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 국민들이 그걸 납득을 하실까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이 점을 확인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군대 문제도 있고 그래서 2012년에 제때 국적상실신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따님은 99년에 상실을 하고, 그러니까 2012년에 아드님이 상실신고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해도 지금 15년 가까이 지났는데 따님은 유독 지금까지 국적상실신고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제 불찰입니다. 제가 신속하게……

○천하람 위원 그러니까 불찰이라는 말씀은 이미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따님이 대한민국 내에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도 후보님 말씀을 그냥 믿고 싶은데 아까 전임신 고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후보자님께서 사실과 다른 아니면 불찰이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걸 후보자님 말씀만 듣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른 가족이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 불찰이다, 행정 절차를 잘 몰랐다 그럴 텐데 다른 가족은 두 분이나 상실신고 절차를 해 보셨는데 15년 넘게 이 절차를 안 하고 있었던 말입니다.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합리적으로 뭔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필요한 사정이 있었나 그렇게 상상하시지,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론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보 자료만 주셨는데, 또 들어 보니까 한국은행 측에서 어제 자료 확보한 거고 나머지 부동산이나 청약이나 여권 사용 내역이나 이거는 아직 못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천하람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도 할 텐데, 저는 국민들께서 궁금적으로 궁금하신 건 그런 거라고 봅니다. 지금 따님께서 26년 동안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안 하시고 어쨌든 한국 여권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데 국적상실신고 안 된 건 맞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국적상실신고는 안 했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한은총재로 지명이 되시고 이게 청문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와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걸 공식화하겠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천하람 위원** 후보자님, 이게 자녀에 관한 문제라서 저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러면 장녀가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상실신고 하지 않고 있던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영국 국적을 포기한다든지 그럴 의사는 전혀 없으신 겁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것도 지금 성인이 된 제 딸의 개인 의견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입장을 바꿔 놓고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요 후보자님을 제외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든 고위 공직자든 대한민국의 누군가가 본인을 제외한 다른 가족이 전부 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탈을 했다 그러면 그분의 능력과 별개로 우리 국민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사람을 과연 대한민국의 운명 공동체라고 여길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 나랑 같은 마음으로 다른 생각 없이, 다른 국가의 이익 고려 없이 제대로 대한민국의 운명 공동체로서 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드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따님이나 가족의 국적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도 그게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근본적인 의구심일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제대로 해소되고 있지 않아요. 국적상실신고 제대로 안 됐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 와서 한국 국적 포기하겠다, 행정 절차 밟겠다 이러면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것은 앞으로 모든 의혹이 없이 다 처리되도록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이자** 예, 하십시오.

○**천하람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관련해서 제가 이것은 문제 제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오늘 시작할 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지고 건강보험 관련 자료 또 출입국 내역, 부동산 보유 그다음에 청약 관련 자료 이런 것들을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위원장님께서도 당부를 하셨고 후보자께서도 따님과 연락해서 제출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한국은행 측으로부터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건강보험 관련 자료는 어제 이미 확보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저희 의원실이나 우리 위원회에 미리 이야기하지 않고 위원장님께서 제출을 명하니까 그제서야 마치 오늘 확보된 것인 양 건

강보험 자료는 주시고 나머지 여권 사용내역이나 부동산 보유나 이런 자료들은 시차 때문에 자녀의 동의를 못 받아서 못 주겠다라고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점심 정회 전 정도면 뉴욕 같은 시간인 밤 10시, 11시 이럴 때입니다. 충분히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시기인데 이제 새벽 시간이다라고 해서 시차 때문에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고 오늘 하루만 떼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산 아닌가라고 제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저는 아무리 일정 부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자료로 한국 여권 사용내역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도덕성의 문제다라고 보고. 저녁 정회 시간이 되면 뉴욕도 아침 시간이 됩니다, 아침 6~7시가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가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한국 여권 사용내역, 출입국기록 그리고 한국 내에 부동산 보유내역을 포함한 자녀의 자산내역 이런 것들을 꼭 오늘 청문회 끝나기 전에, 저녁 정회 시간 중에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만 당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후보자님, 천하람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말씀하신 부분 잘 들으셨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리고 제가 정회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출입국기록은 반드시 소명이 돼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사실 오늘 제가 이 청문회를 주재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부분들이 잘 소명되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지고 청문회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하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솔직하게 애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최대한 빨리 동의를 얻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지금 고려대학교 편입 문제하고, 특히 자녀 관련해서는 장녀 관련된 문제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몇 시까지 이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한국은행 측의 인사청문회팀들도 어제 자료가 왔으면 어제 바로 줘야지 그걸 쥐고 있다가 안 주고 오늘 청문회 시작할 때 주고 이것도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나쁜 태도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쉽게 소명되면 청문회가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박수 받으면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나쁜 태도 때문에 청문회가 맥없이 길어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제가 가능한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장녀는 5년 전에 결혼을 해서 등록 제외된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온 회답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제가 보니까 오늘 이 자료 안 옵니다, 천하람 위원님. 이 자료 오늘 중으로는 저는 제출 못 할 거라고 봅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중으로는 이 자료가 못 오니 오늘 양 간사 간에 합의하신 7·5·3 그것을 마치고 천하람 위원이 제출 요구하신 자료를 천하람 위원님께 내일이라도 제출하시고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위원장 임이자 그리고 청문보고서 채택, 간사 간에 합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하람 위원님 의혹이 해소되고 난 후에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청문보고서 채택하는 일정을 잡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팬찮겠습니까?

○정일영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위원장 임이자 예, 하십시오.

○정일영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후보자께서 그 자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결혼한 따님 관련되는 자료 아닌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미국에 있고?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정일영 위원 시차도 있고?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정일영 위원 지금 어떻게 자료가 되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위원장 임이자 오늘 저녁에 안 된다고 봅니다.

○정일영 위원 오늘 저녁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한국은행후보자가 총재로서 채택 승인되고 또 임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제출돼야 되는 자료는 저는 또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문보고서 채택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은, 자료가 제출이 되면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지 그렇게 연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이 가벼이 넘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라든가 전입신고할 때는 후보자께서 직접 자필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위법한 사항이 됐을 때는 이 부분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까 이소영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당한 이득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뿐만 아니고 편입 문제도 그렇고 따님 문제도 그렇고 위법한 것은 아니고 또 부당한 어떤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적도 없다라고 하지만 법의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는 또 그럴 소지도 있다라고 봐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부분이 좀 소명됐으면, 오늘 소명되면 좋겠지요.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천하람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을 가벼이 받아들이 수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내일이라도 이 부분 의혹들을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면 저는 다 깔끔히 정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임이자 예, 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저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하는 부분들은 존중하는데 현실적으로 오늘 저녁까지 외국에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동의서를 보낸다든지, 개인정보에 의해서 바로 여권이라든지 아니면 출입국관리기록이라든지 그다음에 건강보험 관련한 자료라든지 이것은 동의가 필요한 사안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한 시간 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렇게……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위원장 임이자 아니아니, 그런 얘기 아닙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저는 제출을 받고 실제로 사실은 그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본래 취지는, 건강보험에 대한 자료 요청하는 것은 한국 국적자가 아닌데 건강보험을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거 확인하면 되지요.

두 번째, 한국 국적이 아닌데 한국 여권을 이용을 했냐 안 했냐 이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위원장 임이자 그 얘기입니다.

○천하람 위원 저도 그 얘기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게 그것을 자료를 내라고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없는 자료를 어떻게 냅니까?

○위원장 임이자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금 중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요구 사안인데 만약에 건강보험 공단에서, 그 사람이 국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없잖아요. 없는 것을 어떻게 제출하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저는 맞게끔, 제가 보기에 는……

○위원장 임이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는 제출했고……

○김영진 위원 아니, 맞게끔 요청을 해야지 그 자료가 오지 존재하지 아니하는 자료를 하라는 것은 안 맞는 거고.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저는 위원장님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부분과 내용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임이자 아니, 제가 했잖아요.

○김영진 위원 그리고 후보자한테 물어보고,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위원장 임이자 아니, 지금 했잖아요. 제가 조정했잖아요.

○김영진 위원 아니, 후보자가 정말 건강보험공단에……

○위원장 임이자 그거는 왔다고요.

○김영진 위원 없잖아요.

○위원장 임이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천하람 위원님.

조정 다 해 놔는데 왜 그래요, 김영진 위원님. 다 정리했는데.

○천하람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제가 없는 자료 달라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 국적상실 신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행정망에는 전부 후보자 장녀가 다 내국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자료도 있는데 이거를 실제 어제 후보자가, 한국은행 측에서 확보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오전에 회의 시작할 때부터 달라 그랬는데 어제 받아 놓은 자료를 오늘에서야 방금 얼마 전에 준 겁니다, 조금 전에.

그러니까 이미 어제 받아 놓은 자료를 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의사진행발언하고 자료 요구해서 달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주냐, 그게 일단 첫 번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출입국 내역, 한국 여권 사용 내역도 다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자료 다 있고요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후보자 장녀가 '동의한다' 말 한마디만 해 주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뉴욕 시간이 이제 새벽 5시거든요. 그러니까 '동의한다' 말 한마디 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이걸 제가 지금 바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 청문회 시작할 때부터 그 동의 좀 받아 가지고 내 달라 그러고 후보자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무리하 요구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태호 위원 당사자가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이자 당사자가 동의를 안 하면 못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우리 중앙은행의 총재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위원들의 어떤 자료제출 요구가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이소영 위원님이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재산상의 이득이라든가 이런 걸 취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면 뭐 동의 못 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중으로 저는 이 자료가 제출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천하람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내일 중으로 오면 천하람 위원님한테 그 자료라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천하람 위원님이 이의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가 협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 채택 관련해서는 양당 간사가 합의해 주면 하는 거고 양당 간사가 합의가 안 되면 청문회 채택은 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어찌 보면 굉장히 가벼운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중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정태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 후보자께서 자료제출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자료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임이자 그렇지요.

○정태호 위원 지금 뉴욕은 새벽 3시 58분, 4시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결혼한, 독립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자녀인데 후보의 한국은행총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하등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거를 가지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과 연결시켜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간사들끼리 협의해라라고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보께서 자료제출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인사청문회의 결과보고서 채택과 연결시켜서 간사끼리 협의하는 거는 맞지 않고 그래서……

○위원장 임이자 어차피 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니까……

○정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장 임이자 두 분이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천하람 위원님께서……

○정태호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위원장 임이자 그래요? 얘기하십시오.

○정태호 위원 그래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어차피 간사끼리 협의를 하는데 마치 이것이 조건인 것처럼 위원장님께서 전제로 하시는 거는 저희들한테 너무 큰 짐을 부여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간사들끼리 잘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제출한다고 하신 거예요, 얘기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연락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후보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아닙니다.

○정일영 위원 그걸 명확히 하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위원장 임이자 그쪽하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후보자님.

발언권 얻어 가지고 질의하시고요.

○정일영 위원 발언권 잠깐 줘 보세요. 제가 질의……

○위원장 임이자 정리할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아니, 중요한 거라서 그러는데……

○위원장 임이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양당 간사 간에 오늘 합의해 준 질의시간은 7·5·3분입니다. 그리고 7·5·3분을 우리가 해내는 과정 속에서 뉴욕 시간과 타임이 안 맞습니다, 지금 이 서류를 우리가 제출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태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 간에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자료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파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청문회를? 저는 청문회, 우리 위원회를 파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인 측면을 내일, 내일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내일 가능하기 때문에, 또 후보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중으로라도 출입국기록 관련해서 본인동의서만 있으면 되니까, 또 만약에 오늘 후보자님께서 나는 하겠다라고 했지만 내일 자녀가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중앙은행 총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자녀들 간에도 다 저는 양해가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 지금 보니까 큰 도덕적인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걸 굳이 안 하실 이유는 없다. 그래서 부동산 보유

는 이것도 엄연히 독립된 자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후보자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일까지 천하람 위원님하고 조정해서 서로 얘기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당 간사님께서도 오늘 청문회가 종료되고 나면 보고서 채택할 때에 천하람 위원님의 의견도 개진하시라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박수영 위원 예.

○위원장 임이자 천하람 위원님 됐지요?

○천하람 위원 예.

○위원장 임이자 후보자님 됐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됐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정태호 간사님 됐지요?

○정태호 위원 예.

○위원장 임이자 다음은 국민의힘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 후보자님, 한국은행 총재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금 맡길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동안 후보자님이 주로 외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국내에서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베일에 쌓여 있다는 거지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리고 여러 가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많아요, 후보자 본인의 신상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그런 자료요구에 대해서 다른 후보자들과는 달리 더 적극적으로 다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적극적인 소명 의지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한국은행 총재로서 신현송 총재 후보자, 국민들이 상당히 궁금한 부분 중의 하나가 현재 금리 수준에 대한 후보자의 어떤 견해를 상당히 좀 궁금해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부 국민들은 금리가 참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건 부담이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또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가 낮은 수준이다 이런 평가도 있고, 전반적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통화 정책을 수행할 때는 경제 전반을 감안해야 되고 인플레이션을 주로 주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대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또 근원물가로 2차 파급효과가……

○윤영석 위원 아니, 현재. 미래를 가정하지 마시고 현재 수준 말이에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현재는 이렇게 길이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한쪽 길은……

○윤영석 위원 좀 추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약 36개월 동안 지금 한미 간 금리가 역전돼 가지고 우리 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상황이잖아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게 30개월 이상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의 경험을 보면 일시적으로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났지만 대체로는 같거나 아니면 한국 금리가 높은 수준이 오랫동안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수준이 상당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통화량 증가도 미국에 비해서 최근 3년 동안 보면 거의 5배 수준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지금 통화량이 많이 증발이 되었고 그런 연유로 해서 가계부채도 지금 많이 늘어났고 또 부동산 가격도 많은 상승을 했고 우상향 계속 해 왔지요. 그다음에 환율도 불안하고 이런 상황인데 뭔가 금리에 대한 이 부분이 확실한 어떤 소신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통화정책을 운영할 때 경제 상황에 맞게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금리 수준 자체는 현재 불확실성을 다 감안해서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중동 사태가 더 장기화되면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조짐이 있으면 통화정책을 써서 금리를 올려야 될 것으로……

○**윤영석 위원** 적정 수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숙고와 또 연구와 같이 협의·검토를 통해서 과연 적절한 수준이 어디인지 숙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현재 물가도 상당히 지금 상승 요인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환율 상승에 따라서 그런 수입 물가의 상승, 또 원자재 가격의 상승…… 여러 가지 지금 상승 요인이 있는데 물가를 정확하게 CPI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OECD 한 19개 나라가 집값 상승분을 물가 CPI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이걸 반영을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월세나 이런 거는 반영을 하고 있지만 자가 주거비 이런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포함할 경우에는 현재 물가보다 2023년의 경우 한 1.65% 이상 높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분석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 차제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거기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CPI를 측정하는 목적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자가, 실제로 국민이 느끼는 어떤 부담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주거비도 포함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주거비를 포함을 함으로써 CPI 자체가 아주 변동성이 커지면 그러면 오히려 CPI의 신호 가치, 신호 가치가 많이 훼손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좀 신중하게 아마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영석 위원** 그러니까 집값이 CPI에 반영이 안 됨으로써 물가가 낮은 것처럼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다 보니까 결국은 가계부채 문제 또 부동산 가격의 우상향, 환율 불안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임계치에 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적정 수준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가 주거비에 대한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한국은행의 어떤 입장을 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 후보자님, 하루 종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3월 말, 4월 초 이럴 때 수정 전망치를 내놓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박수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프에서 보시면 IMF하고 OECD하고 ADB 등등등 수정 전망치를 다 내놨는데 이 전망치를 보시면 성장률은 그대로거나 아니면 좀 낮추어서 전망을 했고 아시는 것처럼 물가상승률은 전부 더 많이 물가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전망치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사실 프랑스 어떤 전망치는 보니까 물가상승률을 4.2%까지 전망한 기관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아무튼 실질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 밑으로, 물가상승률은 또 2% 후반대 내지 3% 정도까지, 4%까지 예측하는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면 성장률은 올리겠지만 물가는 더 올라갈 것이고요. 그렇다고 또 한은에서 긴축적 통화정책을 쓰시게 되면 성장률에 또 데미지가 갈 수가 있는, 물가는 잡겠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이 돼 있는데 후보자님께서 총재가 되시면 이 어려운 상황,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두 마리 토끼를 다 못 잡을 경우에는 한 마리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어떤 딜레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양분화된, 그러니까 택1의 그런 선택이 아니고 적정 수준의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의 안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수영 위원 모범적인 표준 답안이신데요. 현실에서 보면 한은은 아마 물가를 더 잡으려고 들을 가능성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호주는 3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한 번 했고요. ECB도 인상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한 번 나왔는데 우리도 이제는 금리인상도 한번 검토해 봐야…… 물가가 점점 너무 올라가고 아까 민생물가, 짜장면 1만 원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박수영 위원 어려우니까 좀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실 거고요.

그런데 4월 금통위가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잘된 결정이었다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어떻게 보냐 하면 6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한은이 몸을 사린 것 아니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경기가 위축되고 그게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몸을 사린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한 기사도 있었는데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은이.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박수영 위원 그렇지만 최소한 포워드 가이드스 정도라도, 다음번에는 인상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포워드 가이드스 나왔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물가 때문에 고생하는 민생이 너무 걱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없어서 안타까운 상황인데 혹시 후보자님이 총재가 되시면 정권 눈치, 정치 눈치 이런 것 안 보고 그동안 쌓아 오신 전문성, 학자로서의 양심과 경륜, BIS에서 쌓아 온 경험 이런 것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한은의 독립성 이것 침해되지 않도록 잘 유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잘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환율 질문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슬라이드 바꿔 주세요.

지난 정부의 평균 환율이 1344원이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평균이 1430원, 약 100원 정도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서면답변을 제가 요구했더니 전쟁 때문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사실 전쟁 이전에도 상당히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걸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지속적으로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원인은 뭐라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아침에도 말씀드린 대로 좀 구조적인 면도 있고 또 아주 단기적인 금융 무위험 회피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이게 5분 단위의 환율 변동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수직으로 떨어진 선들이 여러 개 보이실 겁니다. 이게 실탄으로 개입을 했다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은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얼마 정도 쓴 걸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2월하고 3월 외환보유고 차액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으면 한 40억 불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것은 수탁 개념은 그럴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외환보유고가 제일 많았던 때가 작년 11월이고 그때에 비하면 70억 달러가 우리가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표 한번.

환율 안정에 투입하는 금액들이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외환보유 감소분이 최대였던 작년 11월에 비하면 70억 달러가 줄었고 그사이에 외평채를 추가로 30억 불 발행을 했었고요. 외환보유액 이자수익이 1년에 200억 정도 난다고 했고 6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절반 정도 그리고 국민연금의 환해지 비율을 올린 게 있기 때문에 최소 200억 달러 플러스알파 정도는 투입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침부터 지금 답변하실 때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구조적인 부분에 노력을 해야지 외환보유고를 실탄으로 써서 순간순간 내리는 노력, 아까 수직으로 떨어진 직선을 총재님이 부임하시면 이런 실탄 낭비 말고 구조적인 노력에 좀 더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자꾸 구조적이라는 얘기만 하시고 그 구조적인 노력이 무언가에 대한 얘기는 안 하셨어요. 시간 드릴 테니까 구조적인 대응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오늘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포트폴리오 자본 유출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투자자의 해외자산 매입 그런 자본 유출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하나의 과도기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만약에 과도기적인 그 과정이 끝나면 다시 환율도 좀 안정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수영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좀 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정태호 위원** 국정과제 48번입니다.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해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관련 이용자 보호, 글로벌 정합성, 통화·외환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를 신속히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속히 마련한다라는 데 저는 방점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동의하시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정태호 위원** 그런데 보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후보자 입장은 오늘 모두발언에서 CBDC와 예금토권의 활용도를 높이고 스테이블코인은 보완적·경쟁적으로 공존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셨는데……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데 기존에 화폐의 단일성 유지 문제라든가 디페깅과 코인런 문제 또 자본유출의 통로가 되는 문제 등등 소위 말하는 스테이블코인의 리스크 요소들을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이런 리스크하고 지금 입장을 어느 정도 스테이블코인을 찬성하는 입장으로 바꾼 것과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디에 방점이 있는 건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가장 중요한 명제는 통화제도 자체가 중앙은행의 신뢰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명제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통화제도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 차이가 없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좀 보완적인 역할……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에 따라서 사용 목적, 특히 국경 간 거래라든가 가상자산으로 향하는 관문의 역할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스테이블코인이 아주 적합하게 잘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원화와 스테이블코인이 만약에 제대로 정착을 한다고 그러면 기존의 통화제도 내에서 보완적 또 경쟁적 역할을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태호 위원** 여하튼 보완적 공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데 스테이블코인 도입 방안에 대해서 사실은 작년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부터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고 그것이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이 돼서 일부 정부안의 컨센서스가 있어요. 뭐냐 하면 발행 주체는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 그러니까 은행권 50% 플러스 1주 컨소시엄이 발행 주체가 되고 그다음에 발행을 허가하는 주체는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등으로 구성되는 기관이 만장일치로 허가를 하는 구조, 이 구조인데 이런 컨센서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동의합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면 이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는 제도, 규율 이런 것은 신속히 만들어 낼 수는 있겠네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정태호 위원** 기본적인 방향은 정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데 한편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안대로 가면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혁신이나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연될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알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이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일단은 각 기관의 특성을 살려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중요한…… 특히 외환거래 규정이 있는 한국에서는 고객확인업무라든가 또 자금세탁방지법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고객확인업무에 특화된 은행 부분이 가장 잘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또 반면에 혁신에 대해서는 핀테크 기업들이 더 분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바로 컨소시엄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모순이 없다고 봅니다. 고객확인업무도 확인업무대로 하고 또 혁신도 하고, 전혀 모순이 없다고 봅니다.

○**정태호 위원** 저는 결국은 신속 도입에 초점이 두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디지털 자산의 생태계 혁신과 확산이라는 이런 점도 동시에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국회에 8개의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발의가 돼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한국은행이 주도가 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논의가 한 1년 정도 됐는데 전혀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취임을 하시게 되면 이 문제도 빨리 정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2차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분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테이블코인이나 CBDC 그런 것은 나중에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내부 문제 서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한은 직원들이 열심히 땀 뭇쳐서 일해야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정일영 위원 후보자께 내부 직원들이 원하는 1순위가 뭐예요? 뭘 해 주기를 원하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한은 직원으로서의 자긍심 또……

○정일영 위원 자긍심?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정일영 위원 이삼십대 퇴사가 줄퇴사, 얘기 들으셨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정일영 위원 작년하고 재작년에 몇 명이나 퇴사했지요, 이십대, 삼십대 직원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일영 위원 확인 못 하셨나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정일영 위원 한 27명, 제가 작년 자료는 아직 안 받았는데 한 30명 가까이 되더라고 요. 이게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게 원인은 제가 볼 때 첫째는 자긍심,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 역할과 권한, 기능이. 제가 볼 때는 미국 연준이나 영국의 영란은행, 중국의 인민은행, 일본은행, 캐나다는행에 비해서 우리 한국은행이 기능이 약해요, 권한도 부족하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런 부분보다도 아무래도 급여가……

○정일영 위원 물론 급여는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급여는 급여고.

일단 제가 한국은행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국민들이 한국은행에서 뭐 하나 생각하면 금리, 금통위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사·연구기능. 웬 조사·연구기능이 중앙은행에서 그렇게 많은지, 지역에 있는 한국은행 지역본부들도 마찬가지고.

진짜 다른 나라,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나라들 보면 고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안전 문제에 많은 기능과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행 직원도 총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국회하고 협의한다든지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그런 것을 좀 더……

사람이 일하는데 돈만 가지고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 본연의 기능을 찾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시중은행에 비해서 연봉이 적더라고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적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예대차, 금리차 등등으로 해 가지고 요즘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받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한국은행이

그것보다 적으면 또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자긍심 문제, 권한 문제, 직원들의 급여 문제 이런 것을 모두 합해 가지고 한국은행의 기능을 강화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는 그것을 총재로 취임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으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우선 내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조사·연구기능도 계속 많이 하실 거예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조사·연구기능도 필요한 만큼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일영 위원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또 논의하고요.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의 기능, 권한 이것을 외국 선진국의 중앙은행들과 비교해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에도 가져오시고요. 저하고도 얘기 좀 하시고, 직원들 급여 문제도 방법을 찾으시고.

저는 한국은행의 예산을 재정부에서 승인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좀 바뀌야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알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권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위원 권영세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기본소득은 얼마나 지속되고 또 그 규모, 그런 것을 다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제가……

○권영세 위원 지금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따로 없지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권영세 위원 실험을 했다가 포기한 나라들은 좀 있지만.

그런데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당장 하자고 그러면?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기본소득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3T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게 계속 지속이 되는 건가 아니면 한시적인 건가……

○권영세 위원 그런데 기본소득 얘기하신 거에서 템포러리(Temporary)도 아니고 그다

음에 타겟티드(Targeted)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권영세 위원 그러니까 그거 안 맞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권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지역화폐도 이제 준재정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역시 거기다 같은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래서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것도 그 규모와 그 디자인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 얘기는 좀 적게 하는 건 상관없는데 많이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나 이런 얘기인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것보다도 이제 그 목적과……

○권영세 위원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규모도 규모지만.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러니까 지역화폐라는 게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좌우될 것 같은데요.

○권영세 위원 석학이신데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권영세 위원 제대로 대답을 안 하시는데……

지금 GDP 대비해서 국가채무비율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그게 큰 의미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시지요. 경상수지가 어떻게 되고 성장률이 어떻게 되고 또 채무의 증가하는 속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비율의 크기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창용 총재는 물어보니까 한 80% 정도가 우리나라 같은 비기축 통화국 경우에는 임계치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IMF도 왔다 갔다 하는데 한 60% 정도로 보는 것 같고.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경제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신흥국이나 또 개발국 하고는……

○권영세 위원 우리는 신흥국 범주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신흥국은 좀 벗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흥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번에는 좀 넘었지만 선진국은 아직 안 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어떤 면에서는 선진국 기준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권영세 위원 그게 몇 %입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래서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정확한, 그러니까 어떤 우려가 생겨서 우리가 그 수치를 보는가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권영세 위원 30초만 더 주세요.

○위원장 임이자 1분 주세요.

○권영세 위원 한은 운영하시려다 보니까 이렇게 딱부러지게 얘기하기가 좀 우려스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우리 청문회에서 답변을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국가부채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속도는 지금 한국은 국가부채가 GDP 대비 한 50%로서 수준은 상당히 낮지만 그 증가 속도는 상당히 빠른 속도인 것 같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좀 걱정해야 될 부분이네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권영세 위원 별로 없어서 그냥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총재후보님께서 답변이 매우 신중하십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후보자, 장녀 문제가 계속 지금 제기가 되는 이유가 말이지요 2012년이 지요, 국적 상실한 게. 지금 그 이후에 한국을 여러 차례 오가곤 했지 않습니까? 다녔지요, 한국을 여러 차례?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아주 오래 있는 적은 얼마나 됩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제 아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박대출 위원 아니, 따님이요, 장녀. 2012년에 국적 상실한 뒤에……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딸은 99년도에……

○박대출 위원 그게 21살 때거든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99년도에 국적 상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신고는 안 된 상태고요. 제 딸은 한국 방문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여러 번 있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박대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외국 신분이라서 한국에 들어올, 출입국을 하는데도 그 신분으로 따님은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박대출 위원 그런데 2023년에 후보가 전입신고를 허위로 한 그게 과실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잖아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딸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가 직접 가서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박대출 위원 그러면 한국 국적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 외국 국적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런 것이 아니라……

○박대출 위원 그게 없으면 왜 가서 일부러 수고를 드는 일을 하지요, 아버지가 가서?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현재 주민등록표를 보니까 거주불명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주불명자라는 딱지를 떼기 위해서……

○박대출 위원 그러면 거주불명자인데, 국적상실신고를 늦었더라도 하면 될 건데 그것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생겨나 버리고 그게 결국 불법 논란까지 이어진 거다 이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먼저 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한……

○박대출 위원 거주불명자라는 신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질러진 일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거주불명자를 해소하기 위한 불찰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음 질문 가기가 좀 그러네……

○위원장 임이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통화 스와프 문제 질의를 한번 할까요?

○이소영 위원 원칙 있게 진행해 주시지요, 질의시간 3분인데. 다 이렇게 하면……

○박대출 위원 그러면 또 다시 추가 3분을 할게요, 마치고.

○위원장 임이자 1분으로 마치시지요.

○차규근 위원 1분으로 마쳐 주시지요.

○박대출 위원 그럴까요? 좋습니다, 어느 거든지.

후보자가 서면답변에서 ‘통화 스와프가 활용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언급하신 것 맞으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해요. ‘한미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대통령의 처방은 통화 스와프를 하거나 만일에 통화 스와프를 안 한다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의 현금 투자를 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다면 외환위기 상황에 처할 것이다. 그러니까 외환위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맞지 않으려면 이 두 가지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후보는 통화 스와프가 필요 없다라는 점에서 통화 스와프에 대한 인식이 대통령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경제 석학 얘기가 저는 맞는 것으로 봐지는데, 다르다는 부분은 아시겠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마지막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박대출 위원** 이 말의 취지는, 대통령 말씀의 취지는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후보의 서면답변에 통화 스와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다릅니다, 인식이, 진단이.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아마 대미투자 문맥에서 그런 논의가 진행된 것 같은데요. 대미투자는 최대 200억 달러 그리고 필요시 유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일단 합의가 됐고 또 그런 식의 대미투자는 외환 상황을 크게 악화시키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외환 스와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외환 스와프를 하나의 도구로 삼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환 스와프라는 것은 중앙은행 간의 아주 중장기적인 협약이고요. 그것은 제도의 발전과 직결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통화 스와프를 하나의 단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출 위원** 그 진단……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박대출 위원** 알겠습니다. 대통령 진단하고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후보자님!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박성훈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경제부총리께 한미 통화스와프를 우리가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안 해 주는 것인지를 물어봤더니 부총리께서 ‘우리는 하고 싶으나 미국이 해 주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답변을 했습니다. 분명히 지금 후보자의 생각과는 배치되는 발언이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준의 생각은 통화스와프가 가장 필요한 시기는 전 세계적인 달러 유동성 과동이 있을 때, 유동성 과장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그 여파를 맞는 그런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달러 스와프를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후보자님, 유동성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시중에서는 한은의 유동성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경제규모보다 유동성이 더 많이 공급이 되고 있다. 물론 이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GDP라든지 금리라든지 물가라든지 또는 금융구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 보실 때 지금 시중 통화량이 절대적 규모와 증가 속도로 나뉘어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 절대적인 규모는 금융제도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한 수준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증가율도 한국이 M2 증가율이 한 4.5%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게 높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질문에 대해서 통화량과 또 금리차, 어떤 게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메커니즘을 감안했을 때는 통화량보다는 금리차가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훈 위원** 후보자님, 한은이 작년 10월 달에 ETF 등 수익증권을 M2 기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10월 이전에 9월 기준으로 하게 되면 당시에 M2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국이 8.5%, 당시 미국을 찾아보면 4.5%입니다. 2배를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결국 GDP 대비 M2 비율로 당시 기준으로 따져 보면 한국이 150%를 넘고 미국은 70% 수준이라서 경제규모 대비해서 약 2.2배 우리가 더 통화량이 많다는 통계를 알 수 있고요.

또 M2 증가율만 따져 보더라도 원래 명목GDP 증가율과 M2 증가율이 유사하거나 같은 게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제가 찾아 보면 바뀐 기준에 의하더라도 한국이 한 1%p는 더 높은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한국이 이미 과잉유동성 구간에 진입한 게 아니냐라는 금융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산가격 상승이라든지 인플레이션, 특히 환율 급등에 한은의 과잉유동성 공급이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물론 부동산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자산가격 상승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M2 정의에 대해서는 원래 취지가 이것은 좀 넓은 의미의 화폐, 넓은 의미의 통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예전에는 주식 ETF도 M2에 포함되었던 그런 어떤 시대착오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기준을 바꾼 것은 바로 그런 괴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꾼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유동성이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내생요인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유동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여러 경제적 변수도 같이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과잉해서, 유동성이 너무 높아서 환율이 올라가고 또 자산가격이 올라간다 하는 그런 이론은 불완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설명한다는 것은 좀 불완전한 것 같습니다.

○박성훈 위원 10초만 더 주시면 답변만 좀……

○위원장 임이자 1분 주십시오.

○박성훈 위원 시중 통화량이 적정한지 절대적 규모와 증가 속도에 대한 답변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후보자님의 소신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지금 M2의 통화량 자체는 전년 대비 4.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명목 GDP와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제도가 그렇게 바뀌면서 항상 발 맞춰 가지 않을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M2에만 이렇게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여러 지표를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 후보자님,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차규근 위원 결혼 기피, 저출산, 지방 소멸, 양극화 그 원인을 뭐라고 후보자님은 진단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간단하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규근 위원 후보자님, 지금 현재 이창용 총재가 한은총재 재직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 관련해서 리포트를 많이 발간을 했습니다. 제작년에도 이것 관련해 가지고 그 원인을 수도권 집중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극 5특, 여러 가지 국가균형발전, 행정통합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왜 추진하고 있는지 다 아시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차규근 위원 동의하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수도권 집중이야말로 한국의 아주 구조적인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차규근 위원 동의하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차규근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 해결, 주거 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수요 억제, 공급 확대도 있습니다만 수요 분산 정책이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는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행정수도 조기 이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임기 말에는 세종 집무실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천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사법기관이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꼭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는 대법원을 지방으로 보내는 법안이 8~9개 정도 발의가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지방으로 보내는. 이런 사법기관의 수요 분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양극화가 여러 가지로 진행되는데 지역 간 양극화가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규근 위원**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한국은행……

○**차규근 위원** 독일 같은 경우도 행정수도인 베를린이 아닌 대법원이 600km 떨어져 있는 카를수르에라는 도시에 있고요. 다른 연방 관련된 전문대법원들도 지방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골고루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대법원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 부동산 문제 해결에,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쉽게 한번 답변해 봐 주십시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수도권 집중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또 그걸 해결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규근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딱 부러지게 답변을 안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담대 위험가중치가 기업 대출의 3분의 1에 불과하지요. 알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차규근 위원** 이 부분 좀 상향 필요성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택담보대출 상향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하고 부동산으로 집중된 자금을 기업 투자, 혁신 분야로 유도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이 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주담대 위험가중치는 우선 바젤Ⅲ 그런 체제하에서 신용리스크를 측정할, 신용리스크를 기준으로 한 그런 가중치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대출 자산이 부실로 이어지는 확률이라든가 또 그 정도 그것을 감안한 건데 가중치를 통한 이런 미세 조정보다는 오히려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서 대출 자체의 큰 틀을 이렇게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규근 위원** 두 번째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두 번째……

○**차규근 위원** 부동산으로 집중된 자금을 기업 투자, 혁신 분야로 유도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은 무엇인지.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이 문제는 생산적 금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부동산 집중식의 금융제도가 아주 폐단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장 잠재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이게 많기 때문에……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동의합니다. 이렇게 생산적인 목적으로 금융의 방향을 돌려야 된다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차규근 위원** 구체적인 답변을 원했는데 여하튼 오늘 인사청문회 자리이다 보니까 후

보자님께서 상당히 답변을 추상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오늘 제기된 아까 기후금융의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 해결에 있어 가지고 임명이 되신다면 좀 더 적극적인 역할,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 위원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오신 것 중에서 3대 현안 중에서 하나가 양극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래서 그 양극화 중에 가장 양극화를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세대가 대한민국 청년들입니다. 그 청년들이 보통 요즘 말대로 3포 세대라 하는데……

후보자님, 3포 세대가 뭔지는 압니까? 뭐 뭘 포기한 거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세 가지를 다……

○이인선 위원 예.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세 가지를 포기했다는 거군요.

○이인선 위원 예, 그렇지요. 세 가지 포기한 게 맞는데요. 연애하는 거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입니다. 그런데 이것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자산이 양극화가 되니까 결혼해서 집을 마련하기 어렵고 아기를 낳아야 되고 하는데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이 2배가 넘게 올라서 청년이나 근로자 근로소득 가지고 근접할 수 없어서 굉장히 실망했는데 지금 역시 또 이재명 정부에 와서도 가계대출을 관리한다면서 부동산 정책으로 대출을 좀 옥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지역도 지정하고 대출한도도 제한하고 LTV 규제로 우리나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이 굉장히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은 K니콜라, K헨리, 프랑스나 미국의 청년을 빗대어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꼬박꼬박 연금을 내는데 나중에 우리가 받을 연금은 고갈된다, 미래가 불안하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 제가 청년정치연수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청년들과 많은 대화를 하는데요. 그 대화 중의 어저께 온 대화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자녀 중에서 어쨌든 16세 때 군대를 가지 않은 부분……

그런데 후보님은 군대를 가셨잖아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런데 자녀가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국적을 포기할 때 어떤 코멘트를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은 어쨌든 이 자녀가 지금 본인은 군대를 안 갔는데 방산기업 ETF에 1300만 원 정도의 이득이 났다는 것으로 조금 분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청년들은 그러면 우리는 흙수저고 후보자의 자녀는 다이아몬드수저냐 이런 자조 섞인 얘기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정책은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채 자체가, 규제로 가계대출을 이렇게 옥죄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한·하한을 잘 봐 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정책의 방향이 1도만 틀어져도 나중에 가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후보자님께서 유의해 주시고요.

아무튼 지금 굉장히 어렵게 이겨 나가고 있는 청년들의 손을 잡아 줘야만 가장 문제가 되는 저출산 인구 정책에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1분만 주세요.

○위원장 임이자 예.

○이인선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녀가 군에 가지 않고 국적을 포기할 때 아무런 코멘트 안 했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위원님, 제 아들은 영국에서 태어나서 계속 영국과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로서, 제가 아버지로서 그 의사를 존중하고 그렇게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때는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은 아주 최고 수장의 공직자가 되는 이 시점에는 그래도 이재용 회장 자녀처럼, 엘리자베스 2세 공주 때 간 것처럼 군대를 가라 했으면 좋았겠다 생각을 하지 않으시나요?

그건 뭐 어쩔 수가……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 당시에는 제 아들의 의사를 존중했습니다.

○이인선 위원 하여튼 우리 청년들에 대한 사다리가 치워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혁신당의 천하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후보자님, 아까 환율 문제에 관해서 답변하시면서 자본유출이 되는 포트폴리오의 문제,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자꾸 달러 기반 자산으로 무게추를 많이 옮기는 그런 현상을 지적하셨는데 2025년에 보니까 화폐의 신뢰와 관련한 논문을 쓰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영어로 돼 있긴 한데 여기서 얘기를 보니까 ‘화폐에 대한 신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속가능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쓰셨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그렇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러면서 지속 불가능한 재정 상황이 있게 되면 국내 보유자들은 대체적 화폐수단, 특히 미 달러화로 이동할 수 있다, 화폐에 대한 신뢰가 위협받을 수도 있는 건 이런 맥락에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같은 생각이시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천하람 위원 제가 이 논문을 발췌하면서 봤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는데 오늘 답변에서는 그런 게 사실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아닙니다. 오늘도 같은……

○천하람 위원 같은 생각이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같은 생각입니다.

○천하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하신 거를 보면 달러인덱스와 우리 환율을 보더라도 지금 원화의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내외 투자자들이 보기에 대한민국

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과거에 비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은 먼 미래를 봤을 때……

○**천하람 위원** 저도 어떤 개념인지 알고는 있습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특히 중앙은행이 국채를 직접 매입해 가지고 만약에 부실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곧 중앙은행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작용을 스스로 합니다.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서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천하람 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국가부채 비율 100%p 넘겨도 문제 안 생긴다, 평범한 나라들은 GDP 대비 부채율이 평균적으로 110%p를 넘는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타당한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저 특정 수치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선진국들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독일을 비롯해서 미국, 일본, 다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데 사실은 국가부채 비율이 100%p를 넘어가는 국가들은 지금 OECD에 8개가 있던데 이게 대부분 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팩트가 틀렸고 또 이 8개 나라 중에 7개 나라는 기축통화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기축통화국 중에 지금 이 정도로 100%p를 넘기는 국가는 사실 거의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제 얘기가 맞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신흥국이라든가 비기축통화국에서 100% 정도 수준을 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천하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국민의힘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 후보자님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한국은행이 법인세를 냅니까, 안 냅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법인세를 냅니다.

○**박수영 위원** 얼마 정도 냅니까? 작년에 얼마 냈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작년에……

○**박수영 위원** 잘 모르시지요? 5조 4000억 정도 냈습니다.

세율은 그때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24%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맞습니다. 작년에 24%, 올해부터 2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 서면답변 주셨는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답변이 바로 이 법인세 관련입니다. 실제 법인세수는 법인세율뿐 아니라 경기 상황, 기업이익 등에 따라 달라진

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예,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구윤철 부총리한테 얘기를 했는데 구윤철 부총리는 아니라고 계속 부인을 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경제정책 해 가시면서 소신을 바꾸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라든지 우리 후보자님이 쓰신 논문을 보니까 좋은 논문들이 참 많은데 그 논문에서 말씀하셨던 소신, 학자로서의 소신을 꺾지 마시고 구윤철 부총리와 F4 회의에서 만나든 어쨌든 간에 본인의 소신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강조해 주셨고, 국가 채무가 너무 빨리 올라간다 이런 것도 말씀하셨고 또 3T 말씀하셨잖아요, 재정 정책의 3T. Temporary, Targeted, Tailored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다 옳은 말씀인데 문제는 그 3T가 고무줄처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시는 후보자님 같으면 3T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발언들을 좀 주셔야 된다. 물론 재정 정책이 한은총재의 역할은 아니지만 F4 회의라든지 또 계기가 있을 때마다 제대로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들어 보기에는 청문회 자리라 그런지 너무 조심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섞어서 막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노벨경제학상 받은 Galbraith 교수한테 특강을 들은 일이 있는데 3시간 하기로 했는데 모든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이 너무 촌철살인으로 짧게 나와 가지고 1시간 만에 마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하신 것은 아무래도 인사청문회장이라는 것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혹시 총재가 되시면 제대로 목소리를 내 주시기를 정말 정말 간절하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석유가격 때문에 저희가 이재명 정부에서 최고가격제와 공공기관 2부제라는 걸 적용하고 있거든요. 영국에 오래 사셨고 미국에도 오래 사셨고, 유가 문제가 생길 때 최고가격제나 공공기관 2부제 같은 제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가격제 자체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국제기구에서 제안하는 하나의 원칙은 가격을 통해서 그 충격을 완충하는 그런 수단은 한시적으로는 물론 할 수 있지만 아주 오래 지속이 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입장입니다.

○**박수영 위원** 끝까지 소신을 견지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이자** 후보자님 그리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후보자 신현송**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한국은행총재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와 앞으로 통화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유념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유익한 말씀을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진솔하게 답변드리려고 노력하였지만 충분치 못한 부분이 많았을 줄로 압니다. 이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면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한국은행총재로서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충심 어린 조언을 마음에 새겨서 위원님들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이자 신현송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의 직무수행 역량과 도덕성 등 적격성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검증을 실시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통화신용 정책 및 물가안정과 관련하여 후보자는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현 상황에서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경제성장 정책과의 조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금융 및 경제 정책 전반과 관련하여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금융안정 기능 확대, 양극화 해소, 고용안정 및 기후 리스크 대응 등 한국은행의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고환율 상황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에 대해서는 다소 안일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국제적 경제학자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국내 거주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국내 경제 현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준법성 및 도덕성과 관련하여 외국국적 자녀의 국적 상실 미신고, 위장전입, 가족 간 부동산 거래 부적절성, 외환자산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 학적 관리 문제 등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국적 상실 미신고 자녀에 대한 국내 법률 위배 문제 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은 출입국 기록 내역, 부동산 등 국내 자산 여부 등에 대한 자료는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의혹 해소를 위해 후보자가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위원장이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후보자는 통화신용정책, 금융 안정 및 외환시장 등 중요 현안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가계부채 관리 및 미래 통화 수단 등 중요 과제에 대한 대응 의지를 보였습니다. 다만 물가, 환율 등 일부 현안에 대한 인식의 적절성과 준법성 및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박대출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이인선 위원님, 진성준 위원님, 차규근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조승래 위원님, 권영세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서는 양당 간사님들의 협의가 완료되면 의사일정을 잡아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들께서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위원님과 개혁신당 천하람 위원님의 의견도 잘 경청해서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검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신현송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산회)

○출석 위원(23인)

권영세 김영진 김영환 김태년 박대출 박민규 박성훈 박수영 안도걸 오기형
유상범 윤영석 이소영 이인선 임이자 정일영 정태호 조승래 조인철 진성준
차규근 천하람 최기상

○청가 위원(3인)

안규백 정성호 최은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임명현

○출석 공직후보자

신현송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이형일

【보고사항】

○의안 회부

토지초과이득세법안

(2026. 4. 8.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8.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8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8.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8.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9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8.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8.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97)

이상 6건 4월 9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9.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9.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9.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14)

이상 3건 4월 10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0.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0.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0.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0.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0.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58)

이상 5건 4월 13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개정형태	소관부처
대통령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재정경제부